



PHI연구보고서 2018-06

PHI Research Paper 2018-06

어린이건강권사업 보고서 2013-2016



PHI Research Paper 2018-06

PHI연구보고서 2018-06

어린이건강권사업 보고서 2013-2016

어린이건강권사업은 시민건강연구소의 CHI 연구기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HI연구기금은 우리 연구소의 활동을 지지하는 뜻있는 회원의 기부로 조성된 연구기금입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8년 ~~(사)시민건강연구소~~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출판일		2018년 6월 29일	
편집인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필진		전경자 서상희	순천향대학교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연구참여		천안아동건강네트워크	
펴낸 곳		(사) 시민건강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팩스: 02 581-0339 누리집: www.health.re.kr 전자우편: people@health.re.kr	
ISBN		9791187195085 05330	

< 차례 >

여는 글	vii
1. 아동건강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2
1.1. 어린이 건강과 지역사회	2
1.2. 어린이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이론적 틀	3
1.3.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5
2. 아동건강네트워크 구축과정	7
2.1. 지역사회네트워크 현황	7
2.2.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 단체	13
2.3.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진행일정	15
3. 아동건강네트워크 지지 활동	21
3.1. 북콘서트	21
3.2. 교육강좌	26
3.3. 현장탐방	27
3.4. 아동건강뉴스레터 발행	28
3.5. 책읽기모임	35
3.6. 공부모임	37
4. 지역협력에 기반한 아침밥 지원 활동	38
4.1. 아침밥지원사업의 이유: ‘밥을 굶는 아이들’	38
4.2. 아침밥지원사업 진행과정	38
4.3. 아침밥지원사업 모니터링	47
4.3.1. 2014년 아침밥지원사업 사전·사후조사	47
4.3.2. 2016년 아침밥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53
4.4. 아침밥지원사업을 통한 연대 과정	56

4.5. 토론회	58
4.6. 성과와 고민	62
5. 지역사회조사사업: 아동건강행태조사	65
5.1. 설문조사 결과	65
5.1.1. 조사대상	66
5.1.2. 아침식사 섭취 행태	67
5.1.3. 식생활 행태	69
5.1.4. 교육복지대상아동의 아침식사	70
5.2. 아동면담 결과	71
6. 아동건강네트워크 캠프	75
6.1. 2014년 아동건강캠프	75
6.1.1. 2014년 아동건강캠프 개괄	75
6.1.2. 2014년 아동건강캠프 준비과정	76
6.1.3. 2014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내용	78
6.1.4. 2014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비용	81
6.1.5. 2014년 아동건강캠프 평가	81
6.2. 2015년 아동건강캠프	91
6.2.1. 2015년 아동건강캠프 개괄	92
6.2.2. 2015년 아동건강캠프 준비과정	92
6.2.3. 2015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내용	94
6.2.4. 2015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비용	98
6.2.5. 2015년 아동건강캠프 평가	99
6.3. 아동마음기지개캠프	110
6.3.1. 마음기지개캠프 개괄	110
6.3.2. 마음기지개캠프 내용	110
6.3.3. 마음기지개캠프 평가	112
7. 아동건강네트워크 기타실행사업	114

7.1.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인형극 개최	114
7.1.1. 배경	114
7.1.2. 개괄	114
7.1.3. 진행과정	115
7.1.4. 평가	115
7.2.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지원	116
8. 아동건강네트워크의 ‘네트워크’	119
8.1.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119
8.1.1. 참여: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 - ‘모른 채’ 시작하다!	119
8.1.2.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121
8.1.3. ‘함께’이지만 함께 ‘하지’ 않는다!	124
8.1.4.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정체성	126
8.2. 네트워크 활동 경험	127
8.2.1.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129
8.2.2. 새로운 경험	129
8.2.3. 활동의 부작용	132
8.2.4. 활동의 지속성	133
8.3. 어린이 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방향 모색	135

〈표 목차〉

표 1. Total Environment Assessment Model 개요	5
표 2. 천안시 어린이 관련 단체·기관 명단	8
표 3. 천안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	14
표 4.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일정과 주요 논의 내용	15
표 5. 북콘서트 진행 일정	21
표 6. 교육(강좌) 일정	26
표 7. 아동건강뉴스레터 발행 현황	29
표 8. 아동건강뉴스레터 수신자	30
표 9. 책읽기소모임 일정	36
표 10. 아침밥지원 추진과정	39
표 11. (예시) 2014년 아침식단	43
표 12. (천안의료원 임상영양사 자문) 2016년 아침식단	44
표 13. 2014년 아침밥지원 지원액, 아동수, 출석율	48
표 14. 아침밥지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49
표 15. 아침식사 후 좋아진 점	50
표 16.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청소년(햇살가득파랑새, 해누림)	54
표 17. 지역아동센터 소속 외 아동청소년(천안여중, 기타)	54
표 18. 아침밥지원사업에서의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 실제 역할 분담	57
표 19. 아동건강행태조사 개요	65
표 20. 아동건강행태조사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67
표 21. 아동건강행태조사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 섭취 일수	68
표 22. 아동건강행태조사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68
표 23. 아동건강행태조사 아침식사 만족도	68
표 24. 아동건강행태조사 저녁식사 횟수	69
표 25. 아동건강행태조사 주말(공휴일) 점심식사 횟수	69
표 26. 아동건강행태조사 식생활: 식품별 1주일간 섭취횟수	70
표 27. 아동건강행태조사 면담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	71
표 28. 2014 아동건강캠프 T/F 회의 진행일정과 주요 논의 사항	77

표 29. 2014 아동건강캠프 추진내용	78
표 30. 2014 아동건강캠프 추진비용	81
표 31. 2014 아동건강캠프 재참여의사	82
표 32. 2014 캠프 활동 중 가장 즐거웠던 활동(다수 선정 가능)	82
표 33. 2014 캠프에서 한 활동 중 집에 돌아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도	83
표 34. 2014 아동건강캠프 자원봉사자 평가	86
표 35. 2015 아동건강캠프 T/F 회의 진행일정과 주요 논의 사항	93
표 36. 2015 아동건강캠프 추진내용	94
표 37. 2015 아동건강캠프 추진비용	99
표 38. 2015 아동건강캠프 재참여 의사	99
표 39. 2015 아동건강캠프 프로그램 평가	100
표 40. 2015 아동건강캠프 환경 평가	101
표 41. 2015 아동건강캠프 자원봉사자 평가	102
표 42. 2015 아동건강캠프 실무자(네트워크) 평가	109
표 43. 마음기지기캠프 프로그램	111
표 44. 역할분담	112
표 45. 인큐베이팅지원사업공모 지원 기획안 개괄	117

〈글상자 목차〉

[글상자01] 참여: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	119
[글상자02]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1)	121
[글상자03]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2)	122
[글상자04]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3)	122
[글상자05]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4)	123
[글상자06]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5)	123
[글상자07]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6)	124
[글상자08]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7)	124
[글상자09] ‘함께’이지만 함께 ‘하지’않는다! (1)	125
[글상자10] ‘함께’이지만 함께 ‘하지’않는다! (2)	126
[글상자11]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정체성 (1)	127
[글상자12]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정체성 (2)	127
[글상자13]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1)	128
[글상자14]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2)	128
[글상자15] 새로운 관점: 어린이 건강권	130
[글상자16] 공감과 지지, 새로운 관점의 소모임	131
[글상자17] 네트워크 운영방식	132
[글상자18] 활동의 부작용 (1)	133
[글상자19] 활동의 부작용 (2)	133
[글상자20] 활동의 지속성	134

여는 글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어린이건강권사업을 진행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소식을 이제야 전하게 되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린이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참여와 연대를 통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그 과정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니다. 눈에 띄는 변화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뻐했던 성과들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우리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변화는 그렇게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고 진보의 한걸음을 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아동건강네트워크의 경험을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치부하기엔, 우리는 많은 것을 시도했고, 방향을 함께 고민했으며, 지역사회의 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아동건강네트워크 구축과 이러한 형태의 어린이건강권 연구 시도는 하나의 변혁 전략 모색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변혁이 일어나는 데 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어떤 형태로 담아낼 것인가 역시 고민이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그 과정의 역동과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른 형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2016년까지의 어린이건강권 사업에 대한 소개와 평가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6년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담지 못했습니다.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아침밥 지원사업’의 추후 평가와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1. 아동건강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1.1. 어린이 건강과 지역사회¹⁾

우리 연구소는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어린이의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행연구를 2012년부터 추진해왔다.

지역사회는 물리적 환경이면서 사회적 환경으로서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어린이들이 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더 많고, 가난한 동네에 오래 살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또한,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지역사회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어린이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입증되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연구소는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을 부모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역사회 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로 지역사회기반 어린이건강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어린이건강권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시작했다.

1)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요인으로, 어린이의 보다 나은 건강수준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의 장이기도 하고 실천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한 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2) 어린이건강권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 경험을 공유해 개인적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연구로서 현장의 실무자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했다.

3)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해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자 했다.

1) 아동건강권사업 보고서 2012, PHI연구보고서 2014-02, 시민건강연구소.

4) 동시에, 우리 연구소는 관찰하거나 관망하는 연구자의 위치가 아닌, 실천가의 위치에서 함께 문제를 이해하고 고민하며 개선 방향을 찾아 나아가기를 바랐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우리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어린이의 건강한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워 나갈 주체인 ‘사람들(기관/단체)’의 모임을 우선 구축해야 했다. 따라서 먼저, 지역사회기반의 연대활동 또는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은 참여적 실행연구 방식에 따른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2. 어린이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이론적 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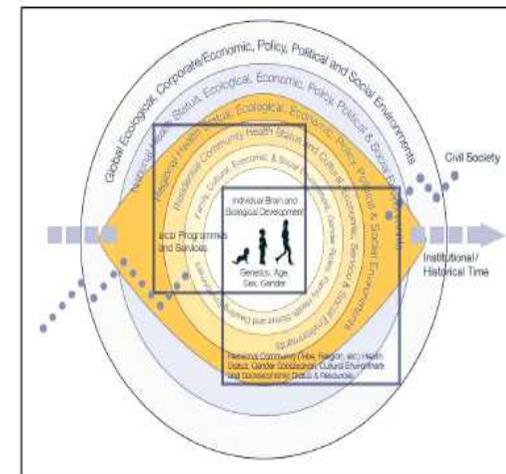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건강불평등 완화에 있어 초기 아동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 ‘초기 아동발달 통합환경 사정모델(Total Environment Assessment Model of Early Child Development: TEAM-ECD)’을 제시하고 있다.3)

첫 번째 가정은 아동의 신체, 사회와 정서, 그리고 언어와 인지의 발달은 아동의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초기 아동의 성공적인 발달은 잘 양육되어질 수 있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구성될 때 이뤄진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형평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전 생애 삶의 질의 평등함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TEAM-ECD의 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체계 중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뇌의 발달 수준, 영양의 결핍이나 적절성,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의 경험 등이다. 가족 체계에서는 주거환경,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아동과 주 양육자와의 애착, 가족 내 관계의 질이나 지지 수준, 양성평등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는 아동이 거주한 지역의 경제 수준, 이웃의 경제 수준, 고용률이나 실업률, 고학력자 비율,

수급권자 비율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환경과 여가활동이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보육이나 의료, 시작의 접근성, 그리고 교통의 편리성을 포함하는 서비스 환경,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안전한 정도와 사회적 자본이 구성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관계망은 아동과 관계하고 있는 공식적 지지 자원, 그리고 정서적지지 자원 등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램은 아동을 위해 얼마나 질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와 사정 도구가 적절히 갖춰져 있는가, 비용효과적인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광역의 지역단위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특성, 생태적 특성과 소득 불평등 수준, 사회적 자본 수준 등을 보는 사회정치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하게 얽혀진 복잡한 문제들이 어린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환경은 경제, 사회, 정치 상황에서 어디에 힘이 실리고, 권력이 움직이느냐와 함께 전 세계가 아동 인권, 아동의 공평한 발달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선언하는가가 전 세계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지역사회부터 전 세계 환경까지 모든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시민의 힘을 모아 아동 건강과 관련하여 아젠다를 형성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9가지의 체계들이 체계 내에서 그리고 체계 간에 상호교류를 하면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전 생애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1] Total Environment Assessment Model - Early Child Development (TEAM-ECD, Siddiqi et al, 2007, p.15)

2) 권세원,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분석. 2013 영펠로우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함.
3) Irwin, L.G., Siddiqi A., Hertzman, C.. Early Child Development: A powerful equalizer. Final report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Geneva.

표 1. Total Environment Assessment Model 개요

하위체계(sphere)		세부내용
The individual as a sphere of influence	개인	생물학적 특성(성, 연령, 유전자 등)
		뇌 발달 관계의 질 놀이
The Family as a sphere of influence	가족	가족의 주거환경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
		아동과 주 양육자와의 애착
		가족 내 관계의 질(갈등수준, 상호작용 등)
The Residential community as a sphere of influence	지역 사회	가족 내 지지
		가족 내 양성평등 수준, 아버지 역할 수행
		경제적 환경(지역의 경제적 안정성, 거주민의 경제수준, 고용률, 실업률, 고학력자 비율, 수급권자 비율 등)
		서비스 환경(여가활동, 신체활동, 공간, 보육/의료시장 접근성, 교통 편리성 등)
		사회적 환경(안전한 정도, 사회적 자본)
The relational community as a sphere of influence	관계망	비공식적지지(정서적지지)
		공식적지지

1.3.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⁴⁾

실행연구(action research)는 이미 수 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활용되어 온 연구방법으로 그렇게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방법론이 그러하듯이 실행연구 역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며 자기 진화를 거듭해왔다. 이런 점에서 1970년대에 국내에 소개·도입된 실행연구(현장연구)와 지금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의 실행연구는 객관성이나 이론 정립에 대한 관심 보다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실천의 자기 순환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천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연구방식이라 할 수 있다.

4) 실행연구방법, 이용숙 외, 2013, 학지사

실행연구는 연구자인 행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개인·사회적 삶을 탐구하여 계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지향적인 탐구 패러다임이다. 실행연구의 방법과 목적은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내부자의 시각에 의한 자발적인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Kemmis와 Mctaggart의 참여적 실행연구 방식을 주로 참고했는데, Kemmis와 Mctaggart는 참여적 실행연구가 특정한 방법적 관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이 보고한 참여적 실행연구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참여적 실행연구는 그 자체가 사회적 과정이다.
- 2) 참여적 실행연구는 ‘참여적’이다.
- 3) 참여적 실행연구는 실용적이며 협동적이다.
- 4) 참여적 실행연구는 해방적이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과 결정권의 가능성을 막는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불공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구조를 간파하고, 스스로 해방하도록 돕는다.
- 5) 참여적 실행연구는 비판적이다.
- 6) 참여적 실행연구는 순환적·반성적이다.
- 7) 참여적 실행연구는 이론과 관행을 모두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같이 연구자 주도로 정해진 기간에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고, 연구자 역시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며 의사결정과 활동의 모든 진행과정에서 행위 주체자이자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그간의 활동 경험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참여 연구자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다른 평가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Reason과 Bradbury(2001:1)는 실행연구는 매일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체험적 지식의 성장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탐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탐구의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실행연구에서 얻는 지식은 완결된 명사형(Knowledge)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동사형(Knowing)이라고 강조했는데, 우리 연구 역시 완결된 명사형으로 표현할 수 없고,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의 동사형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건강네트워크 구축과정

2.1. 지역사회네트워크 현황

아동건강네트워크는 기존에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어 안정된 토대위에서 시작했다.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과 논의 방식이 기존의 네트워크와 차이점을 보이기는 했지만, 형태와 틀은 비슷했고, 무엇보다 기존에 존재하던 유무형의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아동건강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아동건강네트워크를 결성하기까지의 초기 논의는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진경자 교수, (사)시민건강연구소, (재)풀뿌리희망재단,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초기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연대를 제안하는 중심단체이자 간사단체 역할을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맡았다.

(재)풀뿌리희망재단은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재단으로 천안지역 시민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폭넓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다. 현재 풀뿌리희망재단이 연대하는 기관과 단체는 행정기관 각 부처를 포함해 총 285곳으로, 이 중 어린이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지역 관련 단체와 기관(행정기관 포함)은 209곳이다.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은 부설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립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의 모든 아동들이 소외받거나 방치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단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 연대활동을 통해 천안시 57개 지역아동센터 중 약 15개 지역아동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동건강네트워크에는 기존에 (재)풀뿌리희망재단 또는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과 연대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연대활동을 시작하게 된 단체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재)풀뿌리 희망재단이나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해 왔던 단체뿐 아니라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지역사회 연대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단체를 포함해서, 천안지역의 어린이(가족·지역 포함) 관련 단체·기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굵은 글씨체,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참여 제안 단체

표 2. 천안시 어린이 관련 단체·기관 명단

분류	단체명
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광덕푸른
	깨비
	꿈나래
	꿈나무
	꿈섬
	꿈이있는
	꿈터 YWCA
	낮은 울타리
	다니엘 꿈터
	단비
	도담
	동산어린이센터
	두빛나라
	두정
	디딤돌
	리더자들의 수업
	목천
	미래
	반석
	병천민들레
	비전
	성남
	새솔
	새하늘
	샘물
	서로사랑
	솔로몬
	신명
	여명
우리두리	
은혜로운날푸른	
입장	
중앙파랑새	
직산	
착한아이	

	<p>천안</p> <p>천안남산</p> <p>천안우리 초원 푸른솔 푸른아이 푸른하늘 하늘꿈이자라는집 함빛</p> <p>해누리(청소년)</p> <p>서북구공립(청소년)</p> <p>해바라기(장애아포함) 해오름</p> <p>햇살가득파랑새</p>
공동생활가정	<p>꿈나무공동생활가정</p> <p>꿈찬공동생활가정</p> <p>다윗공동생활가정 성환공동생활가정 참사랑공동생활가정 충남좋은이웃쉼터 해피홈공동생활가정 행복한공동생활가정</p>
청소년 쉼터	<p>천안청소년남자자기쉼터 천안청소년남자중장기쉼터 천안청소년여자자기쉼터 천안청소년중장기여자쉼터</p>
생활시설	<p>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p>
특수학교	<p>천안대안학교 나사렛새꿈학교 천안인애학교 드림학교(달북인 대안학교)</p>
아동 관련 단체	<p>(사)부스르기사랑나눔회충남지부/지역아동센터충남지원단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월드비전 천안가정개발센터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p>

	<p>(사)청소년 만세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천안지부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부설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p>
장애	<p>(사)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 부설 두리사랑아동발달센터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 부설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 (사)충남장애인부모회천안지회부설천안시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충청남도장애인구강진료센터</p>
정신보건	<p>천안시알코올상담센터 해드림상담센터 천안시정신보건센터 천안시정신보건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p>
여성	<p>새소망의집(미혼모 자립 생활시설)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천안여성의전화 사)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p>
여성쉼터	<p>모이세 이주여성의집 천안YWCA쉼터 해오름쉼터</p>
가족 (가정폭력 등)	<p>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YWCA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소리 충남가족과성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p>
노숙자쉼터	<p>천안희망쉼터</p>
이주민	<p>천안 모이세(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p>
복지관	<p>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p>
지역복지관련 단체 & 기타 시민사회단체	<p>순천향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단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사)천안시천사운동본부 (사)충남자원봉사시민네트워크 (사)푸른일사귀자원봉사단체</p>

	<p>(사)한국해비타트 천안아산지회</p> <p>(재)풀뿌리희망재단</p> <p>복지세상을여가가는시민모임</p> <p>천안YMCA</p> <p>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p> <p>천안시자원봉사센터</p> <p>천안지역자활센터</p> <p>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p> <p>☞천안주거복지센터</p> <p>천안시사회복지사협회</p> <p>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p> <p>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p> <p>아름다운가게(쌍용점)</p> <p>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천안지회</p> <p>천안녹색소비자연대</p> <p>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p> <p>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p> <p>천안여성회</p> <p>천안NGO센터(천안시민단체공동협력센터)</p> <p>천안KYC</p> <p>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p> <p>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참교육학부모회</p> <p>푸른천안21실천협의회</p> <p>학교급식협의회</p>
협동조합(소비자)	천안아이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p>(사)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p> <p>꽃밭사업단(꽃배달)</p> <p>꿈이평화(이주민문화체험)</p> <p>북카페 산세</p> <p>전통연희단 난장애편(전통예술공연)</p> <p>☞즐거움밥상(도시락)</p>
학교교육복지	<p>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도솔프로젝트' 천안교육지원청</p> <p>천안초등학교</p> <p>천안남산초등학교</p> <p>신계초등학교</p> <p>천안신안초등학교</p> <p>천안성정초등학교</p> <p>천안중학교</p> <p>천안북중학교</p>

	<p>천안동중학교</p> <p>천안봉서중학교</p> <p>천안복자여자중학교</p> <p>천안서여자중학교</p> <p>천안여자중학교</p>
관련대학	<p>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p> <p>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부</p> <p>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p> <p>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p> <p>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p> <p>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부</p> <p>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p> <p>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p> <p>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부</p> <p>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p> <p>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p> <p>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부</p> <p>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p> <p>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p> <p>선문대학교 간호학과</p> <p>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p> <p>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p> <p>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지원팀</p> <p>상명대학교 학생복지팀</p>
의료/보건	<p>천안의료원</p> <p>천안시 서북구보건소</p>
여성단체	<p>대한미용사회 천안시지부</p> <p>대한어머니회 천안시지회</p> <p>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천안시지회</p> <p>은하라이온스클럽</p> <p>재향군인 여성회 천안시지회</p> <p>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p> <p>천안시 새마을 부녀회</p> <p>천안시 생활개선회</p> <p>천안시 여성이용소방대</p> <p>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p> <p>한국부인회 천안시지회</p>
관련	천안시 복지문화국
행정기관	천안시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천안시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천안시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
천안시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천안시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천안시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천안시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천안시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
천안시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천안시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보육팀
천안시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두정분관
천안시드림스타트센터
천안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2.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

어린이건강권사업을 시작한 첫해인 2012년에는 어린이건강권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회의와 강좌(세미나)를 했고, 지역네트워크(아동건강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고 당사자인 지역 어린이들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에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연구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이 자발적으로 연대해

5) PHI연구보고서 2014-2: 아동건강권사업보고서 2012, 시민건강연구소

만든 연대체인 ‘아동건강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는 초기 제안 당시, 가정 ‘아동건강모임 네트워크’로,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간사단체 역할을 맡고, (사)시민건강연구소,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재)풀뿌리희망재단은 협력기관으로 출발했다.

표 3. 천안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

분야	참여기관(단체)
아동복지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깨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신명지역아동센터(2014년 신규/탈퇴), 천안시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2014년 신규), 천안지역아동센터, 해누리지역아동센터,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여명지역아동센터(2015년 신규),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2015년 신규), 천안남산지역아동센터(2013년 탈퇴), 목천지역아동센터(2013년 탈퇴),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2013년 탈퇴),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2013년 탈퇴)
소비자	천안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교육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천안여자중학교 교육복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천안교육지원청(2016년 신규) 신안초등학교 교육복지(2015년 탈퇴)
의료	충청남도 천안의료원(2015년 탈퇴, 사안별 요청 시 연대의사 있음)
농업	학교급식협의회(식생활교육천안네트워크)(2013년 탈퇴)
여성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2013년 탈퇴/사안별 요청 시 연대의사 있음)
장애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2013년 탈퇴)
연구소	(사)시민건강연구소
기타	맑은마음wee센터(2016년 신규) (재)풀뿌리희망재단(2015년 탈퇴, 사안별 요청 시 연대의사 있음), (사)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2013년 탈퇴)

아동건강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참여를 독려하고 제안한 단체(기관)은 총 43개였는데, 이 중 초기 참여단체는 23개였으나, 2014년(末) 참여단체는 17개로 줄었고, 이후에도 탈퇴하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신규로 가입하는 단체도 있어 2016년(末) 현재 활동 참여 단체는 17개로 유지되고 있다.

탈퇴 단체는 네트워크 활동 방향이 자신의 단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나, 단체 내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참여 담당자의 퇴사 등의 이유로 탈퇴했다.

2.3.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진행일정

아동건강네트워크는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33회의 정기회의를 열었고, 세부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회의는 준비팀을 꾸려 추가로 진행했다.

진행일정과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일정과 주요 논의 내용

일자	회의명	참여 인원	논의내용
2012년 ※ 아동건강권사업보고서 2012 참고			
08월30일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한 강좌 1 김명희: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09월06일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한 강좌 2 윤태호: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09월 ~ 11월			6개 그룹 면담
12월20일			'건강한 아이들, 살고 싶은 천안' 워크숍 개최
2013년			
01월15일 ~ 02월05일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 여부 회신
02월07일	1차 정기회의	24	참가자의 기대 논의, 아동건강문제 제안 네트워크 이름 결정
02월28일	2차 정기회의	18	단체별 문제, 활동 소개(문제의식 공유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네트워크에 대한 제안
03월14일	3차 정기회의	20	현황파악, 문제의식 공유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구체적인 실천 제안
04월19일	4차 정기회의	17	실천과제워크숍: 조직결식 정신건강 →조직결식지원으로 실천과제 합리, 부모교육, 캠페인, 시범학교사업
05월24일	네트워크 내부 교육	22	"영양이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 강사: 단국대 김기량 교수/ 장소: 카페모모
07월16일	5차 정기회의	22	실태조사 계획: 쌍용1동 미라초 전수조사,

			조직결식지원 재원마련 위한 기금모금 계획
08월19일	6차 정기회의	15	실태조사결과 발표(아동건강행태조사) 조직지원방식(계획) 논의 역할분담-자발적 선택: 실무추진팀, 건강교육팀, 모금지원팀 단체별 행사 공유 시작(광고)
09월16일	북콘서트	17	"건강할 권리" (저자: 김창엽)
09월23일	7차 정기회의	14	조직지원방식(계획) 논의, 정책제도에 조직지원 반영 거론. 지속성의 중요성 언급.
10월16일	8차 정기회의	11	[조직지원역할분담]팀별보고 (모금캠페인 홍보물 캐릭터, 홍보 문구 등 보고)
11월13일	9차 정기회의	15	[조직지원역할분담]팀별보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실태파악) 지원 논의, 교육안 검토, 정신건강계 획안 지원 부탁, 조직지원기금마련 전단지 1차시안 공유)
11월22일	천안시 교육복지사 &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상 교육	26	"영양이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 강사: 김기량(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11월27일	북콘서트	19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저자: 임종한)
12월26일	10차 정기회의	14	[조직지원역할분담]팀별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사전 조사결과 참여 저조,학교 관계자의 부정적 반응, 모금 전단지 제작완료, 모금 캠페인 적극 참여 독려) 2014년1-3월까지 추진일정 모금캠페인 책임기 모임 제안(격주 진행 예정)
2014년			
01월23일	11차 정기회의	14	2014 아동건강네트워크 사업 방향 논의(연합캠프 공모참여 논의), 모금캠페인 평가(진행방식 등) 및 논의, 조직지원 시작시기 4월로 결정, 조직지원업체 논의
03월05일	12차 정기회의	16	초등학교에서의 조직지원 어려움 논의->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안 제안 조직지원업체 선정 가능하지 않음 연합캠프를 건강캠프로 추진
04월18일	13차 정기회의	12	4/1부터 조직지원(지역아동센터) 시작에 대한 반응 경과 보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아동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초등학교 지원 가능성 타진을 위한 사례조사
04월24일	북콘서트	18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

			(저서: 똥바다에 게가 산다, 팽이부리말 아이들 등)
05월13일	14차 정기회의	18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에 대한 후기 나눔. 2학기 지역아동센터 조식지원지급 마련 논의. (하반기)조식 지원센터 확대방안 논의-연합회 통한 실태조사 고려 교육팀 주축으로 캠프준비 실무팀 구성
06월17일	15차 정기회의	15	아동건강권사업 보고서 2012 발행/배포(시민건강연구소).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정상)는 어렵고, 아침지원 단계적 확대 모색. 2015 풀뿌리재단 아침밥지원 모금 주체적으로 하기 어려움 밝힘. 건강캠프프로그램 논의 cf) 5/27 천안의료원 방문
07월22일	16차 정기회의	23	방학중, 2학기 아침밥 지원방안 논의 건강캠프 준비점검
08월11일 ~13일	아동건강캠프	135	아동건강캠프: <아! 건전지 캠프> 5개 지역아동센터 연합
09월16일	17차 정기회의	15	아동건강캠프 평가, 어린이건강권토론회 논의, 모금팀 활동(풀뿌리희망재단) 14년도에 종료
10월07일	18차 정기회의	12	조식지원 중간점검 천안시와 교육청에 조식지원 요청방안 검토 2015년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위한 봉사자 준비 2015년 활동계획을 위한 워크숍 논의
10월23일	북콘서트 (책이야기마당)	10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저자: 박현희)
11월11일	어린이 건강권토론회	약 71명	차별받는 아이들의 아침밥 먹을 권리와 지역사회의 역할(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천안 만들기 토론회)
11월18일	19차 정기회의	14	어린이건강권토론회 평가, 네트워크 워크숍 준비 (천안아이쿱생협 교육팀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센터 방문 식품·영양교육 시작)
2015년			
01월09일 ~10일	아동건강네트워크 워크숍	15	<아동건강네트워크 워크숍> 네트워크 활동평가와 계획논의 <놀이연수프로그램> 강사: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임요규(초등학교 교사) 장소: 광덕산환경교육센터
02월27일	아동마음캠프		아동마음기개캠프

~28일			강사: 유성이 장소: 광덕산환경교육센터
03월17일	20차 정기회의	16	지역아동센터 아침밥 지원 관련, 구청과 논의 간담회 위한 제안서 내용 정리 (사)사랑의친구들 지역아동센터연합캠프 공모 당선-약정식 참여 네트워크정기회의 장소, 네트워크참여단체 돌아가며 회의하는 것으로 결정
04월20일	21차 정기회의	17	지역아동센터 아침밥 제공 관련 논의(take out 가능 여부(식중독위험성), 메뉴 다양성) '아동권리교육 강사양성과정' 교육 관련 논의
05월19일	22차 정기회의	12	아동권리교육 강사양성과정 강좌 명칭, 대상자모집 협조 등 논의 지역아동센터연합 건강캠프 관련 논의 클라우드펀딩 진행 논의(인형극)
06월16일	23차 정기회의	16	아동권리교육 강사양성과정 강좌 장소 클라우드펀딩 관련 논의(인형극)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논의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교육
06월24일~ 07월31일	인권교육강사 양성 교육	약 30명	기간:2015년 06월24일 ~ 07월31일(총10회) 주최:아동건강네트워크(사무공:미래를 여는 아이들) 교육기관: 인권센터 “들”
07월09일	24차 정기회의	14	지역아동센터연합 건강캠프 프로그램 공유 및 최종점검 클라우드펀딩 관련 논의(인형극 장소)
08월12일~ 14일	아동건강캠프	150	아동건강캠프: <아! 신통해 캠프> 6개 지역아동센터 연합
09월03일	25차 정기회의	13	천안지역아동센터 아침밥 지원 중단 관련 논의 인형극 관련 논의(극장 대관 어려움, 인형극ticket 시안 결정) 햇살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에 대한 감사 표현방식 논의
10월02일	26차 정기회의	14	인형극 준비팀 구성 지역아동센터 아침밥 지원관련 세부 논의와 진행을 위한 실행팀(분과) 구성 2015년 네트워크 (평가)워크숍 일정
11월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원		풀뿌리희망재단 2015신규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지원사업 지원: 미션정(탈락) (가)동네어린이건강센터 “함께 맞는 비”
11월13일	북콘서트	약 20명	“건강불평등, 사회가 건강해야 시민이 건강하다” (강사: 김창엽, 저서: 한국의 건강불평등)

			주최:(사)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11월14일	클라우드펀딩 초청공연 인형극		인형극 “그꿈들” 기차길열작은학교 초청공연
11월~12월	아동권리교육	약 200	“아동기 인권 신장, 나도 할 수 있어요!” <아신나> 대상: 그룹홈,지역아동센터 12개소 아동(신청) <아동건강네트워크 워크숍>
12월11일~12일	아동건강네트워크 워크숍	12	네트워크 활동평가와 계획논의 (실무자 힐링 프로그램 포함)

2016년

02월16일	27차 정기회의	14	아침밥 지속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 논의 지역아동센터 연합 건강캠프 관련 논의 아동건강관련 공부모임(스터디) 계획 논의 아동건강네트워크 실행팀(분과) 재구성 논의
04월08일	28차 정기회의	13	아침밥 지속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 진행 사항 공유: 하반기 간담회 개최, 부성중학교 아침밥지원활동 모니터링 지역아동센터 연합 건강캠프, 네트워크 취지에 맞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관련 논의 캠프분과에서 진행.
05월20일	29차 정기회의	17	아침밥 지원 향후 방향 논의 지역아동센터 연합 건강캠프 개최여부, 방향 논의(2016년 열지 않는 것으로 결정)
06월17일	30차 정기회의	13	아침밥 지원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강좌 특강 관련 논의
07월14일	아침밥 지원 확산을 위한 토론회		천안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침밥 지원 확산을 위한 토론회
09월09일	정신건강 교육 강좌	16	“아동기 발달과제와 문제행동의 이해” 강사: 박현정(맑은마음wee센터 센터장)
09월29일	31차 정기회의	13	아침밥 지원 확산을 위한 토론회 평가 및 아침밥 지원 활동 향후 방향 논의 정신건강 특강(전문가 초청 강의) 평가
10월21일	아침밥 지원 확산 활동: 광풍중학교 방문		아침밥 지원 활동 소개 및 제안, 광풍중학교 아침밥 지원 활동 논의
10월26일	아동정서지원관련 지역사회 자원 발굴		천안 공공이 어린이청소년 인문학 서점 방문 아동정서지원활동 참여 제안 및 수락
10월28일	32차 정기회의	15	아침밥 지원 활동 향후 방향(천안여중 아침밥 지원 방식/ 지원금 관련 논의)

			아동정서지원활동 방향 논의
11월25일	33차 정기회의	13	아동정서지원활동 방향 논의 2016년 (평가)워크샵 일정
12월13일	아동정서지원활동 간담회		2016아동건강네트워크 아동정서지원활동 '마음놀이터' 간담회

3. 아동건강네트워크지시 활동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 단체 및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북콘서트, 교육강좌, 아동건강뉴스레터 발행, 책읽기 소모임, 외부현장탐방 등을 진행했다. 2013년, 2014년 두 해 동안 북콘서트(저자와의 만남)는 총 4회, 교육 강좌는 총 2회, 아동건강뉴스레터 발행은 총 5회, 책 읽기 소모임은 총 7회, 외부현장탐방은 총 1회 진행했다.

3.1. 북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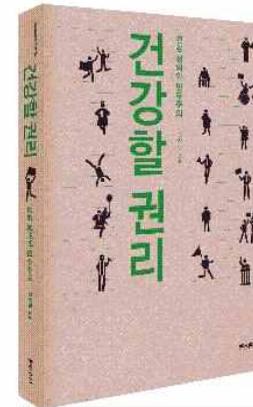
북콘서트는 어린이 건강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진행했는데, 2013년, 2014년 두 해 동안 총 4회 개최했다. 2014년의 경우, 책읽기 모임에서 읽은 책의 저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3년은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보다 어린이 건강권에 관심 있어 하는 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더 많이 참여하는 특성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참여 성향이 바뀌었다. 이는 북콘서트 내용이 조금 더 실질적인 경험 중심으로 좁혀지면서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교사(지역아동센터·그룹홈 생활복지사 등) 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정책 중심 단체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로 판단된다.

표 5. 북콘서트 진행 일정

일자	행사명	참여 인원	저자 (강사)	장소
2013.09.16(월)	“건강할 권리: 건강정의와 민주주의”	17	김창엽	카페 모모
2013.11.27(수)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18	임종한	카페 모모
2014.04.24(목)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 만들기, 고민을 나누다”	18	김중미	카페 모모
2014.10.23(목)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12	박현희	카페 모모



‘건강할 권리 건강정의와 민주주의’



건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대안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씌어진 ‘건강할 권리’ 북콘서트가 천안에서 열립니다.

책을 읽고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김창엽 교수의 북콘서트로 초청합니다!

- 일시: 2013년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카페 모모(천안시영성미디어센터 비제 1층)
- 주최: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총납지부
- 문의: phikorea@gmail.com/ 070-8658-1848

저자 김창엽(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의학과 보건 정책을 공부한 후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다. 비만 건강 정책, 건강 보장, 건강권과 건강정의 등이 주된 관심 분야이며, 그동안 쓴 책으로는 빈곤과 건강(2003), 미국의 의료보장(2005),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2006), 건강보장의 이론(2009), 무상의료란 무엇인가(2012) 등이 있다.

북콘서트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임종한 교수의 북콘서트를 초청합니다!

장르: 아동·청소년·가족·사회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일시: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카페모모(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1층)

무심코 먹고 있는 먹을거리들이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

식품산업, 주거산업, 제약산업의 부산물인 화학물질이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이러한 위협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자 **임종한** (안과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국이료생활환경학회 이사장)
 한국에서 의료생활환경종합 운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왔으며, 환경성이 다음세대가 온통을 통해 미래세대가 건강을 위한 환경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저서는 '가장 안전한의료', '생명을 살리는 빛깔' 등 다수가 있다.

주최: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 카페모모
 문의: phikorea@gmail.com / 070-8658-1848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 만들기, 고민을 나누다'



얼마 전, 아동건강네트워크 책임기모임에서 '동바다에 게가 산다' 독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작가인,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활동해 온 김중미 작가를 모십니다.

아이들과 지내며 고민스러웠던 점, 속상했던 점, 궁금했던 점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질문 보따리를 들고 참여하세요!!!
 일방향 강연회가 아닌 쌍방향 소통 '대화'의 자리입니다.

- 일 시: 2014년 04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 12시 30분
- 장 소: 카페 모모(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1층)
- 참가비: 본인 음료 비용, 질문 보따리
- 주 최: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충남지부
- 문 의: phikorea@gmail.com / 070-8658-1848

저자 김중미

1987년부터 인천 판석동의 오래된 판자촌에서 공부방 '기웃길연작은학교'를 열어 운영하며 빈민운동과 지역운동을 해왔고, 2001년에 강화도로 이사해 그곳에도 공부방을 열고 농촌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 1999년에 소년소설 『앵이부리말 아이들』로 제4회 장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창작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작가로도 활동해왔다. 그림책 『6번길을 지켜라 뚝딱』, 동화 『종이밥』, 『모여라, 유랑인 형극단!』, 『동바다에 게가 산다』, 『내 동생 아영이』, 『너영 너영 구렁뱀에서 놀자』, 장편소설 『거대한 뿌리』, 『꽃섬고개 친구들』, 청소년소설집 『조커와 나』 등을 냈으며, 『길 위의 신부』 문정현의 삶과 제적을 담은 책 『다시 길을 떠나다』를 냈다.
 (출처: 알라딘 저자 소개)

책 이야기 마당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지난 8월 아동건강캠프에서 만든 ‘걱정인형’에게 ‘돈이 없어 고민’이라는 걱정을 털어 놓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까요? 우리는 돈에 대해 어느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의 저자 박현희님과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 현 희님의 책 이야기 마당에 초청합니다!

- 일시: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카페 모모(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재 1층)
- 주최: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중남지부
- 문의: 서상희 phikorea@gmail.com 070-8658-1848

저자 박 현 희(서울 독산고등학교 사회 교사)

여전히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독서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교실로 향한다. 지은 책으로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행복을 배우는 경제 수업』 『나는 무슨 일 하며 살아야 할까』 (공저) 등이 있다. (출처: 알라딘)

3.2. 교육강좌

2013년 교육 강좌인 ‘아동기 영양과 건강’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중 특히 지역아동센터교사(생활복지사)와 학교교육복지사의 요청에 의해 기획된 강좌였다. 네트워크 참여자들 대상의 교육 진행 후, 동일한 주제로 천안시 교육복지사 대상으로 한번 더 진행했다. 2015년 진행된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 교육은 인권교육이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 센터 교사들의 요구가 있었고,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역시 변화하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생 모집 홍보는 지역사회 전체에 열여두고 진행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인 지역아동센터 교사, 천안아이쿱생협 회원 등이 많이 참여했지만, 노동단체나 개인으로 신청한 이들도 있었다. 2016년 진행한 ‘아동기 발달과제와 문제행동의 이해’강좌는 2013년 진행했던 강의처럼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대체로 강의 수강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호소에서 기획되어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 참여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연인 ‘아동기 영양과 건강’ ‘아동기 발달과제와 문제행동의 이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6. 교육(강좌) 일정

일자	행사명	참여 인원	강사	장소
2013.05.24(금)	“아동기 영양과 건강”	22	김기량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카페 모모
2013.11.22(금)	<건강교육워크숍> “아동기 영양과 건강”	26	김기량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
2015.06.24. ~ 07.31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	30	이묘량, 한날, 고은채 (인권교육센터 “들”)	천안NGO센터
2016.09.09(금)	“아동기 발달과제와 문제행동의 이해”	16	곽현정 (맑은마음wee센터 센터장)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꿈팜센터

3.3. 현장탐방

현장탐방은 ‘아이들을 살리는 동네(문재현 외 지음, 살림터)’ 책의 저자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목적과 아동건강네트워크 간사단체 활동가의 소진 완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 목적으로 추진했다.

- 일시: 2014년 07월 31일 (수)
- 방문장소: 청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속리산 법주사
 - 탐방자: 전O자(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박O연(선문대학교 간호학과), 서O희((사)시민건강연구소), 손O정((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 만남이: 문재현, 신동명, 김수동(청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천안에서 출발해 속리산 법주사에 들러 산책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청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를 방문했다.

청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이는 김수동 연구원이었는데, 그는 원래 아파트 동 대표를 4년째 하다가 2012년부터 아파트 공동체 운동(활동)을 시작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는 ‘아이들을 살리는 동네’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듯, 문재현 소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곳이다. 상근인력은 소장 1인, 청소년 연구원 2인이 있고, 비상임 연구원으로 신동명 연구원과 김수동 연구원이 있었다. 그리고 ‘평화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교사들이 비상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수곡동 주민네트워크’ 아동청소년 분과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명 연구원은 주민의 70% 이상이 수급자인 임대아파트는 슬럼화되어 아이들(중학생들)의 일탈 장소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을 이어갔다. 가난한 마을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서로 협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서로 무관심하며 주민들 간의 잦은 다툼으로, 마을에서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슬럼화 되도록 한 데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자를 밀어 넣고, 선별적 복지로 수급자 간에 서로 싸워 쟁취해 자원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알콜, 빈곤, 정신건강, 노인, 조손가정 등) 이들의 문제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다 답을 수 있는 단어였기에 ‘건강한 마을만들기 수곡동 주민네

트워크(이후 수곡동 주민네트워크)’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다.

기존에 동네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세 개 단체는 ‘통장협의회,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이고, 나머지는 다 파생단체이며 실질적으로 동네를 움직이는 단체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포함시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학교, 동사무소 등 30개 기관을 연결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갔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주민들이 고민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학교, 동사무소, LH공사 관리사무소 등을 어렵게 설득해 네트워크 작업을 해줬는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바뀌어 버리는 문제였다. 성과로는 마을 주민들에게 아동/청소년 일탈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고, 마을 주민들이 논의하고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동네커뮤니티 모임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설치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소설치 청원을 넣어 결국 시장의 공약에 직접 관여하기 까지 했다.

지역 내 학교에서의 활동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평화샘’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수곡동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근 신청해 왔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을 찾아 주는 게 참여를 독려하는 길이며, 이런 활동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될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하기에 ‘꾸준히’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했다.

이들이 최근 들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동네에서 ‘놀이’를 살리는 것이다. 놀이는 마법이나 자석과 같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한 시간에서 두 시간씩 동네에서 놀기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기껏 해봐야 ‘고무줄 놀이’나 ‘달팽이집 놀이’인데, 그것 가지고 한 두 시간을 놀고도 더 놀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들도 현재 동네에서의 이러한 놀이를 통한 화합과 체험 경험들이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문재현 소장은 학교폭력과 놀이의 실종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며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을 운동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과 경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강조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책에서 워낙 꼼꼼히 설명해 둔 터라 가서 보는 게 차이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길을 나섰는데, 한글 글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면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향후 아동건강네트워크 워크숍에 초청해 지역아동센터교사 대상의 ‘놀이연수’를 진행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3.4. 아동건강뉴스레터 발행

아동건강뉴스레터는 2013년 4회, 2014년 1회 발행 후, 뉴스레터 발행 형식과 방식을 바꿀 필요를 느껴 잠정 중단했다. 뉴스레터를 발행한 초기 목적은 네트워크정기회의 외에도 네트워크 소식과 아동건강 관련 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네트워크 참여자(지역아동센터 교사, 학교교육복지사 등)들이 이메일 확인에 익숙하지 않아 뉴스레터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표 7. 아동건강뉴스레터 발행 현황

회수	발송일자	내용
1회	2013.09.03	8월 아동건강관련 뉴스 스크래핑
2회	2013.10.01	9월 아동건강관련 뉴스 스크래핑
3회	2013.11.01	10월 아동건강 관련 뉴스 스크래핑
4회	2013.11.28	11월 아동건강 관련 뉴스 스크래핑
5회	2014.03.26	제 1회 아동건강책임기모임 소개
6회	2014.04.03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관련 기사 메일링
7회	2014.04.15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 홍보 메일링

표 8. 아동건강뉴스레터 수신자

김○성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김○진	천안신계초등학교
김○진	깨비지역아동센터	김○선	천안여자중 교육복지사
문○영	낮은올타리 지역아동센터	어○강	천안의료원 사회복지사
최○분	목천지역아동센터	김○목	천안중 교육복지사
김○두	병천민들레 지역아동센터	황○숙	천안지역아동센터
신○자	비전지역아동센터	황○섭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현	사)미래를여는아이들	김○기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희	사)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이○명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최○희	새솔지역아동센터	임○은	풀뿌리희망재단
김○환	서로사랑 지역아동센터	오○균	학교급식협의회
김○숙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서○영	해누리지역아동센터
박○경	우리두리지역아동센터	박○미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장○은	천안교육지원청	윤○영	
조○이	천안남산지역아동센터	송○영	
장○희	천안남산초등학교	김○숙	
이○은	천안동중학교 교육복지사	전○자	
박○아	천안봉서중학교	유○자	
김○선	천안북중 교육복지사	정○점	
손○수	천안서여자중학교	박○연	
권○리	천안성정중학교	조○경	
		박○은	

2013년에는 아동건강관련 뉴스를 스크래핑해 보냈으나 뉴스레터 확인율이 떨어져,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아동건강네트워크 소모임도 홍보할 겸 해서 2014년에는 아동건강네트워크 책임기 소모임의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그런데 이 역시 뉴스레터 확인율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잠정 중단했다. 발송 이메일 주소 등록은 41개, 일반적으로 발송 오류를 제외한 발송완료 메일은 33개 ~ 35개였고, 이 중 8 ~ 14명 정도 이메일을 확인했으며, 내용을 읽어 보는 이는 5 ~ 10명이었다.

Health For All Children.
시민건강증진연구소 http://health.re.kr phikorea@gmail.com

2013.9.3

행사 안내

HEALTH FOR ALL CHILDREN

- 2013.09.06 오후 4시 30분, 전 안여중, 우리가 만드는 희망로너 (미래를 여는 아이들)
- 2013.09.16 오전 10시 ~ 12시, 개평 모모, '건강할 권리' 북콘서트(시민건강증진연구소 권안지 부)
- 2013.09.26 저녁, 발달을 미끄러워 올릴, 보급자리 마련을 위한 달 달 아이들(현상기류파랑새)
- 2013.10.05 오후 3시, 산부동 연안시민문화여강회관, 출생배달인 연주회(출부리희망재단)

아동건강뉴스

- 8/1(기호일보) 동구보건소, 복지시설 아동 여름방학 건강학교 운영
- 8/1(경기일보) '배 채워주면 그만?' 갈색아들 인스타그램 생취 조정
- 8/1(경기신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무료 건강검진(연명의료,1천여명대상)
- 8/1(뉴스웨이) 인양시 개양구,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8/1(매일경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위험요소 1위 '미용성폭력'
- 8/2(뉴스스대연출) 송남도 '발목출판 아동교과제' 수평 생활을
- 8/2(연합뉴스) '월간사고' 후쿠시마 갑상선암 어린이 18명으로 늘어
- 8/1(경향신문) 어린이재단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유기반려"
- 8/2(경기신문) 도내 아동학대 해마다 2배 증가
- 8/2(뉴스와이어)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강연 '총 4부, 6회'
- 8/2(경남도민일보) [시원문재] 아동 치료는 지역사회의 몫
- 8/2(연합뉴스) "경시발달 중요" 대안 6대 미안 영아돌봄 금지

Copyright 2013 © People's Healt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Health For All Children.
시민건강증진연구소 http://health.re.kr phikorea@gmail.com

2013.11.01

행사 안내

HEALTH FOR ALL CHILDREN

- 2013.11.13 오전 10:30 아동권리네트워크 회의, 개평 모모
- 2013.11.22 오전 10:00 (개평) 아동기 건강과 영양지원(강사: 김기영, 단원대, 과수, 건강교육원장 특수교육센터 3층 중회의실)
- 2013.11.27 오전 10:00 (개평 모모) 주력 기념 북콘서트 '아이들 품에 죽어 싶다고 이야기' (가: 임종환), 주최: 개평 모모 &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송남지 부, 장소: 개평 모모

아동건강뉴스

"어린이 안전리스크 격화" 관심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송주시, 어린이 안전역거리 위탁운영 협약
"재소가 좋아요", 어린이 그림책 '성함' 서훈대행, 어린이병동 급식 외주...영아를 '분노'
이주아동 41% "한국인 친구 없다" 보고서 [국경]해외취급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논란
"인터넷 성학대 피해 희생자는 아동"
제1회 서울 구로 국제아동아동학대, 23일 개막
법안제 출연은 어린이들이야, 희생만 하면 안건?
[국경]어린이보호시설 부설, 발생률 70%까지 사용 불가 징계제로 사용 불허...위험 받는 어린이 건강
소송금 10억 중 3억, '양육권' 식기세척기 사용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 공개해도 돼"
장성군, 아동보호 미행 '안전지도' 제작

▲ 한 어린이가 학교폭력에 대해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있다. 위키에서 검색해 보고 다음을 읽고 남기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들의 글이 단 몇백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Copyright 2013 © People's Healt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Health For All Children.
시민건강증진연구소 http://health.re.kr phikorea@gmail.com

2013.10.01

행사 안내

HEALTH FOR ALL CHILDREN

- 2013.10.05 오후 3시, 산부동 연안시민문화여강회관, 출생배달인 연주회(출부리희망재단)

아동건강뉴스

아동돌봄시설 안전지침이 보육교사엔 '민간 CCTV'
[생방송의 아동학대] 기본 해결 가르치기, 아이는 지킬 수 배우지 않는다
제1 번민 아동 '자녀나 할랑만' 갑을 사연이 거짓말이었다고?
취학전 아동 7% 사교육 경험...영아유치원 교무실 전일제
최종욱 논외지 논외에 '아동인양'
희영회 설립, 명백한 아동 인권침해
구강질환 증후군에 아동유치원관리사명 미충
한국 아동복지지출 수준 OECD 34개국 중 32위
연세 서구어린이재단지정센터, 연세지역아동센터 협약회와 업무협약
광주 북구, 취약계층 아동 '건강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성남시, 전국 최초 아동 돌봄 '마중거점' 단행

Copyright 2013 © People's Healt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Health For All Children.
시민건강증진연구소 http://health.re.kr phikorea@gmail.com

2013.11.29

행사 안내

HEALTH FOR ALL CHILDREN

- 2013.12.17 오전 10:30, 개평 모모, 제10차 아동권리네트워크 회의

아동건강뉴스

지난해 아동학대 6400건...부모가 학대자 대부분
아동 학대 사망 더는 없게...한국판 '올림피아드' 보고서 '낸드'
아동학대 성(性) 피해 심각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 기준 강화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단 공개
부모와 일하며 보초급 월가, 어린이집 버려 버려
불량 어린이집 216곳 적발, 사법당국 고발
아산시의 갈매아동 입양 기피 아쉽다
수원시 일부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아동 건강 위험
지자체, 급식아동 인스턴트 식품섭취 조절 사실상
아동 학대방해 '유해물질' 검출...소비자 불만
개발도상국 아동, '교육이 식량보다 더 가치 있다'
인연 서구, 아동 안전지도 선정
아름다운재단, 시설 외소 아동 지원 캠페인
서울시, 아동복지증진 위한 명해지역아동센터장 위촉
성북, 국내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 11월 27일 '아이 품에 죽어 싶다고 있다' 북콘서트가 개평 모모에서 열렸습니다.

Copyright 2013 © People's Healt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3.5. 책읽기모임

소모임으로 ‘책읽기모임’을 진행했다. 참여자는 개비지역아동센터 김O진, 정O점, 천안시서북구공립청소년지역아동센터 박O은, 해누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서O영,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손O정, (재)풀뿌리희망재단 임O은, (사)시민건강연구소 서O희로 총 7명으로 시작했다. 이후, (재)풀뿌리희망재단이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탈퇴하면서 담당 간사였던 임O은이 책읽기 모임에서 빠졌고, 손O정, 김O진이 퇴사와 동시에 모임에서 빠졌다. 한편,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 센터장으로 새로 부임한 박O미,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신입 간사 김O림이 책읽기 모임의 신규 멤버로 들어왔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몇 달 건너뛰기도 했지만, 가급적 월 1회, 아동청소년 관련한 책이나 영화를 함께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읽기모임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일터를 소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모임을 진행하는 사회자 역시 돌아가면서 맡았다.

책읽기모임은 참여자들의 참석율도 높고 참여도와 만족도도 높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속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개인적 고민 등을 함께 나누며, 참여자들 간 친밀감이 크게 형성된 모임이었다.

그러나 아동건강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모두가 각자 감당해야 할 현장 실무가 많고, 아동건강네트워크 내에서도 실행사업별 분과 회의가 잦아지면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나다보니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았다. 업무량이 늘어날수록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참여하는 참여자도 점점 늘어났다. 무엇보다 2015년 아동건강네트워크 평가 워크숍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 행동을 주제로 한 ‘공부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공부 모임과 책읽기모임 두 개를 다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2016년부터 ‘공부모임’을 새롭게 꾸리고 책읽기모임은 중단하는 것으로 정기회의에서 논의됐다. 그런데, 책읽기모임에서 아동건강네트워크 내의 소모임이 아닌 ‘사조직’으로라도 책읽기모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2016년 한해 더 책읽기모임이 진행됐다. 2개의 모임 모두에 참여한 참여자는 천안시서북구공립청소년지역아동센터 박O은,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 박O미,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김O림이었다.

표 9. 책읽기소모임 일정

회수	모임날짜	책 정보	장소	참석 인원
01회	2014.03.25.	동바다에 게가 산다(김중미 저)	카페모모	8명
02회	2014.06.03.	위키드 베이커리(구병모 저)	(재)풀뿌리희망재단	7명
03회	2014.07.08.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아키타다 사회부 아동빈곤 취재반 저)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3층 동아리방	7명
04회	2014.09.03.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박현희 저) 우리는 차별을 찬성합니다. (오찬호 저)	개비지역아동센터	6명
05회	2014.11.19.	왜 맛있는 건 다 나쁠까? (오세연 저)	해누리지역아동센터	6명
06회	2014.12.09.	DVD 코르작(감독: 안제이 바이다)	해누리지역아동센터	6명
07회	2015.01.08.	자비를 팔다(크리스토퍼 히친스 저)	개비지역아동센터	6명
08회	2015.03.25.	고마워 치로리(오키 토오루 저) 죽음학수업(에리카 하야사키 저)	개비지역아동센터	8명
09회	2015.04.24.	수상한 북클럽(박현희 저)	개비지역아동센터	6명
10회	2015.05.26.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 (최은희 저)	개비지역아동센터	6명
11회	2015.08.25.	불편해도 괜찮아(김두식 저) 내안의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 (제인블루스틴 저)	해누리지역아동센터	5명
12회	2015.09.22.	대한민국원주민(최규석 저)	개비지역아동센터	7명
13회	2015.10.27.	소금꽃나무(김진숙 저)	해누리지역아동센터	4명
14회	2015.11.20.	공룡들의 슬픈오마주(최규석 저)	불당동 Valenti	4명
15회	2016.02.16.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박현희 저)	햇살가득과랑새 지역아동센터	4명
16회	2016.04.14.	꽃달고 살아남기(최영희 저)	해누리지역아동센터	4명
17회	2016.06.22.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김해원 저)	해누리지역아동센터	5명
18회	2016.07.15.	DVD 너는 착한 아이(감독: 오미보)	해누리지역아동센터	5명
19회	2016.11.18.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블드 저)	해누리지역아동센터	5명
20회	2017.01.03.	책읽기모임 마지막 모임(파티)	햇살가득과랑새 지역아동센터	5명

3.6. 공부모임

공부모임은 2015년 아동건강네트워크 평가 워크샵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부터 진행하게 된 소모임이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기초 지식 확립을 통한 실무자(센터장 포함)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공부할 자료를 각자 읽어 온 후, 주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필요한 경우 영역별 전문가를 섭외해 강연을 여는 것으로 기획했다. 월 1회 진행했는데, 참여단체들 간에 바쁜 일정(행사 등)이 있을 때는 일정을 조정해 유연하게 진행했다.

2016년 한해 동안 진행한 공부모임 교재는 에릭H. 에릭슨의 ‘유년기와 사회’와 루소의 ‘에밀’이었다.

책임기 소모임처럼 참여자의 자발적 관심과 의지로 참여했고,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나 그룹홈 생활복지사였다.

4. 지역협력에 기반한 아침밥 지원활동

4.1. 아침밥지원사업의 이유 : ‘빚을 끊는 아이들’

어린이건강권사업을 함께 한 지역인 천안은 아침밥지원사업을 시작할 시점인 2013년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점식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학기 중 저녁식사나 방학 중 점식식사는 급식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학생 1,283명(미취학아동 포함)에게 지역아동센터 또는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흔히들 ‘밥 끊는 아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끼니를 굶거나 대충 때우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2013년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천안시 L초등학교 전교생 대상의 아동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아침식사를 일주일 중 4일 이상 결식하는 아동은 9.7%로 10명 중 1명이었고, 아침식사를 거르게 된 이유 1순위는 아침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아침결식률이 5배나 되었고, 심지어 전교생 428명 중 점심 한끼로만 하루 식사를 해결하는 아동도 33명(4%)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할 첫 번째 사업으로 ‘아침밥 지원’을 선정했다.

어린이의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영양, 교육, 신체/발달, 정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권장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꽤 있다. 또한, 성인과 달리 어린이에게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초창 강연을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듣기도 했다. 하지만 ‘아침밥 지원 사업’을 아동건강네트워크가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아침밥을 굶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어린이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었다.

4.2. 아침밥지원사업 진행과정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아침밥 지원 활동 초기 계획은 아동건강행태조사를 실시했던 L초등학교에서 아침밥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낙인감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되 가정 경제사정이 어려운 아동은 아동건강네트워크가 비용을 부

담하고 가정 경제사정이 어렵지 않은 아동은 양육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의 반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고, 결국 한 해 동안의 논의 끝에 2014년 4월부터 아동건강네트워크에 참여하는 2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침밥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세부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6)

표 10. 아침밥지원 추진과정

활동명	기간	세부내용
2013년		
아동건강 네트워크 회의 진행	2013년 2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지역 아동기 건강 지지망 형성을 위한 아동건강 네트워크 결성 및 진행(총 10회) - 지역사회 아동 건강 문제 포괄적 논의 - 아동건강행태조사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논의 - 저소득 가정 아동 아침밥 제공 계획 논의
아동건강 행태조사	2013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초등학교 아동건강행태 양적, 질적 조사 - 대상: 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6학년 총 428명 - 조사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생 20여명 - 내용 양적조사-설문(1:1면담)조사 진행 질적조사-조손가정, 한부모가정, 탈북가정 1:1, 일반가정 아동 남2, 여2 포커스그룹 면담 (총 7명) - 결과: 7일 중 4일 이상 조식결식 아동 9.7%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 1위로 아침식사를 챙겨줄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
아침밥지원 수행기관 논의 (초등학교)	2013년 7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밥 제공 수행처 초등학교 활동 제안 논의(총3회) - 장소: 천안초등학교 교장실, 교육복지실, 급식실 - 내용: 아침밥 제공이 필요한 아동 아침밥 제공 계획 및 아침급식 실시 시 급식실 가능사항 논의 - 결과: 인력난으로 학교 급식실에서는 아침식사 준비 불가, 대신 급식실 개방하여 외부업체 급식 제공 가능.

6)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천안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아이들을 위한 아침급식 지원 활동경험과 방안 모색'. 김소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인 문제로 급식비 처리, 학교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는 의사 표명함.(전체 아동 대상 급식 반대)
아침밥지원 수행기관 논의 (지역아동센터)	2013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밥 제공 수행처 지역아동센터 활동 논의(총3회) - 내용: 초등학교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동네에 아침밥 제공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해 논의 - 결과: 원성2동 천안지역아동센터, 햇살가득과랑새 지역아동센터 활동 결정
	2013년 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인근 초등학교 아동 연계 논의 - 장소: 천안초등학교 교육복지실 - 내용: 초등학교 내 아침밥 제공이 필요한 아동 수요 조사 요청 등 아동 연계 논의
2014년		
아침뜬든 112 캠페인 및 모금 활동	2014년 1월~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가정 아동 아침밥 지원을 위한 '아침뜬든 112 모금 캠페인' (총 2회) - 대상: 천안시민 - 장소: 롯데마트 쌍용점, 신부동 아라리오 조각광장 - 내용: 플래시몹, 아동건강행태 안내, 모금홍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풀뿌리희망재단을 통한 정기 모금 활동 등
아침밥지원 수행기관 논의 (초등학교)	2014년 2월,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밥 제공 수행처 초등학교 활동 제안 논의(총2회) - 장소: 천안초등학교 교장실 - 내용: 아침밥 제공에 대한 초등학교 논의 - 결과 ◦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침밥 지원은 낙인의 위험성 ◦ 위생 문제 요인의 우려로 학교에서의 장소 지원 불가 결정
아침밥제공 수행기관 결정	2014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밥 지원 수행처 지역아동센터로 결정 - 수행처: 천안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2개소) - 내용: 원성2동에 위치한 센터에서 시범사업 결정
아침밥제공 사전조사	2014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밥 제공 아동 사전 조사 시행 - 대상: 아침밥을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명 - 장소: 천안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2개소) - 내용: 평소 식이 선호도, 식사 빈도, 학교생활, 아침 지원 신청 이유, 아침식사에 대한 인식 1:1 면담
아침밥제공 시작	2014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아침밥 제공 시작 - 대상: 아침밥 제공이 필요한 지역 아동 총 40명 - 장소: 햇살가득과랑새/천안 지역아동센터(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방법: 등교 전 센터 방문하여 식사 - 식사종류: 간편식(주먹밥, 샌드위치, 과일 등)
아침밥지원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 개최	2014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친안만들기 토론회 “차별받는 아이들의 아침밥 먹을 권리와 지역사회의 역할”
2015년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아침밥지원 예산지원 시작	20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조식지원예산 편성하여 식비 지원 시작 -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아침밥 희망 아동 - 내용: 아침밥 식비 지원(1인 4500원)
천안시 동남구청에 아침밥지원 관련 예산지원 제안	201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밥지원 예산지원 관련 동남구청 가족복지팀과 간담회(제안/논의) - 내용: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침밥제공 메뉴 관련, 아침밥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소속 외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침밥 지원에 대한 식비 지원 관련 - 결과: 아침밥 메뉴는 기존에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제공해왔던 영양과 아침시간을 고려한 간편식 제공에 동의(협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외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침밥 지원에 대한 식비 지원은 불가 결정.
아동건강네트워크 아침밥지원 제공처 1개소 지원 중단	2015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1개소 아침밥지원 중단 결정 - 중단 결정 제공처: 천안지역아동센터 - 중단 사유: 급식비 지원 관련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침밥지원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아침밥지원 중단
천안시 아침밥 지원 행정절차 관련 논의	2015년 8월,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아침밥지원 식비지원 행정절차 변경 - 변경전: 아침밥지원 제공처인 햇살가득과량새지역아동센터에서 모든 지원금액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동남구청의 행정절차상 문제 제기 - 변경후: 제공처인 햇살가득과량새지역아동센터와 제공처로 이동해 아침지원을 받고 있는 해누리지역아동센터가 각자 대상아동의 조식비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변경됨
양질의 아침밥 지원 지속과 확산을	2015년 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건강네트워크 내 아침밥지원팀의 정기적 논의 - 내용: 아침밥지원활동 공유 및 논의, 아침밥지원활동 모니터링 진행

위한 대안 논의		
2016년		
아침밥지원 지속 진행 중	2016년 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밥지원 현황 - 제공처: 햇살가득과량새지역아동센터 - 대상: 희망 아동청소년 25명 (센터 9명, 센터 외(교육복지대상아동 등) 16명)
민간모금진행	2016년 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밥지원 민간모금 진행 - 지원: 시민건강연구소,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풀뿌리희망재단 아침밥지원 예산지원 논의	2016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뿌리희망재단 예산지원 논의 - 장소:(사)미래를여는아이들 - 내용: 아침밥지원 예산 지원 논의 및 제안서 작성 - 결과: 2016년 아침밥지원 재정부족분 지원 결정, 재정지원액 단가 상향조정 확정 (1식 2,000원 → 4,500원)
아침밥지원 메뉴 다양화	2016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입맛, 영양가, 편리함 고려한 메뉴 다양화 시도: 천안의료원 임상영양사 지원
아침밥지원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6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아침밥 지원활동 확산을 위한 토론회
아침밥지원 확산 활동	2016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풍중학교와 간담회 아침밥지원 활동 소개 및 제안, 광풍중학교 아침밥 지원 활동 논의

아침밥 지원 단가는 신청 아동 1인 2,000원, 급식교사 인건비는 1시간 10,000원으로 2시간을 책정해 지원했다. 식단은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전)초등학교 영양교사, 아이쿱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했고, 아침시간에 부담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급식교사가 직접 만든 주먹밥, 샌드위치, 과일로 구성된 간편식을 제공했다.

표 11. (예시) 2014년 아침식단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견과류토스트 제철과일 ¼	표고버섯주먹밥 과일음료	감자크로켓 제철과일 ¼	참치마요삼각김밥 과일음료	7 계란주먹밥 과일음료
8 미니햄버거 제철과일 ¼	9 유부초밥 과일음료	10 크래미샌드위치 제철과일 ¼	11 치즈샌드위치 과일음료	14 김밥 과일음료
15 허니토스트 제철과일 ¼	16 밥도그(밥+맛살/햄) 과일음료	17 야채주먹밥 과일음료	18 야채토스트 제철과일 ¼	21 밥새우삼각김밥 과일음료
22 야채샌드위치 제철과일 ¼	23 미니중무김밥 과일음료	24 계란토스트 제철과일 ¼	25 맛살브로콜리주먹밥 과일음료	28 햄토스트 제철과일 ¼
29 김치주먹밥 과일음료	30 감자샌드위치 제철과일 ¼	31 참치김밥 과일음료		



물가인상을 고려하고 양질의 식단 구성을 지속하기 위해 단가 인상과 메뉴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했다. 이에, 2016년 3월 (재)풀뿌리희망재단과 추가식비지원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고, 천안의료원 임상영양사의 자문을 구해 메뉴구성도 재정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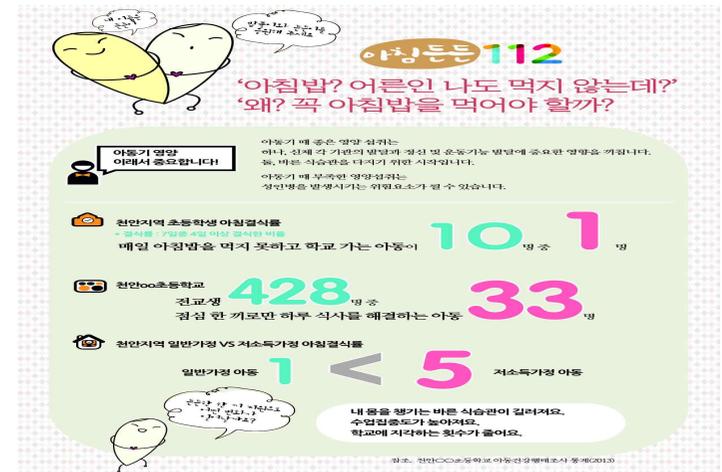
표 12. (천안의료원 임상영양사 자문) 2016년 아침식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4	5
삼색소보로 비빔밥 피크닉 방울토마토/통아몬드	햄감자볶음밥 맑은된장국 바나나/요플레	프렌치토스트(계란, 식빵, 우유) 우유/수박	참치마요밥버거 포도주스 골드케위	김가루주먹밥 유부다시마국 구슬아이스크림
8 모닝빵샌드(아채샐러드) 양송이스트프/요플레	9 계란야채주먹밥(계란, 당근, 양파) 배추김치/맑은된장국 수박	10 쇠고기콩나물밥 어묵국 요플레/매론	11 감자샌드위치 크림스프 수박/견과류	12 쇠고기피망볶음밥 맑은된장국 방울토마토
15 제육덮밥(돈육불고기, 상추채) 계란파국 사과/이오	16 햄야채볶음밥/계란후라이 감자미역국 배	17 황기닭죽 파인애플 요플레	18 해물볶음밥(새우살, 옥수수, 당근, 양파) 배추김치 방울토마토/피크닉	19 크로와상빵/딸기잼 크림스프 오렌지주스/매론
22 쇠고기국밥(갈비탕) 팍두기 매론/구슬아이스크림	23 피자떡볶이 교지어묵 포도주스/매론	24 유부초밥 계란파국 토마토/치즈/요플레	25 베이컨볶음밥(베이컨, 파프리카, 양파) 아욱된장국 방울토마토	26 식빵토스트/잼/계란부침(양파, 당근) 우유/오렌지
29 쇠고기불고기덮밥 배추김치 방울토마토	30 날지알김치볶음밥 옥수수스프 오이소박이/파인애플			



아침밥 지원사업 초창기에는 밥, 국, 반찬 2개 이상의 형태로 지원을 하였으나 일어나서 먹는 첫 끼로는 부담스럽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문 받은 식단을 응용하여, 영양학적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담길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가급적 과일과 채소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식단을 구성했다. 무엇보다 급식교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수시로 묻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아침밥 지원 비용은 (재)풀뿌리희망재단을 중심으로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힘을 합쳐 모금 활동을 전개해 충당했다. ‘아침든든112모금’ 캠페인은 천안 롯데마트 쌍용점, 신부동 아라리오 조각광장 앞에서 플래시몹, 아동건강행태알리기, 모금홍보, 전단지 배포, 풀뿌리희망재단을 통한 정기 모금 홍보 등의 내용으로 총 2회 진행했다. 여러 차례 진행하고자 했으나 추운 날씨 탓에 길거리 모금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SNS 홍보, 이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다른 방식의 홍보로 방식을 변경했다. (재)풀뿌리희망재단에서는 천안시 소재의 기업체나 식당 등을 방문해 면대면 홍보를 하기도 했다.



아침든든112 나눔약정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든든한 한 끼 나눔을 전해주세요.

성명 _____ (남/여) 핸드폰 _____
 기부금액 _____ 원 주소 _____

* 아래 기부 방법 중 선택해주세요.

정기기부 (약정해주시 금액을 매월 납부하는 방식)
 * 자동이체 신청시 필요항목
 예금주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출금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출금일선택 5일 15일 25일
 *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명의자성함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일시기부 (약정해주시 금액을 1회만 납부하는 방식)
 농협 301-0041-8894-51 / 국민 353537-04-000034 (예금주 : (재)풀뿌리희망재단)
 * 입금 후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으로 전화(041-576-6490)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인)

* 풀뿌리희망재단에 기부하시는 기부금품에 대해 개인은 소득공제(30% 한도), 법인은 손비처리(10%한도)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4.3. 아침밥지원사업 모니터링

아침밥지원사업 모니터링(사전·사후조사 포함)은 아침밥지원사업의 결과를 일반화할 목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할지라도 ‘지금, 여기’ 아침밥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각 개인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즉, 우리가 아침밥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현재 사업진행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진행했으나, 조금 더 세심한 모니터링을 위해 아침밥지원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했다.

4.3.1. 2014년 아침밥지원사업 사전·사후 조사

아침밥지원을 받아 사전·사후조사가 가능한 아동은 25명밖에 되지 않아 통계적 수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없기도 했지만, 사전·사후조사의 초기 목적 역시 ‘아침밥의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논거 마련이 아니라 우리(아동건강네트워크)가 이 사업을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할 시기에 돌봄의 부재로 밥을 굶고 있는 어린이에게 아침밥을 지원 한다’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당사자(아침밥 지원을 받는 아동) 입장에서 평가하고 반영하여 좋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아침밥 지원 아동 한명 한명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위함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 건강

권 사업의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번이라도 아침밥 지원을 받은 아동은 총 58명이었다. 이들 중 28명은 초등학생이고, 30명은 중·고생인데, 천안여중 교육복지대상 아동 중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지원 받은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기에 참여한 단체는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 해누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였는데, 2014년 6월부터는 천안여중 교육복지대상 아동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제공처는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와 천안지역아동센터 2군데였고, 해누리지역아동센터는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에서, 천안여중 교육복지대상 아동들은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아침밥 지원을 받았다.

4월에 신청해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먹은 아동도 있지만 중간에 아침밥 지원을 그만 받았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센터 자체를 퇴소하게 되어 아침밥 지원 받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3. 2014년 아침밥지원 지원액, 아동수, 출석율

월	지원액		조식 신청 아동수(명)				하루평균출석 아동수(명)		아동 1명당 평균 출석율(%)	
	햇살	천안	햇살	해누리	천안	천안여중	햇살	천안	햇살	천안
4월	1,364,000	880,000	16	5	10	-	19.1	7.8	90.50%	86.90%
5월	1,200,000	760,000	15	5	9	-	19.9	8.7	99.50%	96.90%
6월	1,178,000	1,000,000	16	5	7	8	19.6	12.5	98.00%	83.50%
7월	1,178,000	1,150,000	16	5	7	8	19.6	11.6	98.00%	77.00%
8월	320,000	-	17	5	-	-	19.3	15.0	-	-
9월	1,216,000	1,160,000	17	5	11	8	19.3	15.0	87.50%	78.70%
10월	1,302,000	1,050,000	16	5	7	8	19.0	14.3	90.50%	95.40%
11월	1,240,000	1,116,000	16	6	11	8	20.0	12.5	95.20%	65.50%
12월	1,364,000	1,100,000	16	6	7	8	20.2	13.7	96.30%	91.10%
계	10,362,000	8,216,000								

2014년 아침밥지원 사전조사는 2014년 3월 27일부터 31일 사이, 사후조사는 2015년 1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진행했다. 사전조사에는 29명의 아이들이 참여했고, 사후조사에는 23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동일하게 참여한 아동은 17명이었다.

아이들은 아침밥지원 신청이유로 부모님의 권유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권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발적으로 본인도 신청하고 싶었다고 답한 아동의 신청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친구랑 함께 먹고 싶어서’ ‘무료라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를 꼽았고, 개별 기타 의견으로는 ‘아침식사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침을 먹고 싶어서’ ‘엄마가 아침 챙겨주기 힘들 것 같아서’ ‘아빠가 무료라서 좋아함’ ‘맛있어서’ 등이 있었다. 부모님이나 교사의 권유로 아침밥 지원을 신청한 아이들은 비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딱히 신청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몇 명의 아이들만 신청하고 싶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아침시간이 빨라서’ ‘귀찮아서’ ‘집밥이 맛있고 지역아동센터 밥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전조사에서 아침 지원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묻자, ‘다 좋다’ ‘지금 이대로(좋다)’ ‘없다’ ‘배고픔을 채울 수 있으면 된다’ ‘아무거나’ ‘선생님이 해주는 거 전부다’ (음식)나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대답했는데, 사후조사에서는 대부분 ‘없다’고 대답했다.

원하는 메뉴가 무엇이나고 묻자 대체로 아이들은 주먹밥, 김밥, 고기를 원하는 메뉴로 이야기했지만, 사전·사후조사 통틀어 다들 제각각의 메뉴를 이야기했다. 원하는 메뉴가 없다고 대답한 아이들도 많았다.

아침지원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다. 사후조사에 참여한 아동 23명중 여학생은 대체로 만족했으나, 남학생의 경우 무응답자를 포함해 대부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거나(보통),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아침지원 9개월 동안 월 1회 정도의 참여관찰을 실시했는데, 관찰 당시에도 여자 아이들은 모여서 먹고 놀며 등교도 같이 했지만, 남자 아이들은 각자 식사를 할 뿐 아니라 표정도 어둡고 말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표 14. 아침밥지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아침식사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2	4	3	3	2	3	3	0	1	0	21
아침식사의 양은 적절하였습니까?	2	8	2	2	5	0	2	0	0	0	21
아침식사는 맛있었습니까?	1	7	6	3	2	0	1	0	1	0	21
아침식사의 메뉴(식단)에 만족하십니까?	2	4	3	5	4	1	1	0	1	0	21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본인의 식생활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8	4	1	2	0	4	0	0	0	20
주위에 아침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침지원 신청하기를 권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0	4	2	2	3	2	4	0	1	1	19

또한,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고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도 성별 차이가 명확했는데, 이 역시 여학생들이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학생들 중에는 아침식사를 하고나서 자신에게 좋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한명도 없었고 대체로 무엇인가 ‘좋아졌다’고 생각한 반면, 남학생들은 ‘좋아진 것이 없’거나 ‘그냥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 이었다.

무엇인가 좋아질 것이라고(사전조사) 또는 좋아졌다고(사후조사)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사전조사에서는 집중력, 기분, 체중조절, 건강 등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을 한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대부분 기분과 건강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표 15. 아침식사 후 좋아진 점

문항	[사전] 그렇다(매우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가? [사후] 그렇다(매우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가? (※복수응답, 무응답 가능)	사전평가 응답자		사후평가 응답자	
		(명)	%	(명)	%
		집중력	6	25.0	0
기분	4	16.7	7	43.8	
체중조절	3	12.5	0	0	
건강	9	37.5	7	43.8	
기타(학교에서 꼬르륵 소리가 안나 좋다, 모르겠음)	2	8.3	2	12.5	
계	24	100	16	100	

아침식사 후 좋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묻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변한 게 없어서’ ‘맛이 없어서’ ‘공부방(센터)에서 먹기 전에도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집에서 먹는 게 더 좋다’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냐 라는 질문에 사전 조사에서는 공부방(센터) 친구와 함께 먹고 싶다고 대답했던 아동이 12명,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고 대답한 아동이 11명이었던 것에 비해

사후조사에서는 그 수가 줄었다. 사후조사에서는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아동은 7명, 공부방(센터) 친구들과 같이 먹고 싶다는 아동이 7명, 공부방(센터)에서 같이 먹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며 혼자 먹고 싶다는 아동이 1명, 아파나 동생 등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고 이야기한 아동이 3명이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며 응답하지 않았다. 사전조사에서 함께 먹고 싶은 사람에 '없다'거나 '상관없다'고 대답했던 아동은 사후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없다'고 대답했는데, 사전·사후조사에서 다른 응답을 한 경우를 보면, 사전조사에서 '가족'을 이야기한 아동 중 사후조사에서는 '없다'고 대답한 경우와 사전조사에서 '공부방(센터) 친구'를 이야기했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있었다.

학교생활측면에서 아침지원 시작 후의 변화를 물어보자 대체로 지각이 줄었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아동 스스로 학교생활에서의 변화를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아 보였다. 한편, 학교생활측면에서 사전조사 때 보다 사후조사 때 오히려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후조사 때 연령이 한 살 더 늘어나면서 사춘기 영향으로 말수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단편적인 대답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침식사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며, 표정 역시 매우 밝아졌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한편, 아침밥지원을 받는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왜 아침밥지원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스러움을 표현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계속 아침밥을 먹으러 오고, 사전조사 때 공부방(센터)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다고 했던 아이들이 사후조사 때는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학교생활은 아침밥 먹기 전보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대답했을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조금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관찰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아침밥지원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단체(기관)의 실무자와 급식교사는 아침밥 지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햇살가득과량새 급식교사는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은 오후에도 센터를 빠지지 않는다'·'아침밥을 먹은 후부터 인사를 잘 한다'·'아침밥을 먹은 후부터 아이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새벽 4~5시에 나와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아침밥을 먹인 후부터 아이들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태도변화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한 아이들의 변화가 원동력이 되어 급식교사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식사 후 양치 등의 생활지도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단 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단체 실무자들은 아이들이 밝아지고, 말을 안했던 아이들이 한마디씩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과식을 하던 아이들의 식사량이 조절되었고, 짜증을 덜 낸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불 살이 오른 모습을

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아침밥지원 사전·사후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천안여중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 대신 천안여중 교육복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아침밥지원이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듯 보였다.

천안여중 교육복지사:

“반응이 되게 좋아요 다른 애들도 먹고 싶어 하고.. 저희는 교육복지 아이들이 150명, 좀 많아요 (아침지원원은 현재 8명 지원받음)더 먹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아침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못 먹죠

대부분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거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에요.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 자기존중감이 저하되어있는 학생들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학교프로그램도 적극 참여하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해서, 주변 친구들도 함께 먹고 싶어 한다고.. 무엇보다 최근에 (아침밥 지원을 받는)참여 학생들을 만나면 자신감 있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천안여중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 급식교사가 전화를 해서 챙기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에도 늦지 않고 아침밥을 먹으러 오는 경향을 보였고, 종종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친구를 대신 보내거나 데리고 오거나 해서 급식교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보호자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했다.

해누리지역아동센터 교사:

“보호자님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으시고요 대체로 보면 원래 아침밥을 보호자님이 챙겨주셨던 가정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요청하셔서 조식으로 연결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조식 먹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아버님이 아침밥을 챙겨주려고 노력하던 가정의 아버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가정의 아이들은 꾸준히 잘 가서 먹고 오고 그리고 아침밥을 원래 안 챙겨먹고 오던 애들이 집이 가까워서 조식 신청을 했는데, 개네들은 잘 안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잘 안가고 이런 점들이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행동적인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전제로 다 먹으면 변화가 느껴 질 텐데, 우리 애들은 다섯 명만 먹으니까”

해누리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경우, 청소년이다 보니 원래 아침밥을 먹지 않던 아이들은 아침밥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다. 천안여중은 아침밥을 먹지 않았던 아이들도 학교 가는 길에 들르거나 학교에 갔다가 배가 고프니 다시 나오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사전·사후조사에서 초등학교생들이 남녀 간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해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한 청소년은 모두 남학생이었고, 천안여중에서 신청한 청소년은 모두 여학생이어서, 남녀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천안여중이 아침밥지원 제공처인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일수도 있다.

아침밥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집에서 아침밥지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물어보자, 대체로 아무 말도 안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보호자의 반응을 적극적인 긍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간간히 센터 교사에게 고맙다고 전하는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침밥지원을 신청하는 보호자들은 아침밥지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4.3.2. 2016년 아침밥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2016년 5월 현재,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아침밥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총 25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9명,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16명이다. 시 지원 대상인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보다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대상 아동청소년 수가 더 많다.

천안시에서 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청소년은 아침밥지원 제공처인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이 5명, 해누리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이 4명이다. 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소속 외 아동은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에서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한 천안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이 14명,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다 퇴소했지만 아침밥지원은 받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2명이다.

표 16.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청소년(햇살가득과랑새, 해누리)

구분	양부모		편모		편부		조모			조부		친척	기타	총계	성별	
	소 속 별	국기초	-	-	-	-	-	2	-	-	-	-	-	-	2	남자
한부모		-	-	-	1	-	-	-	-	-	-	-	-	1	4	
저소득		2	-	1	-	-	-	-	-	-	-	-	-	3	여자	
기타		2	-	-	1	-	-	-	-	-	-	-	-	3	5	
계	4	-	1	-	2	-	2	-	-	-	-	-	9			
학 년 별	학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학교 밖	대기	계
	계	-	-	1	-	2	2	-	1	-	2	-	1	-	-	9

표 17. 지역아동센터 소속 외 아동청소년(천안여중, 기타)

구분	양부모		편모		편부		조모			조부		친척	다자녀	기타	총계	성별
	소속 별	국기초	-	1	3	1	-	-	-	-	-	-	-	1	-	6
한부모		-	-	-	-	-	-	-	-	-	-	-	-	-	-	1
저소득		3	-	-	1	-	-	-	-	-	-	-	2	1	7	여자
기타		-	-	1	1	-	-	-	-	-	-	-	-	1	3	15
계		3	-	2	5	1	-	-	-	-	-	-	3	2	16	
학년 별	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학교밖		대기		계				
	계	1	9	5	-	1	-	-		-		16				
	중/고 등	15			1			-		-		16				

시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청소년 16명의 식비지원은 (재)풀뿌리희망재단과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 내 모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재)풀뿌리희망재단의 아침지원 예산은 아동건강네트워크가 2014년 진행한 ‘아침든든112’ 캠페인으로 모인 모금액과 재단의 자체 재원을 충당해 마련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아침밥지원을 받은 아이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의 2016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한 아동은 아침밥지원을 실시하기 전, 센터 저녁식사 시간에 최대 다섯 번까지도 추가로 밥을 더 먹어 급식교사와 센터교사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센터 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다. 그런데 아침밥지원 실시 후, 센터에서 아침을 먹었고, 센터 저녁식사 시간에 평균량의 식사만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2년 사이 키도 14.6cm가 자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닦지 않고 등교하던 아이가 센터에서 아침

밥을 먹은 후 이를 닦고 등교하는 좋은 습관도 길러졌다. 심지어 이제는 저학년 동생들까지 챙겨서 등교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의 여유도 생긴 것처럼 보였다.

2015년부터 아침밥지원을 받고 있는 천안여자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은 아침밥지원을 받기 전에는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를 했었고, 늘 속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아침밥지원을 받고부터는 속이 편안해지고 화도 덜 내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밥지원을 계속 받고 싶다고 했다.

2015년부터 아침밥지원을 받기 시작한 해누리지역아동센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센터 내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이었다. 그런데 아침밥지원을 받으면서 매일 아침 급식교사의 안부인사와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급식교사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1년간 아침밥지원을 받은 후인 지금은 급식교사에게는 더 없이 따뜻한 친구로 변화했고, 센터의 어린동생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대체로 지속적으로 아침밥지원을 받은 초등학생의 경우, 눈에 띄게 키가 많이 자랐고, 저녁에 과식하는 나쁜 식습관을 고쳤으며, 양치하는 습관이 길러졌다. 또한 늦잠을 덜 자게 되었다. 초등학생과 중고생 모두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아침밥지원을 받은 아이들은 아침밥지원을 받기 전보다 더 많이 웃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변화를 보였다.

3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늦잠 자느라 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화해 깨우기도 하며, 세수를 안 하고 온 아이들을 단장시켜 학교에 보내는 일까지 한 급식교사는 그간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친구들이 함께 한 공간 안에서 아침밥을 먹으며 오빠, 형이 없는 친구들은 고등학생 오빠, 중학생 언니들을 보고, 동생이 없는 언니, 오빠들은 초등학생 동생들을 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수다도 떨고 공기놀이를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아침밥지원활동은 아침밥만 먹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년간 아침밥지원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도 아침밥지원이 단순히 밥을 먹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침밥지원은 단순히 아침밥을 만들어 차려주는 것만이 아닌, 아동의 전반적 상태를 점검하고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물으며,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는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아침

시간에 아이들의 얼굴표정을 읽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세수는 했는지, 식사 후 양치질은 했는지, 머리는 빗은 지 등 생활지도 역시 함께 했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아픈데도 누구의 관심도 못 받았던 예전의 '그 때'가 아니라 아침밥을 먹으러 가면, '어디 아프니?'라고 물어봐주고,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그 공간인 '아침밥 먹는 지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을 찾아가다.

4.4. 아침밥지원사업을 통한 연대 과정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평가는 아동건강네트워크 정기회의, 책읽기 모임, 그리고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평가 시, '아침밥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네트워크에서 아침밥지원사업만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초기 사업이자 가장 많은 역량이 투입된 중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 아침밥지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침밥지원사업'이 연대의 기반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정기회의에서 아침밥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공식적으로는 실무추진팀, 건강교육팀, 모금팀으로 나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눈 팀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활동 평가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표 18. 아침밥지원사업에서의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 실제 역할 분담

참여방식		참여기관
간접 참여	중심단체	(사) 미래를 여는 아이들
	모금/배분	(재) 풀뿌리희망재단
	중재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기록/조사/평가 (외부자)	(사) 시민건강연구소
	*의견개진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깨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신안초등학교 교육복지, 천안시공립지역아동센터
	*활동지지	
*아이디어공유	홍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직접 참여	제공처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
	지원처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 해누리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 천안여중

간사단체인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아침밥지원사업의 실무추진을 맡아 하면서 학교 관계자, 도시락 업체 등을 만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연대체인 네트워크가 와해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전개해갔다. 그리고 풀뿌리희망재단에서는 모금/배분을 책임지고 진행했다. 모금 캠페인을 네트워크 참여단체가 다 같이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금지원팀을 중심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대체로 모금 부분은 풀뿌리희망재단에 의지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는 2013년 한 해 동안, 낯선 ‘어린이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지루한 회의방식을 택했다. 어린이 건강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서, 어떤 사업을 첫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 사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 때 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왔다. 서로의 생각이 갈라지는 지점들이 생겼고, 그런 이견을 인정해주는 지점에 중재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재자의 역할을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전경자 교수가 했다. 그녀가 회의진행과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은 정기회의에 나오는 것부터가 직접참여라 할 수 있다. ‘어린이 건강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나누는 것의 시작이 정기회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실행사업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판단했기 때문에 실행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 좋은 일이고 좋은 뜻

인 것은 알겠는데,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굳이 회의에 가야할까 싶었던 것이다.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회의만 쫓아다니는 것 아닐까라는 자기 성찰적 반성도 있었다.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센터에서 아침밥 지원을 하지 않을 건데 아동건강네트워크에 참여해야하는가라는 고민을 했고, 깨비지역아동센터 교사 역시 자신이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네트워크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갈등했다. 다행히 이들은 아동건강캠프를 함께 하면서 네트워크에 소속감도 느끼고, 너무 받아만 가서 미안하다는 부채감이 생기면서 네트워크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하게 되었다.

대체로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단체들은 ‘어린이 건강권’이라는 큰 주제에서 세부 실행사업인 아침밥지원사업으로 논의가 좁혀지면서 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것이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 또는 담당자가 퇴사한 경우 탈퇴하게 됐다. 이는 ‘관계’가 유연하고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에도 기반하고 있었다. 한편, ‘관계’를 친밀하고 유연하게 다지고 서로를 지지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데에는 아침밥지원사업, 아동건강캠프와 같은 실행사업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와 ‘책읽기 모임’과 같은 친밀한 소모임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

4.5. 토론회

아동건강네트워크는 2013년 한 해 동안의 논의 끝에 2014년 4월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침밥지원사업을 시행했고, 2014년 11월 11일,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과장,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 식품영양학과 교수,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의 토론자와 70여명의 청중이 참여해 그간의 아침밥지원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성과로 천안시에서는 2015년부터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한해 1인 4500원의 아침밥 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가 모금한 모금액이 고갈되어 가는 즈음이었기에 네트워크 입장에서 쾌재를 부를만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대안마련의 경험을 쌓는 긍정적 기회이기도 했다.

2014년 토론회의 성과로 2015년부터 천안시에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한해, 1인 4500원의 조식비 지원을 시작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아침밥지원 활동은 넓게 확산되지 못했다. 우선, 천안시에서 1인 4500원을 지원받는다 해도 인건비는 지원금의 최대20%밖에 사용하지 못해 급식교사 인건비의 부족분은 센터에서 마련해야 하고, 수도·전기·난방비와 같은 공과금

과 위생장갑·세제·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각종 잡지출 역시 센터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비용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아침밥지원을 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기존에 아침밥을 먹지 않던 습관을 바꿔야 하고, 아침 시간에 잠을 더 자고 싶어 하며, 학교·집·지역 아동센터 간의 거리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들러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센터에서 아침밥을 먹고자 하는 아동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2016년 7월 기준, 천안시 저소득 급식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2,417명이다. 최소한 2,417명의 아동청소년의 상황은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아침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침시간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아침밥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아동건강네트워크 아침밥 지원 아동 25명과 자체적으로 아침밥 지원을 하고 있는 부성중학교 청소년 45명을 포함해 총 70명, 즉 천안시에 아침밥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단지 2.9%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아침밥 지원에 대한 공감과 아침밥지원활동 확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2016년 7월 14일, ‘아침밥지원활동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안시 부성중학교 교감, 서울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정책보좌관, 천안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주무관 등이 사례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투데이, 중부매일, 대전일보 등 지역신문에 보도되었고, 이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총회에서 ‘천안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침밥지원활동’이 안전에 올라 전체 54개 중 우선순위 결정에서 5위에 올랐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천안 만들기 토론회 차별받는 아이들의 아침밥 먹을 권리와 지역사회의 역할

- 일 시 : 2014. 11. 11(화), 15:00~16:30
- 장 소 : 천안축구센터 1층 다목적홀
- 주 관 : 아동건강네트워크(사무국:(사)미래를여는아이들)

세부 일정

· 사회 : 박찬병_충청남도천안의료원 원장

15:00-15:30 주제 발제

주제발제 1 아이들의 아침밥 먹을 권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전경자_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주제발제 2 아이들을 위한 아침급식 지원 활동경험과 방안 모색

김소현_(사)미래를여는아이들 사무국장

15:30-16:10 지정 토론

지정토론 1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침급식의 영양학적 의미

심재은_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지정토론 2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침급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

김경환_서로사랑지역아동센터 대표

지정토론 3 아이들의 아침밥 먹을 권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박미숙_천안시 여성가족과 과장

지정토론 4 아이들의 아침밥 먹을 권리를 위한 학교의 역할

이영주_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교사

16:10-16:30 자유 토론



천안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침밥 지원활동 확산을 위한 토론회

천안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구성된 아동건강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아침밥지원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3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비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이유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안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_ 2016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 장소 _ 워드림센터 (두정동 메가박스영화관 1층)
- 주최 _ 아동건강네트워크(사무국 : (사)미래를여는아이들)
- 대상 _ 기관단체 · 학교 · 유관기관 · 천안시민 등 관심 있는 모든 분

사회 서상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주제발제

- 천안지역 아이들을 위한 아침밥지원활동의 현재 / 김영미 사무국장((사)미래를여는아이들)

사례발표

- 천안부성중학교 아침밥지원활동을 통한 학교의 역할 / 윤대구 교감(천안부성중학교)

지정토론

- '사랑 애 울밥'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침밥지원활동 / 이미영 교육복지조정자(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 아침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 전경자 교수(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 학교를 통한 아침밥지원의 필요성 및 대안모색 / 이영주 교육감정책보좌관(충청남도교육청)
- 아침밥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 박남주 의원(천안시의회)

자유토론 및 정리

문의 | (사)미래를여는아이들 김우림간사 (041-572-0560~1)

4.6. 성과와 고민

2014년 11월 토론회 후, 아동건강네트워크 정기회의, 책읽기 모임, 워크숍 등에서 토론회를 포함한 아침밥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성과에 다들 기뻐했지만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질(質)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다. 몇 번의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양(量)적 확대보다 질(質)의 확보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급식교사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적절하게 보상해줄 것인가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수도세, 전기세, 겨울 난방비와 같은 운영비 부분이 미해결인 상황에서, '시'에서 아침밥지원을 시작했다고 해도 안정적인 아침밥 지원을 만들어가는 데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간 급식교사 인건비는 하루 2시간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아침밥 준비 시간은 식재료 구입 시간 등을 포함해 3~4시간이므로 센터 급식교사의 헌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속성을 지니기도 힘들다. 또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 아침밥지원사업이 어린이에 대한 '바람직한 돌봄'의 한 형태로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지며, 아침밥의 질(質)도 보장하기 힘들어진다. 질(質)적인 부분 중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우려한 사항이 또 하나 있었는데, 어린이에게 아침밥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시'가 지원하니까 하나의 바우처 프로그램처럼 인식하여 일단 하고 보자는 센터의 경우, 식단을 영양가 있게 잘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아침밥을 주는 환경을 정서적·신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월부터 아침밥 지원을 하겠다고 천안시에 신청한 한 센터의 식단 사진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 중 일부는 분통을 터트렸다.

두 번째, 돌봄 측면에 대한 고민이다. 학기 중에는 센터에서 아침밥과 저녁밥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점심밥(학교급식)을 지원해서 괜찮았는데, 방학 중에는 센터에서 아침밥과 점심밥을 지원하게 되면서, 저녁밥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센터 아이들은 저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센터 교사 입장에서는 아침밥이 우선인가 저녁밥이 우선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센터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거둘 수 없었다.

D 센터 교사:

“센터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센터를 다니다가, 탈락이라기보다는, 센터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런 부분도(센터에 다니도록)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지지도 못 해주고 아이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아이를,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소가 됐는데(중략)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좀 마음이 좀 되게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그 형이랑 개가 가끔 저녁에 배가고파서 마트에서 시식코너를 돈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좀 그런 아이들이 비단 그냥 우리 센터에선 한두 명이지만 솔직히 센터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데 꼭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솔직히, (센터 아이들을) 불러 먹이기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이러한 염려 때문에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는 센터 밖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동네’ 차원에서의 아침밥지원사업을 함께 논의했다. 현재 제공처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동네에 개방하는 방식 역시 고민해 보았으나 운영비 등의 문제가 있어 진행하지 못했다.

네 번째, 아이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고민이다. 아침식사를 스스로 챙겨먹을 수 있는 나이의 아동(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고생)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침밥지원사업 초기에 정한 원칙이었다. 이를 위해 아동건강캠프에서는 주먹밥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중·고생은 스스로 챙겨먹도록 간편식 만드는 것을 알려주되, 간편식 자체를 지원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식습관이 굳어져 안주면 안 먹을 아이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 계속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아동건강네트워크 정기회의에서 아침밥지원사업 논의 때 마다 간간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였다.

2015년 초, 이러한 고민들을 떠안은 채, 아동건강네트워크는 아침밥지원사업을 지속했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 한명 한명의 역량이 향상되고 관계에서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라 평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고민들은 향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한 기대감과 희망을 동력으로 2016년까지 아침밥지원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초의 고민과 어려움은 2016년 말에 될 때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여전히 위 네 가지 고민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고,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과 아침밥 지원의 양적 확산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 고민과 어려움은 더 깊어졌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동건강네트워크보다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사회조사사업: 아동건강행태조사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역사회 취약 계층 아동이 처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조사사업을 진행했다. 본 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아동건강네트워크 자체 조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동건강네트워크 간사단체인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지역아동·청소년지지방구축네트워크의 ‘방임아동 Zero 프로젝트’의 2012년 천안지역 아동방임 실태조사에 이어 진행된 조사였다. 방임아동Zero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 및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에 아동건강네트워크가 궁금해 하는 ‘식이행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해 아동건강행태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추가로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폭 넓은 지역사회 활동을 펼쳐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19. 아동건강행태조사 개요

<p><아동건강네트워크 아동건강행태조사 개요></p> <p>설문조사(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3.07.22.(월)~07.24.(수)(09:00~13:00) 총 3일간 • 대상 & 방식: 천안00초 전교생(병설유치원 원생 포함) 429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생~초3년생: 1:1 개별 면접 조사 - 초4년생~초6년생: 직접 설문 응답 <p>면담(가족유형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3.07.25.(목) (09:30 ~ 11:40) • 대상 & 방식: 천안0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아동면담: 조손가정 1명, 탈북가정 1명, 한부모가정 1명, - 집단면담: 일반가정 4명
--

5.1. 설문조사 결과

- 천안 00초등학교의 높은 아침, 저녁 결식률

2011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9.3%, 저녁식사 결식률은 3.7%인데 반해, 본 조사 결과, 아침식사 결식률 9.7%, 저녁식사 결식률은 4.1%로 전국 통계보다 높다. 특히 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은 18.8%로 높은 비율의 아동이 불안정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 교육복지대상자의 높은 아침식사 결식률

일반 아동 중 4일 이상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아동은 8.6%이지만 교육복지대상자 아동 중 4일 이상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아동은 40.4%로 일반 아동의 약 5배로 큰 격차를 보이며 높은 결식률을 보였다.

- 매일 과일과 채소, 우유를 섭취하지 않는 아이들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과일 1일 섭취량은 하루 2번, 채소는 1일 5회, 우유 및 유제품은 1일 2회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하루 1회도 섭취하지 않는 아동은 과일은 전체 아동의 70.5%, 채소는 전체 아동의 55.4%, 우유는 전체 아동의 58.6%로 드러났다.

5.1.1. 조사대상

조사대상 아동은 남학생이 225명(52.6%), 여학생이 203명(47.4%)이었고, 조사 아동의 대부분인 84.8%(362명)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한부모 가정은 전체 아동의 11.7%(50명)로, 어머니와 살고 있는 아동이 8.4%(36명), 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동이 3.3%(14명)이었다.

표 20. 아동건강행태조사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자	225	52.6
	여 자	203	47.4
학년	유치원	44	10.3
	1학년	58	13.6
	2학년	67	15.7
	3학년	71	16.6
	4학년	63	14.7
	5학년	63	14.7
	6학년	62	14.5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양부모	362	84.8
	한부모(부)	14	3.3
	한부모(모)	36	8.4
	조부모	4	0.9
	친척	2	0.5
	형제	6	.7
	기타	3	1.4

5.1.2. 아침식사 섭취 형태

아침식사를 4일 이상 결식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18.8%(80명)이었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19.1%인 71명이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매일 아침을 먹는다고 응답한 아동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아동의 46.7%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아동의 대부분이 ‘혼자’아침식사를 해야 해서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었다.

표 21. 아동건강행태조사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 섭취 일수

구분	빈도(명)	비율(%)
0일	41	9.7
1일	12	2.8
2일	12	2.8
3일	15	3.5
4일	21	5.0
5일	27	6.4
6일	39	9.2
7일	257	60.6
합계	424	100.0

표 22. 아동건강행태조사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챙겨주는 사람 없음	71	19.1
시간 없음	12	3.2
좋아하는 음식 없음	7	1.9
돈이나 음식 없음	2	0.5
먹기 싫음	32	8.6
매일 먹음	220	59.1
기타	28	7.5
합계	372	100.0

표 23. 아동건강행태조사 아침식사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203	48.9
만족	131	31.6
보통	62	14.9
불만족	13	3.1
매우 불만족	6	1.4
합계	415	100.0

점심식사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말(공휴일)점심식사로 대체해 질문했는데, 그 결과, 아동의 아침·주말(공휴일)점심·저녁 식사 결식 비율은 각 9.7%(41명), 6.7%(28명), 4.1%(17명)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 특히 많았다.

표 24. 아동건강행태조사 저녁식사 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0일	17	4.1
1일	5	1.2
2일	5	1.2
3일	14	3.4
4일	3	0.7
5일	15	3.6
6일	18	4.3
7일	337	81.4
합계	414	100.0

표 25. 아동건강행태조사 주말(공휴일) 점심식사 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먹지 않음	28	6.7
1일	19	4.5
2일	41	9.8
매일 먹음	325	77.4
기타	7	1.7
합계	420	100.0

5.1.3. 식생활 행태

과일을 일주일동안 얼마나 먹는가에 관한 질문에 “매일 1회 이상”과일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29.4%(117명)로 나머지 70.6%(304명)의 아동은 과일을 섭취량이 부족했다.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과일을 '매일 1회 이상' 먹는 어린이는 응답 아동의

40%였는데, 본 조사 대상 아동은 이보다도 더 적었다.

채소를 일주일동안 얼마나 먹는지에 관한 질문에 “매일 1회 이상” 채소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10.4%(43명), “매일 2회 이상”섭취한다고 답한 아동은 33.2%(142명)였다.

우유를 일주일 간 얼마나 마시는지에 관한 질문에 “먹지 않는다” 고 대답한 아동은 전체 응답 아동의 8.9%(38명), 5일 이상 우유를 먹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동은 총 19.4%(83명)였다.

표 26. 아동건강행태조사 식생활. 식품별 1주일간 섭취횟수

문항	먹지 않음	1~2번	3~4번	5~6번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사례 수
1 과일 섭취	40	102	107	48	53	33	38	421
	9.5	24.2	25.4	11.4	12.6	7.8	9.0	
2 탄산음료 섭취	146	193	55	17	7	4	0	422
	34.6	45.7	13.0	4.0	1.7	0.9	0	
3 패스트푸드 섭취	136	236	33	11	4	0	0	420
	32.4	56.2	7.9	2.6	1.0	0.0	0.0	
4 라면(컵라면) 섭취	112	216	60	17	13	0	2	420
	26.7	51.4	14.3	4.0	3.1	0.0	0.5	
5 과자 섭취	89	177	93	29	18	6	3	415
	21.4	42.7	22.4	7.0	4.3	1.4	0.7	
6 채소반찬 섭취	28	54	88	59	43	39	103	414
	6.8	13.0	21.3	14.3	10.4	9.4	24.9	
7 우유(색갈우유 포함)섭취	38	45	75	89	98	27	49	421
	9.0	10.7	17.8	21.1	23.3	6.4	11.6	

5.1.4. 교육복지대상아동의 아침식사

일반아동과 비교해 교육복지대상 아동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무려 5배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이상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일반아동은 8.6%(336명 중 29명)인데 반해, 교육복지 대상 아동은 40.4%(94명 중 38명)나 되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환경조사, 2011 (50만명 이하 도시 초등학교 5학년 10000명 대상으로 진행)

5.2. 아동면담 결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아동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족구성원에 따른 유형별로 면담을 진행했다. 개별면담은 조손가정 아동 1명, 탈북가정 아동 1명, 한부모가정 아동 1명을 진행했다. 그리고 총 4명의 양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진행했다. 개별면담의 경우, 면담 시작 전, 아동의 담임교사와 사전면담을 통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아동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양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담의 경우 담임교사와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면담 참여 아동은 모두 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참여자3을 제외하면 모두 학습을 돕기 위한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참여자3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유는 원래 ‘학원식’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다 그만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표 27. 아동건강행태조사 면담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

면담	이름	가족사항	양육자 직종	학년	성별
개별 면담	참여자1	[조손가정:친가](이혼) 조부, 조모, 여동생1(7살)	조부: 관광버스기사 조모: 일함(직종 모름)	초1	남
	참여자2	[다문화한부모가정: 모 중국](이혼) 모와 살고 있음. 아버지 근처 살아서 자주 봄.	모: 수선 아버지: 일함(직종 모름)	초6	여
	참여자3	[탈북가정: 모탈북] 할머니, 누나 1(중1)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일하느라 월 1회 집에 옴. 할머니가 낱매를 돌봄.)	아버지: 장기출장 (직종 모름) 어머니: 외곽에서 가게 운 영	초5	남
집단 면담	참여자4	[양부모가정]		초6	남
	참여자5			초6	남
	참여자6			초6	여
	참여자7			초6	여

양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몹시 산만하여 원활한 면담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게다가 집단면담의 경우, 개인적인 이야기조차 나눌 수 없어 집단면담에 참여한 개별 아동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반면, 개별면담의

경우, 오히려 양부모 가정의 아이들보다 면담에 집중하였으며 차분하게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면담 중에 개인사도 많이 드러나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개별면담과 집단면담 모두 식이 행태를 포함한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웠고, 면담의 목적 중 하나였던 가정유형별 아동식이행태의 차이를 구분하여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조사를 진행한 00초등학교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의 수가 많은 편이라는 학교 특성상, 가정행태가 아동의 식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제적인 영향보다는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층면담이 아닌 한 번의 단편적인 면담을 통해 뚜렷하고 명확한 공통적인 특징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식이 행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이사항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이번 면담에 참여한 아동들 중 집단면담에 참여한 양부모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저녁 식사 시간이 늦었는데 이는 부모의 노동환경과 아동의 교육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의 늦은 저녁식사는 부모의 노동환경보다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이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 부모의 퇴근시간이 늦을 경우, 혼자서도 챙겨 먹을 수 있었지만, 학원 때문에 저녁식사를 늦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저녁식사 시간이 늦어졌다.

*참여자4: 학교 끝나면 학원가고, 집에 가면 좀 잔 다음에 저녁 먹고 씻고 자요 8시나 9시에
요*

참여자5: 밥늦게요

참여자6: 학교 끝나면 집에 갔다가, 7시 30분쯤 밥을 먹어요

참여자7: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참여자4: 그다음에 드라마 봤다가 그다음에 씻고 밥 먹어요

참여자7: 아이~(끼어든 참여자4에게 짜증) 7시 8시, 아니 8시 아니면 9시에 밥 먹어요

또한 면담 참여 아동들은 대부분 혼자 저녁식사를 할 때가 많았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면담 결과와 유사했다.

참여자4: 엄마 빼고

참여자6: 항상 달라요

참여자6: 혼자.

참여자4: 동생 없고, 누나는 기숙사.

참여자5: 혼자 먹어요 동생 없고, 누나 없어요 형 있고 (아이들 다른 친구들 이야기할 때 계속 작은 소리로 간섭하며 떠들)(혼자)라면 끓여먹고

참여자4: 저 혼자요 그냥 제가 알아서 먹어요 그냥 집에 남아 있는 얼마 안남은 김치나 그런 거랑 막 섞어서 먹어요

참여자7: 개밥 같아.

참여자4: 맛있어요 김치, 쌈장, 고추장, 계란후라이 뭐 그런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면담 결과와 유사하게 이번 면담 참여 아동들에게도 학교급식은 영양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집단면담에서 아이들은 집에서 먹는 것 보다 학교급식이 반찬이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개별면담에서는 아침과 저녁을 먹지 않고 학교에서 점심만 먹는다고 이야기한 아동도 있었다.

(아이들 어수선하고, 자기들끼리 쳐다보며 웃고,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며 매우 번잡스러움)

참여자7: 아침에는 콘프라이크 안먹을 때도 있고, 점심에는 학교에서 그냥 밥 먹고, 저녁에는 가끔 치킨, 피자 그런 거 먹거나, 아니면은 밥.

참여자6: 아침은 먹어요 집에서

참여자4: 라면 먹잖아.

참여자6: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있는대로 (학교급식이) 집보다는 반찬이 많아요

참여자5: (학교급식은) 끝내줘요 맛있어요 반찬보다 밥이 맛있어요

개별면담을 진행했던 참여자3은 학교급식인 점심식사만 일상적으로 먹고 있었고,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

참여자3: (아침은 안 먹고) 점심하고..., 저녁은 어쩔 때 먹어요

연구자: 아침은 가족 중에 아무도 아침밥 안먹어?

참여자3: 할머니만 (혼자) 먹어요 (저는) 귀찮아서요

연구자: 그렇구나, 그럼 저녁에는?

참여자3: 어쩔 때 많이 배고플 때 먹어요 저 혼자요 할머니가 챙겨주세요

연구자: 할머니는 저녁 안 드셔?

참여자3: 네. 늦게 드세요

면담 결과,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이들은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하지 않거나 영양적으로 불충분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가정에서의 식사 시간은 ‘혼자’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저녁식사 시간이 늦었다. 이번 집단면담 참여 아동들은 교육복지대상이 아니면서 양부모가정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식이행태를 포함한 건강행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6. 아동건강네트워크 캠프

6.1. 2014년 아동건강캠프

아동건강네트워크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 동의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지역아동센터 교사(생활복지사), 학교 교육복지사, 연구자 등이 모여 2013년에 만들어졌다. 목적과 취지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지만 활동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 활동의 범주는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1년간 네트워크 참여자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확인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아침밥지원사업’으로 활동의 범주를 좁혀 진행했다. 2014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정기회의(2014.01.23. 11차 아동건강네트워크 정기회의)에서 아동건강네트워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던 중, (사)미래를여는아이들 사무국장이 (사)사랑의친구들의 연합캠프 지원공모사업에 ‘건강캠프’라는 주제로 지원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사)사랑의친구들에서는 5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 캠프를 여는 팀 중 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우수한 팀을 선정해 캠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 마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5개였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깨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는 이에 동의했고, 네트워크에서는 함께 아동건강캠프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동건강캠프는 아침밥지원사업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행사업의 기회가 되기도 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캠프였다.

6.1.1. 2014년 아동건강캠프 개괄

- 캠프목적: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여 건강행태(식이·운동·놀이·위생 습관 등)이 좋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 캠프를 통해 직접 참여하며 즐겁고 쉽게 몸으로 익힌 건강지식을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 2박 3일 동안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한다.
- 캠프 명: 아동기 건강한 전 생애 기틀 다지기 <아! 건전지 캠프>

- 캠프장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캠프일자: 2014.08.11(월) ~ 13(수) (2박 3일)
- 참여인원: 아동 97명, 교사 18명, 봉사자 20명 (총 135명)
- 참여기관: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깨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총 5개기관)
- 총 지출액: 10,302,200원
(자부담: 4,802,200원, (사)사랑의 친구들 지원금: 5,500,000원)

6.1.2. 2014년 아동건강캠프 준비과정

- T/F 구성: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깨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신안초등학교 교육복지사,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사)시민건강연구소,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아이쿱천안생협
 - T/F 진행: T/F 팀은 총 네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T/F 팀 내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안을 작성했으며, 네 차례 이루어진 T/F 회의에서 각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보완하며 준비했다.
전체적인 틀을 정함에 있어 건강캠프의 기본적인 방향을
 - 아이들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 신나게 놀고 좋은 먹을거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 경쟁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정했다.
 그래서 기본 틀은 10명 이내 아동을 하나의 모둠으로 소규모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하고, 참여와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을 위해 주제별·프로그램별 부스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 놀이를 놀이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순위 매기기, 상품, 시상식 등의 내용은 최대한 빼기로 했고, 건강 먹을거리 경험을 위해 간식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가 아닌 친환경 자연식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표 28. 2014 아동건강캠프 T/F 회의 진행일정과 주요 논의 사항

회의 차수	일시	장소	참여 인원	논의내용
1차	2014.05.21(수) 10:00 ~ 12:00	신안초 교육복지실	13	- 아동건강캠프를 통해 기대하는 바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건강네트워크 세 차원) - 캠프의 기본 틀 정하기 (큰 틀(캠프 형식) + 세부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별 역할 분담 <프로그램> 영양: 깨비, 김영목(교육복지사), 생협 정신건강: 광덕푸른, 비전 신체활동(운동): 햇살가득파랑새, 천안 <캠프 지원>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사)시민건강연구소(구강교육 섭외(해전대학 치위생과)),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자원 봉사자 섭외)
2차	2014.06.10(화) 10:00 ~ 12:00	신안초 교육복지실	12	- 세부 프로그램 논의 - 프로그램 계획안 공유/논의/수정 - 분담금 논의
3차	2014.06.26(목) 10:00 ~ 12:00	신안초 교육복지실	13	- 프로그램 논의 및 확정(각 팀 활동/교육(안) 제출 자 료 참조) - 인력배정 <부스 활동 인력 배정> 영양: 동남구 보건소, 생협 정신건강: 비전(신미숙), 임재은((재)풀뿌리희망재단), 이상명(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운동: 햇살가득파랑새(2인), 천안(2인) - 레크레이션 논의(순해정 제출 자료 참조) - 오리엔테이션 계획
4차	2014.07.10(금) 10:00 ~ 12:00	깨비 지역아동센터	15	- 캠프 전체 & 세부 일정 최종 확인
인원 배정	2014.07.24(목) 14:00 ~ 16:00	원성동 파구스	7	- 참여자: 5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사)미래를여는아 이들 - 저학년/고학년 모듈별 인원 배정
최종 답사 &	2014.08.05(화) 16:00 ~ 18:00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10	- 참여자: (사)미래를여는아이들, (사)시민건강연구소, 5개 지역아동센터,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 캠프 장소 최종 답사(수련원 내부 동선 확인) & 최

회의				종 회의
봉사 자 교육	2014.08.07(목) 16:00 ~ 18:00	순천향대학 교 간호학과 1층 강의실	36	- 참여자: 대학생자원봉사자(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 교 간호학과) & 캠프 참여 실무자 - 캠프 일정 전체 체크, 활동 업무 분담, 자원봉사자 의 자세 교육

6.1.3. 2014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내용⁸⁾

표 29. 2014 아동건강캠프 추진내용

일자 (월/일)	추진계획	실시내용	자체평가
	개회식, 오리엔테이션	개회식, -아! 건전지 캠프 소개 -함께하는 사람들 소개 -안전교육, 우리의 약속 -오늘의 일과 -건강체조	*간단한 개회식, 캠프 시작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합캠프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기대감 형성 -익숙한 교사가 진행하여 아동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오 리엔테이션 진행
08.11 (월)	신나는 물놀이	어름 물놀이 (실내수영장)	*무더위를 날릴 시원하고 안전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영장 내 안전교사의 교육 후 입장, 1 시간 수영 후 10분간 따뜻한 물 샤워 -물놀이를 어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고 처음 만난 조 별 담당 선 생님, 친구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건강뽑내기, 건강미션안내	조 별 자유시간 친해지기 바래!	*우리는 영원한 친구! 함께 알아가기! -서로 함의하여 조별 활동 진행. 조 별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도란 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돈독해짐. 건강박람회를 함께 활동할 준비를 마침.
08.12 (화)	기상미션	일과 안내	*아침을 간단한 체조로 활기치게 시작! -오늘의 일정 안내를 통해 오늘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 상승 -건강 체조를 통해 아동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최적의 몸과 맑은 정 신 상태 유지
	영양교육 화학물질교육	건강박람회 (1차) 영양 교육	*식품첨가물 - 예쁜 음식에 현혹되지 않기 [참여실험]

8) (사)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작성한 내용을 수정·보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끓여 양모실로 색깔 채취 -좋아하는 파란색 음료에 실을 넣으면 색이 염색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눈에 띄는 예쁜 음식인 경우 좋지 못한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려먹을 수 있도록 교육. *식품 구성탐 - 음식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계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모형을 접시에 담게 한 후, 자신의 접시 속 담긴 음식을 확인하게 함. 고기만 좋아하고 과일과 채소는 기피하는 식사습관을 스스로 확인함.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식사습관 교육을 통해 식사습관 개선을 기대함. *아침식사 만들기(주먹밥, 샌드위치) - 스스로 건강한 식사습관을 익힐 수 있는 방법 배우기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아침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움. -스스로 아침식사를 챙겨 먹어 건강한 아침식사 습관 형성을 돕는 기를 마련.
08.12 (화)	건강한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걱정인형 만들기 - 내 마음 속 깊숙이 숨긴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 만들기 -내 걱정을 덜어갈 걱정인형을 직접 만들어보기. -부모나 선생님, 친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고민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겨 아동들이 특히 좋아했던 인기 프로그램 *내 친구 그리기 - 서로에게 칭찬하여 격려 받기 -두 팀으로 나뉘 한명이 전지에 누워 친구를 본떠 그리고 친구에 대한 장점 써보기 -서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 놀리기 쉬운 아이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따뜻함을 느낌. *내 얼굴 만들기 - 그동안 잘 몰랐던 나를 알아보기 -찰흙과 콩, 팥 등의 잡곡을 이용하여 손거울로 본 나의 얼굴을 표현 -한 시간 동안 유심히 내 얼굴을 보면서 나에게도 예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감 향상 *신문지 놀이 - 스트레스를 푸는 계기 마련 -신문지 잘게 찢어보기, 봉지에 찢은 신문지를 넣어 공을 만들어 농구를 진행 -활동을 통해 아동 개개인이 갖고 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표출.
	어른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기차기, 딱지치기 - 우리의 전통 체육 놀이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 교육 -제기차기 -딱지치기 -신문지공 미니게임 -풍선이어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전통놀이를 배우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마련. 실제로 캠프 후 센터에서 스스로 딱지를 접어 아동들끼리 활동함. *신문지공 미니게임, 풍선이어달리기 - 건강을 위한 신나는 신체 활동 -대체적으로 정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시간 마련. 또한 수련원을 코스별로 또는 활동으로 진행해 수련원의 좋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음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요로 즐기는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수련원에서 15년 이상 초등학생만을 전담하여 활동하셨던 선생님께서 진행. 아동 캠프라는 활동 취지에 맞춰 풍당풍당, 개구리 이야기 등의 게임이 진행되어 아동들이 쉽게 따라하고 즐겁게 참여. -조별로 진행되는 게임이 대다수여서 더욱 친해지는 계기 마련.
08.12 (화)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원과 염원을 담은 캠프파이어 -즐거움 음악에 맞춰 신나는 댄스 타임으로 스트레스 해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풍등 띄우기 조별로 진행. 위험 요인을 최소화 줄이고자 스텝과 조별 담당교사들이 준비. -아이들의 진심어린 소원이 담긴 풍등이 무사히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아동도 있었고 풍등을 보며 소원을 비는 아동도 있었음. -촛불의식으로 눈물을 쥐어짜는 듯한 활동인 기존 캠프의 틀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더욱 즐거운 활동이 되었음.
08.13 (수)	구강건강 인바디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박람회(4차) 구강건강 신체계측 -인바디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치아 만들기! 구강건강 활동 - 올바른 양치질에 대한 경각심 갖기 -현미경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내 입속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양치방법 테스트를 통해 나의 양치질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봄으로써 양치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 -아동들과 함께 보조교사로 참여한 센터 교사 입장에서도 향후 아동 양치지도 시 도움 될 것으로 기대. *나의 몸 알아보기! 인바디 검사 - 점수를 통해 내 몸 체크하기 -비만 아동들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 마련.

폐회식, 건강수료식	건강수료식	*무사히 건강교육을 수료한 아동들에게 박수! 건강수료식 -2박 3일 간 활동을 통해 아무 사고 없이 성실히 건강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앞으로 이 시간 잊지 말고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의 수료증을 전달. -한 조 씩 무대 위로 올라와 '모두' 평등하게 수료증을 받음.
---------------	-------	---

6.1.4. 2014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비용

표 30. 2014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비용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산 출 근 거	집행액(원)	구분	산 출 근 거	집행액(원)
사랑의친구들 지원금	5,500,000	숙박비	120명	2,376,000
		식대	135명 식대, 아동 간식	4,042,500
시민건강연구소	1,000,000	시설 대관료	시설이용료	1,980,000
(재)풀뿌리희망재단	200,000	프로그램비	프로그램 준비물	1,102,400
		기타 준비비	기타 준비물	309,800
아이쿱 천안생협	300,000	홍보비	현수막 2개, 팔찌, 스티커	240,000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강사료	200,000
센터분담금	3,302,200	이동비	차량 이동	50,000
		수수료	입금 수수료	1,500
계	10,302,200	계	계	10,302,200

6.1.5. 2014년 아동건강캠프 평가

6.1.5.1. 아동 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77명이었고, 아동건강캠프가 내년에도 열릴 경우,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응답자 77명 중 62명으로 81%였다.

아이들은 14개 부스 활동 중 가장 즐거웠던 부스 활동으로 '정신건강' 영역인 '걱정인형만들기'와 '신체건강' 영역인 '운동'을 꼽았다. '걱정인형만들기'와 '운동' 다음으로 즐거웠던 활동으로 많이 선정된 부스활동은 '주먹밥만들기'였다. 또한 '샌드위치 만들기'와 '신문지 놀이'도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웠던 활동으로 기억했다.

표 31. 2014 아동건강캠프 재참여의사

참여의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8	7	13	10	4	5
참여하고 싶다.	2	0	1	2	3	7
참여할 생각이 없다.	1	0	0	0	0	3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	0	0	1	0	0
잘 모르겠다.	0	1	1	1	1	0

표 32. 2014 캠프 활동 중 가장 즐거웠던 활동(다수 선정 가능)

No	부스 활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건강한 식습관 익히기	2	2	1	1	1	1
2	나트륨 바로 알기	2	0	2	1	1	0
3	설탕 이야기	1	0	4	2	0	1
4	식품첨가물 알아보기	1	2	2	2	1	2
5	아침식사 만들기 - 주먹밥	9	7	11	3	1	3
6	아침식사 만들기 - 샌드위치	1	2	2	8	7	8
7	걱정은 나에게 맡겨! 걱정인형 만들기	4	2	8	13	9	6
9	멋진 친구 그리기	5	1	2	3	1	0
10	내 얼굴 만들기	1	1	2	2	0	0
11	신문지 놀이	3	2	3	9	1	5
12	운동(제기차기/딱지치기/신문지공 미니게임/풍선 이어달리기)	4	7	5	10	8	8
13	건강한 치아 만들기	2	1	4	0	0	0
14	인바디검사	0	1	1	4	1	5

아이들은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주먹밥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운동하기, 식사 후 양치질하기, 내 키와 몸무게 알기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한편, 대체로 아이들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는 정도’만큼 ‘집에 돌아가 해보고 싶은 정도’의 점수를 주었는데, 이를 통해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이들이 건강행동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즐겁게 ‘몸’으로 익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3. 2014 캠프에서 한 활동 중 집에 돌아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도

부스 활동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요?						
		학년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①주먹밥 만들기	생각이 없다	0점	1	0	0	2	0	1
		3점	1	0	2	2	2	1
		5점	1	3	1	0	2	2
		7점	1	1	0	2	1	1
	꼭 해보고 싶다	10점	8	5	12	7	1	8
②샌드위치 만들기	생각이 없다	0점	6	3	4	3	0	1
		3점	1	2	1	0	1	1
		5점	0	0	4	1	1	1
		7점	0	1	0	1	0	0
	꼭 해보고 싶다	10점	4	3	6	9	4	9
③콜라 덜 마시기	생각이 없다	0점	4	3	2	4	2	4
		3점	0	3	3	1	2	3
		5점	0	1	3	2	1	2
		7점	8	0	1	0	2	2
	꼭 해보고 싶다	10점	6	2	6	7	1	2

④불량식품 안 사먹기	생각이 없다	0점	3	2	1	3	0	4
		3점	1	2	2	2	3	2
		5점	2	1	5	2	0	3
		7점	1	3	1	0	2	0
	꼭 해보고 싶다	10점	5	1	6	7	2	4
⑤짜증내지 않기	생각이 없다	0점	3	2	3	3	1	3
		3점	0	4	1	2	4	1
		5점	2	2	3	4	1	4
		7점	2	0	3	0	0	3
	꼭 해보고 싶다	10점	5	1	4	6	2	2
⑥친구와 싸우지 않기	생각이 없다	0점	1	1	1	4	1	2
		3점	1	4	1	2	4	2
		5점	1	1	3	3	2	2
		7점	0	1	2	0	0	2
	꼭 해보고 싶다	10점	9	2	8	6	1	4
⑦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운동하기	생각이 없다	0점	0	0	2	0	2	0
		3점	0	3	0	1	1	1
		5점	1	1	3	4	1	3
		7점	3	4	1	1	1	2
	꼭 해보고 싶다	10점	8	1	9	9	3	7
⑧식사 후 양치질하기	생각이 없다	0점	1	0	1	3	0	0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3점	0	1	0	0	1	0
	5점	1	1	4	1	1	2
	7점	2	1	4	0	0	1
	10점	8	6	6	12	6	10
	합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3점	0	3	1	0	1	0
	5점	1	2	3	2	2	2
	7점	1	1	2	1	0	2
	10점	7	1	8	12	5	9
	합계						

6.1.5.2. 대학생 자원봉사자 평가

조(모듬) 교사는 지역 대학의 대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자원하여 맡아주었다. 순천향대학교와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조(모듬) 별 활동을 위한 필수 인력인 조(모듬) 교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해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 만큼 그들의 평가는 중요했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서술형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14명이었다.

캠프 진행상 좋았던 점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상세하고 명확한 스케줄표 제시, 계획성 등을 꼽았고,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프로그램 진행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 이 너무 많았다는 점,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부 체험하지 못했다는 점, 조(모듬) 교사에게 휴식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또한, 봉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 등)으로 힘든 측면도 있었지만 대체로 행복감, 감사함, 즐거움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해 더 신경 쓰고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표 34. 2014 아동건강캠프 자원봉사자 평가

	아동 바라보기	스스로 돌아보기	진행과정 돌아보기
봉사자 1	아동들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는 모습으로 힘들기도 했는데 끝내져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몇몇 따로 노는 아이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잠깐의 혼란으로 교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다.	예전 지역사회실습 때 친했던 아이들과 헤어져서 힘든 2박 3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따라와 줘서 너무 행복했다. 아동들이 굳은 것질거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에 안타깝기도 했다.	진행상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전부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이들도 나도 아쉬웠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있을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방향해서 힘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디기에는 너무 바쁘고 지루한 일정이지 않나 싶었다.
봉사자 2	매우 밝고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아이들은)ppt 교육마저도 흥미롭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날 일정에 수영장이 있어서 2박 3일이 피곤하게 느껴졌을 텐데, 오히려 조원, 조장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하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으로 힐링하면서 아이들에게 힘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건강캠프가 아이들의 건강 뿐 아니라 좋은 에너지와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 너무 다행이고 2박3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스케줄표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일정을 숙지하기 쉬웠다. 많은 준비를 하신 게 너무 느껴져서 감사하고 대단하시다고 느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은 기상시간 늦추기!!!
봉사자 3	다른 센터에서 각기 모여서 아이들이 서로를 너무 어색해하고 낯을 많이 가렸다. 서로 프로그램하면서 그래도 재밌어하고 친해지려 노력도 해서 보기 좋았다. 가끔씩 아이들이 놀다가 마음에 안들면 버럭 하고 험한 말을 입에 담아 당황스러웠지만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같이 재미있게 놀아 아이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 7명을 통솔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핸드폰 게임만 좋아하고 그것에만 관심 있다며 프로그램에 관심 없는 듯 했는데 막상 체험을 하니 너무나 즐겁게 하어서 그것을 보니 아이들에게 좋은 재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이런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쉬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밖에 있어 야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쉬는 시간과 장소 조절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든 체험을 하지 못해 아쉬워했다.
봉사자 4	예전에 실습 나갔던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이들이 다들 순진하고 착할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눈치도 빠르고 욕을 하는 아이도 있어서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다가도 박람회 열심히 참여하고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도 서로 빠르게 친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아이들이 가끔 보이는 이상행동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것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애정을 필요로 하는 행동 같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체력도 체력이지만 아이들을 대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감정적으로도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해를 하면서도 아이들의 과한 행동에 화가 나지만 이를 꼭 참고 대처하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건강'을 주제로 캠프를 한다는 것이 색다르고 내용도 주제와 잘 맞고 아이들이 생활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참 좋았다. 아쉬운 것은 부스 이동됨이 긴데, 미팅이 있을 곳이 없다보니 아이들이 오히려 쉬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봉사자 5	생각보다 캠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주고 집중해줘서 좋았다. 근데 조원 모두가 한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자꾸 눈에 보여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지 막막했다. 아이들이 특정 아이와 짝공을 하기 싫어할 때, 옆에 가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미리 교육을 조금 받으면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아이가 좋다고 마냥 다 들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받아줄 때와 거절 할 때, 혼내야 할 때를 잘 구분하고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조 아이들과의 자유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봉사자 6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다양한 체험 활동이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이 될 것 같다. 웃는 아이, 우는 아이, 무표정한 아이, 다양한 아이들을 캠프 중에 보았지만 공통적으로 건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 같다.	아이들 돌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것. 그로 인해 겪는 여러 센터 선생님들의 고충을 느꼈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는 프로그램도 분명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경험이 많으신 센터 선생님들과 함께하기에 자연스러운 프로그램 진행이 좋았던 것 같고, 이번 캠프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잘 대처가 된 것 같아 앞으로 개선될 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
봉사자 7	솔직히 정말 예쁘고 관심 가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다루기 힘들어 지치고 짜증을 내게 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모든 아이들이 정말 예뻐서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아동 한명 한명 특성이 강하고 고학년이라도 저학년만큼 관심을 많이 주어야 하는 친구도 있었다.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더 웃어주고 친절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웠다.	휴식시간이 길었던 점, 아이들이 가지고 놀만한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것이 센터별로 조금씩 달라 어떤 아이는 폰을 보며 어떤 아이는 그것을 보며 달라고 하는 것이 약간 곤란했다.
봉사자 8	만나기 전에는 뉴스나 인터넷에서 요즘은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이 있고, 아이들이 무서워지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내용을 접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정말 순수함 그 자체였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 그대로 내뽐고 기분 상하다가 금방 화해하는 모습이였다.	어머니 아버지의 위대함을 느꼈다. 나는 2박3일 고작 이것밖에 아이들과, 그것도 자는 시간은 제외하고 초등학생과 있었는데도 힘이 들었는데 부모님이나 센터 선생님들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프로그램 체험하는 계획이 잘 짜여 있어서 좋았고, 센터가 섞여있어 처음에는 어색해지는 기류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 같이 친해져서 보기 좋았다. (친구도 늘어나고) 쉬는 시간이 긴 것이 아이들의 피곤함이나 지치는 것이 커지는 것 같다.
봉사자 9	여러 가지 주제의 부스활동을 할 때, 직접 참여하는 활동 위주여서 집중하며 참여하였다. 또한 건강과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을 진지하게 숙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걱정인형은,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를 인형과 관련하여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아동들이 실제로 걱정을 인형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들을 교육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서적으로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	좋았던 점은 부스별로 동시에 여러 주제를 다룰 수 있어 좋았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일정이 다소 힘들었던 점이 아쉬웠다. 이외에도 조별 선생님이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아 잠시 서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봉사자 10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아동들이 많아서 걱정했던 것 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저학년들이라서 그런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욕심이 많은 아이도 있어서 힘들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매우 좋았다.	나 역시도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잘했다고 생각된다. 울거나 고집부리거나 징징거리는 아동이 있을 때 난처했지만 나 나름대로 대처를 잘한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고 더 잘해야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쉬는 시간 조정과 조별 남녀 성비, 모든 부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봉사자 11	아동들이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항상 아동을 위해 힘써야 했고,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지 못해 미안했고 스텝이다 보니 아이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어 미안하고 아쉬웠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였고 조별교사가 아이들의 식사시간에 밥 퍼는 것 등을 도와줘 아이들이 식사를 더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
봉사자 12	생각보다 아이들이 지도에 잘 따라 주었고 음료수 하나를 먹더라도 나눠먹어야 한다는 아이도 있어서 오히려 내가 배워가는 부분도 있었다.	나는 스텝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기회를 통해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다음부터는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만큼 위험할 수 있었지만 많은 스텝, 교사들의 역할분담이 잘 되어있어서 진행이 수월했다.
봉사자 13	처음에는 아동들이 너무 거세고 말도 안 듣고 장난도 많이 쳐서 힘들었는데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들 자신을 봐달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같이 느껴졌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너무 재밌었고, 2박 3일이 긴 듯 짧았다. 즐거웠다.	활동 부스 이용 시 휴식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오히려 많이 지쳤다. 또 식사 시간도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우왕좌왕했다. 다음 캠프에서는 시간 조정을 더 잘하면 좋을 것 같다.
봉사자 14	생각보다 말도 잘 듣고 저학년을 맡아서 통제하기 조금은 힘들었지만 잘 따라주어서 고맙다.	아이들을 싫어했었는데 처음 이런 봉사도 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제는 아이들이 더 좋아진 것 같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움도 많고 그만큼 생각을 더 해서 재밌게 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밥도 맛있고 처음에 열 명을 맡는다고 들었을 때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걱정했던 것 보다 많은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자유시간이 많았으니 다 같이 계속 모여 있기가 힘들었다.

6.1.5.3.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실무자) 평가

캠프가 끝난 후 17차 네트워크 정기회의(2014.09.16)에서 실무자들의 캠프 활동 평가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부스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모든 부스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포함해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자원봉사자들과 비슷했다. 캠프 쉬는 시

간에 대한 평가 역시 불만족스러운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비슷했는데, 관점이 조금 달랐다. 자원봉사자들은 캠프 쉬는 시간에 쉴 장소가 없고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호소했다면, 실무자들은 캠프 쉬는 시간이 아이들이 자유로운 놀이 시간을 가질 만큼의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던 반면, 화장실 이용이나 부스간 이동을 위한 시간으로 보기에 시간은 길어서 어중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쉴 공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이 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으로 놀기에는 ‘애매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기다리기에는 ‘지루한’ 시간이 2014년 건강캠프의 ‘쉬는 시간’이었다.

조별 주교사를 자원봉사자가 맡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교사는 센터교사가 조별 주교사를 맡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저는 별로 힘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만한 아이는 센터 선생님 이외에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산만한 아이는 센터 선생님들이 반을 맡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원봉사자 평가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대체로 자원봉사자들은 일상적으로 함께 하는 지역아동센터교사보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 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대처를 어려워했다. 그런 대처 방법은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때 알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한 센터 교사가 그 아동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캠프와 아동건강네트워크 캠프에 대한 비교 평가도 이루어졌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캠프 진행은 외부 업체를 통해 ‘만들어진’ 캠프를 주로 이용해왔다. 외부 업체를 통한 캠프는 각지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신청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아동 1000명 이상 참여), 상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우리 센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센터교사가 프로그램에 따라 캠프를 선택해 신청하기만 하면 되어서 교사입장에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고학년일수록 같은 센터 아이들하고만 있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센터아이들끼리 하나의 모듬을 구성하는 외부업체 캠프를 아이들도 좋아하는 편이다. 센터 교사가 직접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준비까지 모두 참여하고, 캠프 당일에도 할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들 또 하고 싶다고 했다.

V센터 센터장: “전 또 가고 싶어요 힘은 들어도 뿌듯하고”

P센터 센터장: “우리가 만들어서 가면 몸은 힘들지만 뿌듯한 마음은 더 많이 들어요”

D센터 센터장: “저희 아이들은 마지막 날 안돌아가고 싶다고... (웃음)(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게 참여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캠프 운영의 적정 인원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아동 1인당 스태프 비율과 캠프 운영의 비용, 효율성,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였다.

c: “애들이 생각보다 적게 간 것 같아요 아이들 대 스태프 비율이 1:2 였어요 스태프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년에 갈 때는 아이들 인원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서 가야할 것 같아요”

B센터 센터장: “스태프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b: “애들을 더 적게 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은 어떤가요? (오히려 더 소규모로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30명의 1:2와 100명의 1:2는 다른 것 같아요”

c: “예산이 더 들어요”

B센터 센터장: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규모는 전문적으로 외부에 해주는 곳에 보내면..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곳이 요즘에는 많아요”

P센터 센터장: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를 하면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굉장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도) 비용을 아껴서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D 센터 센터장:

“노는 것은 업체에 맡겨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목표가 딱 있었기 때문에...(이번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간 것이 잘 한 것 같음)”

아동 1인당 스텝 비율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했지만 대체로 실무자들은 우리가 정한 ‘주제’에 맞게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캠프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이는 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잠재력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했다. 스스로의 잠재력을 표출하여 무엇인가 이루어 낸 경험은 자신감을 고양시키며,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해 사업 지속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는 캠프 기획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여 네트워크 자체 성과로 보기에 충분한 결과였다.

c: “(저는)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실무자 역량강화도 목표 중 하나였어요.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능력이 표출될 기회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매개로 캠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실무자가 준비를 해야 (캠프가 끝나면) 나올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업체한테 맡겼으면, (실무자의 잠재된 능력이 표출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캠프 끝나고 업체 육만 하다 끝났을꺼예요.”

캠프 평가를 하면서 ‘가족 캠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향후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가족캠프를 진행해보는 것에 대한 사전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우선, 중학생만 되어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싫어하고, 초등학교생이라고 해도 학부모와 시간 맞추기 힘들어 항상 참여하는 가정만 참여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기 안에서의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 등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다.

6.2. 2015년 아동건강캠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사)사랑의친구들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지원 공모사업에 지원

해 선정되어 아동건강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다. 2015년은 2014년 캠프 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했는데, 2014년에 아동건강의 많은 영역을 다루었다면, 2015년에는 아동의 정서발달과 건강 영역으로 범주를 좁혀 진행했다.

6.2.1. 2015년 아동건강캠프 개괄

- 캠프목적: 아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신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정서 발달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캠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 캠프 명: 아동기 정신건강 전통놀이로 행복해지기 <아! 신통해 캠프>
- 캠프장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땅자연미술학교
- 캠프일자: 2015.08.12(월) ~ 14(수) (2박 3일)
- 참여인원: 아동 105명, 교사 17명, 봉사자 28명 (총 150명)
- 참여기관: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깨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여명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 (총 6개기관)
- 총 지출액: 11,580,000원
(자부담: 5,580,000원, (사)사랑의 친구들 지원금: 6,000,000원)

6.2.2. 2015년 아동건강캠프 준비과정

- T/F 구성: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깨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천안지역아동센터, 햇살가득과랑새지역아동센터, 여명지역아동센터,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 T/F 진행: T/F 팀은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T/F 회의에서 각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보완하며 준비했다. 2014년에 T/F팀에 합류했던 (사)시민건강연구소,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아이쿱천안생협은 T/F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청 시 회의 참석과 함께 아동건강네트워크 정기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진행하며 캠프 준비에 보조를 맞췄다.

표 35. 2015 아동건강캠프 T/F 회의 진행일정과 주요 논의 사항

회의 차수	일시	장소	논의내용
1차	2015.05.08.(금) 10:00~12:00	카페 모모	- 센터별 건강캠프 참여 목적 - (사)사랑의친구들 공모사업 지원 관련 - 캠프 개괄(아동모듬, 스텝인력등) - 캠프 프로그램 논의 - 업무 분장 - 캠프 비용 관련(자부담분) - 캠프 장소 관련(사전답사) - 세부 프로그램 논의
2차	2015.06.01.(월) 10:00~12:00	여명 지역아동센터	- 업무 분장 논의/확정 - (사)사랑의친구들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캠프 시연 논의 - 캠프 장소 관련(1차 사전답사시 '북면 천안농민회 캠프장' 속 박사실 부족 등으로 부적절, 캠프 장소 변경 필요)
3차	2015.06.19.(금) 10:00~12:00	여명 지역아동센터	- 세부 프로그램 논의 - 캠프 비용 관련: 예산 부족분에 대한 논의 - 맞춤 T셔츠 제작 - 캠프 인력(스텝)
4차	2015.07.06.(월) 10:30~12:30	깨비 지역아동센터	총괄:(사)미래를여는아이들 (순O정) 간식:아이쿱천안생협(윤O영) 의약품:순천향대 학교간호학과(전O자) (천안의료원 지원) 물품:(사)시민건강연구소(서O희) 시스템:순천향대 학교간호학과(백O아) 사진촬영·장소셋팅: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듬교사(주교사): 각센터 센터장 (부교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비석치기: 부여땅자연미술학교 대형웃놀이: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이O),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원O영) 떡지치기: 비전지역아동센터(공익근무요원) 천안지역아동센터(공익근무요원) 걱정인형만들기: 깨비지역아동센터(신O별) 여명지역아동센터(이O애) - 사전준비작업 체크

5차	2015.07.28.(화) 18:30~20:30	여명 지역아동센터	- 아동간식 체크 - 조별 이동 스케줄 - 준비물 구매 일정 체크 - 캠프 마지막 날 점심제공 관련 논의 - 간식 관련 논의
봉사자 교육	2015.08.10.(월) 16:00~18:00	여명 지역아동센터	<캠프 오리엔테이션> - 대상: 캠프 참여 대학생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지원 실무자 - 내용: 캠프 취지 및 일정, 역할 분담, 활동 프로그램 교육 등

6.2.3. 2015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내용

표 36. 2015 아동건강캠프 추진내용

일자 (월/일)	추진계획	실시내용	자체평가
	개회식,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취지 설명 - 활동 프로그램 소개 - 함께하는 선생님 소개 * 부여땅자연미술 학교 라운딩	*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 부여땅자연미술학교 라운딩 - 이번 캠프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쉬는 시간에 미움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과 흥미진진한 놀 이터가 있는 공간을 마련한 만큼, 아이들에게 우리가 2 박3일 동안 활동할 공간을 소개하는 라운딩 시간을 가 짐. 학교를 한바퀴 돌아보는 동안, 기대 이상으로 많은 놀거리에 아이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들뜬 모습을 보임. * 숙소 배정 - 숙소는 교실을 개조한 큰방 2개를 각 남자방 여자방 으로 사용함. 여러 센터의 아이들이 한 곳에서 다 같이 한 개의 숙소를 이용해도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방이 운동장만하다고 신기해함. * 휴식과 간식 - 천안에서 부여까지 이동하느라 피곤한 아이들에게 총 분히 쉴 시간을 주었고, 이른 점심을 먹은 아이들이 활 동 중 배고플 수 있어 천안아이쿱생활협동조합에서 제공 한 직접 구운 빵과 건강 과일음료를 제공함.
	집풀기, 휴식	* 집풀기 - 방배정 후 집 풀고 정리 * 휴식 * 간식 - 맛있는 빵과 음료수 먹기	* 이번 캠프는 전통놀이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아이들 끼리 노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캠프활동 시작		

08.12(수)			있음. 총 6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20명 이내의 아동을 한 조에 배치해 총 6개의 조가, 조별로 (부스)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함.
	건강박람회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인형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인형 만들기는 작년 캠프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여서, 올해도 진행함. 올해 처음 참여해보는 1학년들은 만들기 어려우면 만들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려 걱정했는데 막상 활동이 시작되자 즐겁게 잘 참여했음. - 하나씩만 만들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걱정이 많아서 한 인형에게 너무 이야기하면 인형에게 미안할 것 같으며 더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더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은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게 해줌. 캠프 당일 사용하여 자신의 걱정을 모두 털어내 이제는 상쾌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음. *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딱지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딱지치기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딱지의 유래와 딱지 접는 과정을 직접 만들어 와 아이들이 딱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음. 딱지 접기를 끝낸 후, 두 팀으로 나눠 딱지치기를 함. 	
	석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있는 저녁 식사 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식사 식단: 차조밥, 무국, 찜닭, 도라지무침, 호박전, 배추김치
	건강박람회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공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딱똑딱! 나무를 이용하여 두칸서랍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딱똑딱 나만의 정리함 만들기 목공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였고, 목공교실 프로그램 중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꾸밀 수 있는 정리함을 만들. - 아이들에게 손을 이용한 만들기 활동은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나무 망치를 이용해서 손이 아플 수 있고, 목공풀이 끈적여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매우 집중해 만들기를 함.
08.12(수)	세면, 취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도복숭아 * 세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이 씻기 * 취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이라 자기 전 위에 부담이 적은 간식인 천도복숭아를 간식으로 제공함.

08.13(목)	기상, 조식, 일정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 조식 * 일정전달 - 오늘의 일정 및 공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저 같은 아이들의 빠른 기상, 아침식사, 일정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 05:30, 딱 - 딱 - 소리에 기상을 하여 밖에 나가보니,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 어제 배운 딱지와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음. 평소엔 아침잠이 많이 지각을 밥 먹듯이 하던 아이들도 일어나서 놀고 있었음. - 아침식사 식단: 완두콩밥, 소고기미역국, 계란부침, 진미채볶음, 김, 열무김치
	건강박람회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옷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놀이에 직접 뛰어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몸 만한 옷을 던지고 직접 말이 되어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 키 만한 옷을 던지고, 스스로 말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옷놀이를 준비함. 두 조로 나뉘어 옷가락을 던질 사람과 말이 될 사람을 정한 뒤 한사람씩 옷을 던져서 나오는 도개겉옷모에 맞춰서 말이 된 사람이 이동하여 먼저 들어오는 조가 승리. 옷을 직접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아이들이 잘 던질 수 있을지 걱정이었으나, 저학년도 옷가락을 어렵지 않게 던질 수 있었음. 어떤 말을 움직여야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을지 고민하며 즐겁게 잘 참여했음.
	건강박람회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새로운 비석치기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치기의 방법은 무려 12가지가 있음. 조를 나눠 누가 먼저 12단계까지 성공하는지 대결을 펼침. 서로서 지켜봐주고 잘하는 것을 격려해 주었음. 이러한 놀이를 통한 응원과 격려가 자신감을 북돋워, 처음엔 센터가 모두 섞여 쑥스러워하던 아이들도 2일차부터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짐.
	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식사로 오후를 위한 에너지 채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식사 식단: 흰밥, 오명국, 소세지야채볶음, 동그랑땡, 멸치볶음, 배추김치
	황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토로 그림 그리고 해업 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를 하기 전 위밍업으로 황토놀이를 진행함. 먼저 황토를 이용하여 칠판에 그림 그리기를 하고, 다음엔 친구들 얼굴이나 팔, 옷에 그림을 그렸음. 붓의 간지러운 촉감과 자유로운 놀이로 아이들은 매우 즐거워 함. - 본격적인 황토놀이는 황토밭이 있는 비닐하우스로 가

08.13(목)			서 진행함. 황토밭에 몸을 맡기면서 드러눕기도 하고, 서로에 황토를 뿌리거나 비비기도 하면서 여전히 서먹해 하던 아이들도 친밀감을 높을 수 있는 계기가 됨. *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물놀이!
	여름물놀이	* 여름물놀이 - 저학년은 풀장에서! 물총놀이를 함께~ - 고학년은 냇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뗏목도 타고!	- 황토를 야외사위장에서 한차례 닦아내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놀이를 진행함. 저학년은 풀장에서 고학년은 뒤편 냇가에서 물놀이를 함. 저학년 아이들은 미리 준비해간 패트병 물총을 이용하여 신나게 물총싸움을 하고, 고학년들은 뗏목을 띄워서 뗏놀이를 하거나 뜰채를 이용한 물고기 잡이를 함. 물놀이 중간에 부어에서 갓 탄 시원한 수박을 간식으로 제공함.
	씻기, 휴식	* 씻기, 휴식 - 샤워하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 충분히 논만큼, 열심히 쉬었습니다. - 충분히 논 친구들과 먼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각 방에서 잠깐 즐기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식사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함.
	석식	* 저녁시간 - 신나는 저녁 시간!	* 저녁식사 식단: 흑미밥, 된장국, 제육볶음, 뽕어포우침, 오이양파우침, 열무김치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 레크리에이션 - 신나는 짝 찾기, 기차놀이, 춤추며 스트레스 풀기	*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 조 별로 운동장에 모여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지도 아래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됨. 짝 찾기, 기차놀이, 동요에 맞춰 창작 춤추기 등이 흥겹게 진행됨. - 레크리에이션 후 바로 옆 캠프파이어장으로 이동하여 대표 교사와 아동이 셋씩 나와 불씨를 장작으로 옮김. 캠프파이어를 중심으로 등그렇게 둘러앉아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함.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 캠프파이어 - 점화식 - 풍등 띄우기 - 소원 빌기	캠프파이어가 끝나갈 때쯤, 모든 걱정, 스트레스를 담아 '풍등'을 띄우는 행사를 함. 아이들은 자신의 걱정이 모두 없어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풍등을 끝까지 바라봄.	
08.13(목)	세면, 점호, 취침	* 간식 - 천도복숭아 * 세면 - 깨끗이 씻기 * 취침	* 맛있는 간식시간, 세면, 취침 - 레크리에이션과 캠프파이어가 끝난 후, 각 센터별로 모여서 간식으로 제공한 천도복숭아와 스넥을 먹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센터별로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짐.

08.14(금)	기상, 조식, 일정전달	* 기상 - 이부자리 개기, 세면하기 * 조식 - 즐거운 아침! * 일정전달 - 일정 및 공지	* 오늘도 파워 기상인 우리 아이들 - 마지막날에도 우리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 놀이터를 누비고 딱지치기와 제기차기로 하루를 시작. - 아침식사 식단: 흰밥, 북어국, 돈까스, 가지볶음, 샐러드, 단무지우침
	건강박람회 <3차>	* 굴렁쇠 놀이 - 누가 누가 잘 굴리나?!	* 하늘 끝까지 굴러보자! 굴렁쇠 놀이 - 운동장에서 굴렁쇠 놀이함. 처음 하는 굴렁쇠 굴리기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못했고, 철바퀴와 철사를 가지고 어떻게 굴리는 게 가능한지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었음. 그러나 놀이가 끝날 때쯤에는 다 함께 운동장 끝까지 굴릴 수 있게 됨. - 한 친구가 모든 것이 어설피고 남들보다 느려서 놀 놀림을 받았었음. 그런데 굴렁쇠는 누구보다 잘 굴려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놀라고, 멋지다고 다함께 박수치며 칭찬함. 이처럼 놀이는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북돋워줄 수 있는 것.
	건강박람회 <3차>	* 제기차기 - 직접 만들고 제기 잘 차는 방법 배우기	* 직접 만든 제기로 누가 제일 잘 차나? 제기차기 - 아이들의 요청으로 작년 캠프에서 했던 프로그램인 제기차기를 올해도 진행함. 작년 활동을 통해 만드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지만 제기 차기가 쉽지 않아서 아이들이 꼭 다시 알려달라고 부탁함.
	퇴소식	* 퇴소식 - 소감 나누기 - 함께 인사하기	* 활동의 마무리 퇴소식 - 2박 3일 동안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아이들, 실무자, 자원봉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캠프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가짐.
	점심식사, 정리 및 해산	* 점심식사 - 간단한 식사 * 정리 및 해산 - 주변 정리, 이동	점심식사 메뉴: 밥버거, 음료

6.2.4. 2015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비용

표 37. 2015년 아동건강캠프 추진비용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산 출 근 거	집행액	구분	산 출 근 거	집행액
사랑의친구들 지원금(70%)	4,200,000	대 관 비	부여땅자연미술학교 대관	3,500,000
시민건강연구소	1,000,000	급 식 비	아동/실무자/봉사자 급식비	3,535,900
아이쿵 천안생협	300,000	간 식 비	빵, 음료, 천도복숭아 등	1,000,000
사랑의친구들 센터선부담(30%)	1,800,000	진 행 비	프로그램 준비비 등	1,150,590
센터 부담금(각 150,000원)	900,000	이 동 비	버스 대절비	2,090,000
센터 부담금(급식비, 단체T)	3,380,000	강 사 비	레크리에이션 강사료	303,510
		주 민 갑 근 세	강사료 주민갑근세	10,360
		수 수 료	버스 대절비 이체 시 수수료	500
계	11,580,000	계	계	11,580,000

6.2.5. 2015년 아동건강캠프 평가

6.2.1.1. 아동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66명이었고, 아동건강캠프가 내년에도 열릴 경우,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응답자 66명 중 48명으로 72.7%였다.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프로그램이 재밌어서가 37%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서가 28.4%, 식사와 간식이 맛있어서가 14.8%로 많았다.

표 38. 2015 아동건강캠프 재참여 의사

아동건강캠프가 내년에 또 열린다면 다시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명)	(%)
①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30	45.5%
② 참여하고 싶다.	18	27.2%
③ 참여할 생각이 없다.	10	15.2%
④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	1.5%
⑤ 잘 모르겠다.	6	9.1%
결측	1	1.5%

계	66	100%
다시 참여하고 싶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선택 가능)	(명)	(%)
①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30	37.0%
② 식사와 간식이 맛있어서	12	14.8%
③ 장소가 마음에 들어서	7	8.6%
④ 새로운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서	23	28.4%
⑤ 자유시간이 있어서	9	11.1%
⑥ 잘 모르겠다	.	.
계	81	100%

프로그램별 아동의 평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높은 집중력을 보였던 ‘목공교실’이 역시 가장 만족도가 좋았다. 설문에 응한 아동의 83.3%가 목공교실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4년 아동건강캠프에서의 호응도가 좋아서 2015년 아동건강캠프에서도 진행한 ‘걱정인형만들기’역시 75.8%의 아동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이들의 요청에 의해 편성했던 ‘체기차기’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50%의 아동이 좋았다고 평가했고, 10.6%의 아동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표 39. 2015 아동건강캠프 프로그램 평가

	나쁨		보통		좋음		결측		계
① 비석치기	4	6.1%	22	33.3%	39	59.1%	1	1.5%	66명 (100%)
② 체기차기	7	10.6%	25	37.9%	33	50.0%	1	1.5%	
③ 굴렁쇠	9	13.6%	22	33.3%	33	50.0%	2	3.0%	
④ 목공교실	5	7.6%	8	12.1%	51	83.3%	2	3.0%	
⑤ 대형웃놀이	6	9.1%	15	22.7%	43	65.2%	2	3.0%	
⑥ 딱지치기	4	6.1%	12	18.2%	49	74.2%	1	1.5%	
⑦ 걱정인형만들기	5	7.6%	10	15.2%	50	75.8%	1	1.5%	

아동건강캠프에 참여했던 아동들은 캠프에 참여했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확인

하기 위해 환경 평가를 진행했다. 식사와 간식과 같은 먹을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는데, 86.4%의 아동이 식사가 좋았다고 평가했고, 간식 역시 응답 아동의 87.9%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함께한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는데, 86.4%의 아동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잠자리와 화장실과 같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는데, 폐교를 개조해 만든 캠프장이다 보니 화장실이 야외에 있고, 숙소가 개별 공간 없이 남녀만 구분해서 다같이 잠을 자야하는 점, 냉방 시설의 부족 등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0. 2015 아동건강캠프 환경 평가

	나쁨		보통		좋음		결측		계
① 식사(밥)	2	3.0%	6	9.1%	57	86.4%	1	1.5%	66명 (100%)
② 간식	0	0%	7	10.6%	58	87.9%	1	1.5%	
③ 잠자리(편안함)	12	18.2%	20	30.3%	33	50.0%	1	1.5%	
④ 화장실	26	39.4%	26	39.4%	13	19.7%	1	1.5%	
⑤ 선생님들	4	6.1%	4	6.1%	57	86.4%	1	1.5%	
⑥ 자유시간(여유)	5	7.6%	11	16.7%	49	74.2%	1	1.5%	
⑦ 부어땅자연미술학교	7	10.6%	12	18.2%	46	69.7%	1	1.5%	

6.2.5.2. 대학생 자원봉사자 평가

2014년 아동건강캠프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캠프를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었으나, 서원대학교 등에서 개별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도 있었다. 2014년 아동건강캠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적으로 조(모듬)의 주책임 교사는 각 센터에서 맡았고, 보조교사인 부교사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맡았다. 이들은 조(모듬) 별 활동을 위한 필수 인력인 조(모듬) 교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해냈을 뿐 아니라,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선생님과의 만남’이라는 설레고 신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또한 캠프진행 시 필요한 준비를 돕기도 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평가에는 23명이 참여했다.

캠프 진행상 좋았던 점으로는 2014년 아동건강캠프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의 다양성, 상세하고 명확한 스케줄표 제시, 계획성 등을 꼽았고,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프로그램 진행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지루해 하는 점, 아이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 등을 이야기했다. 2015년과 달리 화장실, 샤워실, 잠자리 등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을 많이 호

소했는데, 이는 캠프 장소가 자연 속에 위치한 폐교를 개조한 곳이라는 점이 아이들에게는 자유롭게 놀 공간과 놀거리를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기는 했지만, 동시에 시설이 다소 열악한 측면이 있었다. 봉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측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 감사함, 즐거움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교사 1인이 봐야할 아동의 수가 너무 많아 프로그램 진행 시간과 쉬는 시간에 소외되는 아동 없이 충분히 함께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스텝의 인원을 더 늘렸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표 41. 2015 아동건강캠프 자원봉사자 평가

	아동 바라보기	스스로 돌아보기	진행과정 돌아보기
봉사자 1	우리가 커가면서 잊고 지냈었던 아이들의 모습은 해맑고 작은 것으로도 선생님들, 새로 사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이 재미있었고 순수해보였다.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고, 놀아줄 때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	레크레이션 강사 선생님에 음악 담당을 데려오셨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노트북 앞에서 구속되어 있어서 아쉬웠다. 시간이 알차게 보내진 것 같아 좋았다.
봉사자2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에너지를 억압 없이 마음껏 발산하는 모습이었고 나쁜 쪽으로 표출되는 것 보다는 긍정적, 활발함으로 표출되었다.	나는 선생님이라는 책임감을 느꼈다. 아이들과 나는 원하는 바도 다르고 참을성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연 속에 있어서 물고기, 풀꽃, 밤하늘의 별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며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이 많았다. 샤워시설이 열악한 것이 흠이었다.
봉사자3	다들 긴장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다. 봉사자와 선생님들도 긴장을 하고 아이들도 설레임과 동시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조 편성과 함께 대학생 봉사자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물놀이로 분위기가 무르익는 캠프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잃어버린 동심을 찾았다.	전체적으로 좋았다. 특히 딱지 치기가 재밌었다.
봉사자4	아동들의 대부분은 적응시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적응과 함께 노는 그런 것이 있었으나 소수의 아동들, 특히 각 센터의 요주의 아동들은 가끔 돌발 행동(나 안해, 싫어 등등)을 하였다.	센터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아이들과 첫 캠프였는데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진행은 주교사에 보조교사 2명이 있고, 스텝이 있었는데 팀 내의 교사구성은 잘 이뤄졌고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던 반면, 스텝쪽은 멀티로 계속 뛰어다니지 않으면 역할이 순

	잘 달래서 활동을 재개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호의적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였다. 보기 좋았고, 기쁨이 있었다.	막하였으나 이번 캠프로 자연스레 위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다.	간 봉 뜨는 것 같았다. 스텝도 더 명확한 구분 혹은 계속 뛰어다닐 무언가(프로그램 진행 등)가 필요해 보인다.
봉사자5	대부분의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몇몇의 아이들은 잘 어울리지 못해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잠자리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매번 캠프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보람찬 거 보다는 힘든 점이 많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프로그램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놀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차기도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자원봉사자)은 일을 하고 통솔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	첫 번째 좋았던 점은 공기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즐기고 느끼니까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전통놀이를 통해 옛 선조들의 놀이방식을 알게 된 점이다. 두 번째는 조별활동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반면에 개선해야 할 점은, 위생시설과 샤워시설 그리고 효율적인 로테이션이다. 그리고 잠잘 곳도 한방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니까 감기같은 병의 전염도 쉬울 것 같아서 좀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봉사자6	즐거워보였다. 캠프의 인사말이 “잘 놀겠습니다”인 만큼 다들 즐겁게 잘 노는 모습이었다. 목공교실, 걱정인형만들기 때는 진지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내가 초등학생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 지 다시 되돌아보며 아이들의 입장, 시선에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다. 또 평소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좋아했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며 지내다 보니 오랜 시간 아이들과 활동하고 어울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정말 다양한 성격, 성향의 아이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아쉬웠던 점은 진행상 프로그램 간의 텅(간격)이 길어서 아이들이 지루했던 점이다. 또한, 놀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었는데 조금 더 재밌으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
봉사자7	활기차고 즐거워 보인다.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관찰력도 뛰어났다. 때 묻지 않았고 무척 솔직했다.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금	너무 걱정하고 캠프에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센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샘 솟았으며 순수한 아이들게서 얻는	샤워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레크리에이션을 좀 더 구성있게 준비해야 했다. 아이들이 긴 옷을 챙겨 올 수 있도록 해야겠

	방 하고 장난끼가 넘쳐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가 부러웠다. 스스로의 저질 체력에 놀랐고 나의 참을성에 놀랐다. 행복했다. 미래에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다. 간식 메뉴는 무조건 통일했으면 좋겠다.(간식 부족) 진행상 좋았던 점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아 다수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가능했고 유동적인 스케줄 조정이 가능했고, 그것이 좋았다.
봉사자8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쭈뼛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틀째되는 날 부터는 선생님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장난도 치며, 많이 편해져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도 건네고 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그리고 나에게 많이 의존하는 아이에게 좀 더 살갑게 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다양한 놀이와 시설들을 통해 아이들이 원없이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 다만, 샤워시설이 하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씻기엔 불편했다. 또한, 샤워시설의 문이 천으로 되어있어 불안하였다. 다음에는 아이들이 씻는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짜면 좋겠다.
봉사자9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해서 거리감을 두는 모습이 보였으나 프로그램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친해지고 나(자원봉사 교사)와도 친해지려고 하는 게 보였다.	아이들 돌보기는 참 힘든 것 같다.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힘들게 키웠을까? 다들 에너지가 넘치고 뛰어다니는데 나는 지친 것을 느꼈을 때 난 내가 나이가 들었음을 깨달았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만 놀던 아이들이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다. 전통놀이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체적인 부분과 더불어 팀워크를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 개선해야 할 점은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담당하는 선생님과 친밀감을 기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관참을 것 같다.
봉사자10	캠프에 와서 들뜨고 신나있는 것 같았다. 첫날에는 다들 어색하고 쭈뼛쭈뼛하는 것 같았는데 저녁쯤 되니 다들 친해지고 서로 챙기는 모습을 본 것 같다. 조끼리 생활한다는 게 남자 아이들에게는 쉽고 빠르게 적응되는 것 같았는데 여자 아이들은 쉽지 않아 보였다. 또 같은 학년 남학생이	서로 다른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는 게 힘든 것 같았다. 어느 아이에게는 잘해주고, 어느 아이에게는 잘 대해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애들이 전 반적으로 캠프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한명 한명 마음을 여는 아이들을 보	진흙놀이는 정말 좋았던 것 같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장 친해진 계기가 된 것 같다. 장소도 너무 예뻐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기억을 줄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쉬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밥 시간 후에 쉬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다. 그 외에 시설

	없어서 혼자 외로워 보이는 아이도 있어서 안쓰러웠다. 그래도 다들 전반적으로 캠프 후기가 될 수록 마음을 여는 것 같았다.	면서 뿌듯했고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적인 면이나 프로그램이나 다 좋았다. 조편성에 조금만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한 친구가 캠프 내내 심심해해서 아무리 놀아줘도 친구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봉사자11	즐겁게 뛰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답답한 곳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노는 아이들이 순수해보였고 웃는 모습이 좋았다.	참여하면서 오늘날만큼 아이들이 이랑 소통하면서 즐거웠고 더 깊은 시선으로 봐야하겠다고 느꼈다.	사위실, 급식실이 열악해 개선 필요한 것 같다. 위생상 너무 좋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에 차질 생겼다.
봉사자12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좋았다. 아이들이 낯선 전통놀이를 재밌고 호기심있어하며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자꾸 관심 끌고 싶어하는 모습이 애뜻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며 놀아주지만, 하다보니 아이들을 너무 제어하기 어렵기도 했다. 차츰 아이들에게 거절도 하며 다루는 방법을 다른 선생님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 깨우칠 수도 있었다. 아이들이 정이 많아 우리를 금방 따라주고 선생님! 선생님! 불러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 나도 함께 더 마음을 나누며 놀아주고 얘기할 수 있었다. 너무 재밌었고, 뜻깊었던! 오래오래 생각 날 캠프였다.	아이들과 전통놀이를 저도 같이 배우고 즐길 수 있었고, 제기차기를 제기만 차는 것이 아닌 직접 제기를 만들고, 목공놀이도 직접 망치를 치며 만들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봉사자13	아이들이 여름방학 캠프로 부여로 각 센터별로 모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더운 날씨에도 참여도가 높아서 아이들이 대견스러웠다. 캠프에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의 순수함을 읽었다.	공익 신분으로 선생님의 호칭을 들으면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좀 더 깊게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좋았던 점: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좋았던 것 같다. 개선할 점: 시설(여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봉사자14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귀여웠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아이	2박3일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을 보고 UFO가 떨어지는 것이라 했을 때 정말 귀여웠다. 순수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들과 함께 놀면서 나도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아무런 걱정없이 뛰어노는 것은 어렸을 때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놀다보니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나도 같이 풀 수 있었던 것 같다.	것처럼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알차고 정성을 들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센터별로 나는 것이 아닌 조별로 나는 것이라 자칫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다양한 아이들이 서로 만나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다. 끝으로 좋은 캠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봉사자15	제가 약간 낮을 가리는 데, 먼저 이야기를 걸어주고 다가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저도 빨리 아동들에 적응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도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아직 작지만 정서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자라 있고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늘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저와는 달리 본인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아동들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간간히 보여주는 행동들에 감동을 받았다.	기회가 빨리 다가오게 된다면, 아마 첫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아직은 경험적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잘 대처하지 못하였는데, 여러 다른 센터 선생님과 다른 자원봉사자분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본 시간이 된 것 같다.	연합캠프라는 취지에 맞게 다른 기관의 아이들을 조별로 묶어 활동을 한 것이 아이들에게 더 넓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다. 폐교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잘 되어있어 저도 중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 씻는 부분에 있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서 자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정이 조금 짧아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지쳤던 것 같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그랬던 것라 이해는 가지만 좀 힘들었다. (그래도 재밌었다. 좋은 캠프 감사하다.)
봉사자16	넘치는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활발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센터에서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제한된 공간과 환경에서 충분히 자유로운 활동은 어려웠다. 하지만 드넓은 시골에 나와 친구, 곤충, 나무와 어울려	센터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는 캠프마다 느낀다. 아이들의 어린 날에 행복한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들의 긴 인생중에서도 어린 날, 잠깐이지만 굶게 기억될 수 있는 보람찬 추억을	많은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유익했다.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진흙놀이, 물놀이 등이 아이들이 놀이에 매우 좋았다. 다만 이번 캠프의 시설면에서 샤워시설이 특히 아쉬움이 남았다. 샤워시설이 확보된 시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자유로움은 물론 평소 내면에 쌓여 왔던 아름다워 시원하게 치유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철저히 자연 환경과 물놀이, 진흙놀이, 놀이터 등 아이들이 자유를 표출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아 더욱 행복한 추억을 아이들이 남기고 갈 수 있었다 생각한다.	이 선정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봉사자17	아이들이 매우 자유분방하셔서 처음에 통제에 어려움이 많을까라 걱정해주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아이들의 열정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순수하고 활발한 아이들의 모습에 힐링되는 것을 느꼈고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짜여 있는 것이 좋았다. 넷가놀이 등을 할 때, 안전에 좀 더 신경쓰면 좋을 것이다. 캠프 파이어 할 때도 애들이 불에 너무 가까이 가는 걸 잘 저지해야했다.
봉사자18	정말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호기심이 많다. 아이들마다 개성도 있고 특징들이 있었다. 질투심이 많은 친구, 징징거리는 친구, 뭐든지 긍정적인 친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친구, 고집이 센 친구, 정말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고 챙긴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도 아이들처럼 친해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행복했다.	힘들때쯤 쉬는 시간을 주고 좋았던 것 같다. 캠프파이어, 레크레이션은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참여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 아쉬웠다.
봉사자19	자유롭고 힘줄은 모습. 고집이 센 친구도 있고 선생님께 의지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다.	힘들었지만 많은 추억을 쌓아가는 것 같다.	휴식시간이 길어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만들고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모든 프로그램이 몸으로 활동하는 것이라 더욱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화장실, 샤워장시설이 정말 별로였다.
봉사자20	저학년 아이들 지도를 맡았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웠다. 가끔씩 나의 지도를 듣지 않았던 모습들도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지도를 했었더라면, 생각했던 순간들이 생각	아이들에게 마음과는 다르게 잘 못해준 것 같아 아쉬웠다. 앞으로 더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이들에게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한 사람당 많은 아이들이 많아서 진행을 여유롭게 못하게 한 점이 아쉽다. 다음에는 봉사자수를 더 많이 늘려 아이들과의 소통 및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반면, 좋은 점

	난다. 내가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아이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모습, 올바른 모습, 보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은 전통놀이는 계획적으로 어느 조가 겹치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같아 좋았다.
봉사자21	순수했다. 비록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었지만 같이 지내고 보면 볼수록 참 착하고 맑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라는 말이 정말 와 닿는 순간이 많았다.	첫날 너무 힘들었다. 아이들이 처음 보자마자 나한테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했다. 참 힘들거라고 예상했다. 그냥 봉사시간 채우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면서 내가 재미없고 아이들을 짜증나게 느낀다면 아이들도 재미없게 생각하고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참 착하다. 순수하다. 같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잠시 잊혀지는 순간이었다.	자연환경과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좋았다. 남자선생님들이 한조에 한명씩 있으면 좋겠다. 남자 아이들이 너무 활발하면 조금 여자들만으로는 힘들었다.
봉사자22	생각보다 참여를 잘해주었다. 아동들다운 순수하고 솔직한 모습이 감명깊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귀엽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활발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같이 순수해지는 기분이라 좋았던 것 같다. 어떻게 작은 신체에서 저렇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지 경이롭기까지 하였고 정신적인 순수함이 중요하다고 깨달음을 준 듯한 모습을 봤다.	정신적으로 정화가 된 것 같았고, 한명 한명 대화를 하면 아동들만의 순수한 정신이 더 잘 보였다. 그러한 모습들이 현대 사회에 지친 내 정신을 치유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정은이가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했다.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30분 정도 연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더 철저히 되면 좋을 듯 하다.
봉사자23	피곤한 기색없이 활기찬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무엇을 하든 목적이 순수한 아이를 보았을 때는 자기 반성을 느낄 정도로 순수하였다.	애들의 순수함과 때타지 아니함에도 나도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좀더 순수하여지고 싶었다. 사실 봉사를 하는 입장으로 왔지만 몇몇은 깨닫는 봉사로 받는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좋은점은 지루하지 않았던 일 정계획과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진행한 것이 맘에 들었다. 개선점은 이외에 청결에 관련된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아쉬웠다.

6.2.5.3.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실무자) 평가

캠프가 끝난 후 25차 네트워크 정기회의(2015.09.03)에서 실무자들의 캠프 활동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화장실·샤워실 등의 시설에 문제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노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웠던 캠프였다고 평가했다.

표 42. 2015 아동건강캠프 실무자(네트워크) 평가

<p>S센터 센터장 : “밥 먹어, 줄서, 더 먹어, 하지 마,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었던 캠프여서 좋았어요. 좋치면 알아서 아이들이 밥 먹으러 모이고, 의외로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놀랐어요. 남기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밥이 부족할 정도로. 환경적인 요소가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p> <p>B센터 센터장 :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고, 저희 아이들이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안 먹는 트리 오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 잘 먹는 것. 첫날, 안 먹었는데, 둘째, 셋째 날은 선생님들 것까지 뺀어 먹는 것 보면서, 뿌듯했어요. (올해 우리 센터에서 애들을 보낸 캠프가 다섯 개) 다섯 번의 캠프에 최대 4번까지 간 아이가 있었는데 부여땅이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자봉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서.”</p> <p>D센터 센터장 : “(애들이)작년에는 힘들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놀이중심이었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작년 생각하고 신청 안했던 아이들이 궁금해 하고 내년에도 거기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애들이)화장실 하고 씻는 것이 제일 힘들었고 다른 것은 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햇살 선생님이 대단한 것이, (화장실이 불편해서)애가 소변을 참다가 결국 소변이 마려워서 썼는데, 그 새벽에 햇살 선생님이 거기를 대야에 몰받아와서 청소하는 것 보니...”</p> <p>T센터 센터장 : “제가 불편했지, 아이들은 정말 좋아했어요.”</p> <p>P센터 센터장 : “밴드에 사진을 올렸더니, 보호자님들이 엄청 고마워했고, 작년에 캠프 참여했던 중학생들이 부러워했어요. 다만, (2014, 2015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참여단체가 1/n 로 분담금을 냈는데, 2015년부터는 참여 아동수가 센터마다 차이가 커졌으니)내년에는 분담금을 아동 한명 당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균등하게 하는 것 보다”</p>
--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땠는지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내에서의 캠프준비과정은 어땠는지, 캠프를 준비하는 동안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2014년 캠프처럼 준비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였는지, 향후 캠프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이러한 형태의 캠프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네트워크 입장에서 바람직할지 등에 대한 평가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6.3. 아동마음기지개캠프

6.3.1. 마음기지개캠프 개관

- 목적: 다양한 상실 경험에 대한 성찰로 아동의 자존감을 고양하고자 한다. 또한, ‘상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임을 아동이 인지하고,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뿐 아니라 생활 속의 다양한 상실 경험의 극복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캠프를 구성하고자 한다.

- 일시: 2015.02.27(금)~28(토)
- 장소: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 대상: 상실의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16명
(초등학교5학년~중학교2학년)

6.3.2 마음기지개캠프 내용

마음기지개캠프는 상실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인 만큼 아동 한명 한명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규모 캠프로 기획했다. 따라서 조별 아동의 수와 캠프 참여 전체 아동의 수를 적은 규모로 계획하고 준비했다. 한 조에 4~5명의 아동을 배치하고 4개 조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표 43. 마음가지개캠프 프로그램

1일차	
시간	내용
10:00~11:30	*복식호흡 *자연물천 이용해서 생명의 시작 알깨우기 *상실노동 색깔로 살펴보기
12:30~15:00	*호흡명상 *하늘과 땅 사이 나의 존재 인식하기 *몸그림(현재의 나의 지점 알아보기)
15:00~15:15	*간식
15:15~16:00	*런닝맨(버리고 싶은 기억 쪽지 적기)
16:00~18:00	*살아있는 모든 것들 동화책 감상 *기억의 함 만들어 추억 담기
19:00~20:00	*버리고 떠나기(항해 시뮬레이션)
20:00~	*자유 시간 및 간식, 취침
2일차	
시간	내용
09:00~10:00	*Spiritual dancing(짹 댄스-서로 힘되기)
10:00~10:30	*일일전시, 다과
10:30~11:00	*축하의 몸 인사 나눔, 사진촬영
11:00~	*센터 별 해산, 정리

표 46. 역할분담

역할	담당	부담당
총괄	손O정((사)미래를여는아이들)	
진행 및 물품	유O이(강사)	김O숙(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각 조 진행 보조	1조	원O영(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2조	김O성(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3조	유O선(천안지역아동센터)
	4조	한O자(여명지역아동센터)
간식	박O연(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서O희((사)시민건강연구소)
시스템(빔, 음향 등) 카메라	손O정((사)미래를여는아이들)	

6.3.3. 마음가지개캠프 평가

캠프에 대한 평가는 캠프 후 제 20차 아동건강네트워크 정기회의(2015.03.17.)에서 이루어졌고, 대략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평가
 - 대체로 처음 접하는 활동이라 아동들이 많이 어색해 함.
 -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 전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해서 아쉬웠음.
 -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하여 몇몇 아동들만 참여했는데, 전체 아동들이 여유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활동 중간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흥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아동의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았음.
- 진행 평가
 - 강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쉬웠음.
 - 이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 참여한 아동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고, 프로그램 진행 후에도 아이들과의 나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
- 아동 평가

- 부연설명이 부족해서 아동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음.

• 환경평가

- 밥이 매우 맛있고, 간식과 장소에 대해 참여한 아동들과 실무자들이 매우 만족스러워했지만, 밤에 잘 때 외풍이 있어 추운 단점이 있음.

- 캠프 시설이 깨끗했고 숲속에 있어 숙소가 아늑했음. 주변 환경도 좋아서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라 마음기지기캠프를 진행하기에 적절했음.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쉬움’이었다. 대체로 캠프 장소의 시설과 식사,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는 좋았으나, ‘상실’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해 프로그램과 진행을 모두 맡겼는데, 오히려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개별 아동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아동건강네트워크 내부에서, 참여한 아동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충실히 준비해서 진행했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반성이 있었다. 참여한 아이들에게 미안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7. 아동건강네트워크 기타 실행사업

7.1.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인형극 개최

7.1.1. 배경

인천광역시 만석동의 공부방 ‘기차길옆작은학교’는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개최한 북콘서트 초청 저자였던 김중미 작가가 운영하는 공동체이다. 빈민운동을 하던 김중미작가는 가난한 동네 만석동에서 오랜 시간, 지역의 공동체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경험을 녹여내 책을 쓰고 있다. 북콘서트를 계기로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는 ‘기차길옆작은학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인형극 공연을 보러갔다. 공연 관람 후,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환경의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구성된 모두가 참여해 다 같이 협력하여 인형극을 만들고 공연하며, 그 과정에서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나가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7.1.2. 개괄

• 크라우드펀딩

- 플랫폼: 와디즈 <https://www.wadiz.kr/>

- 펀딩명: 천안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인형극을 통한 사랑나눔 1+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162>

- 기간: 2015.06.01. ~ 06.30 (30일간)

- 목표금액: 2,000,000원

- 달성금액: 2,510,000원 (126% 달성)

- 지원: (재)풀뿌리희망재단

(크라우드펀딩 성공 시, 목표금액만큼을 매칭한 금액을 지원함)

• 인형극

- 공연명: 2015 길·동무·꿈 “그·꿈·들”

- 일시: 2015년 11월 14일(토). 오후 2시

- 장소: (천안)상명대학교 계당관 1층 중극장

7.1.3. 진행과정

먼저, 인형극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기차길옆작은학교’에서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했다. 기차길옆작은학교에서는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인형극 공연 개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타지로 이동해 인형극 공연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쉽게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천에서 천안까지 40여명이 이동해 와야 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아이들이라는 점, 학기 중에 아이들이 공연 준비를 할 시간에 대한 고려, 공연의 질⁹⁾ 등 예민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기차길옆작은학교 입장에서는 공연 개최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인형극 초청 공연에 응해주어 인형극 개최를 추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인형극을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사회에 공연을 알리고,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들 간의 협력 경험을 쌓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이O명 국장을 포함해 펀딩준비팀을 꾸려 진행했고,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홍보가 원활하지 않았고, 모금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만이 아닌 서울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모금을 완료했다.

세 번째, 인형극을 개최할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본적으로 천안에 공연을 열 문화시설이 부족했고, 공연을 열만한 극장들은 모두 연초에 대관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다. 근근이 마련한 장소가 상명대학교 계당관 중극장이었는데, 공연 직전까지 시설, 장비 등의 문제로 네트워크 간사단체에서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7.1.4. 평가

크라우드펀딩과정과 인형극 개최에 대한 평가는 일정상 네트워크 정기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대신 책임기소모임(2015.11.20.)에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었다.

인형극을 본 우리 아이들(햇살가득과랑새, 해누림, 깨비, 천안서북구공립청소년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함)은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다고 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내용으로 구성된 ‘그·꿈·들’인형극의 내용을 청소년지역아동센터인 해

9) 기차길옆작은학교의 ‘직직폭폭인형극단’ 인형극은 2008년부터 참가한 춘천인형극제 아마추어공연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휩쓸었다.

누림과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공연이 인형극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고, 저학년도 즐기며 볼 수 있는 춤, 노래, 타악 공연이 함께 있어 아이들이 흥미롭게 관람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저학년 아이들조차 긴 시간 집중해서 공연장에 앉아 있었다.

한편, 인형극을 본 실무자 등의 ‘어른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A센터 교사: “애들은 이해 못하고 어렵다고 하는데(웃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인형극 내용(구체적 사실)을 잘 몰랐어서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주지 못해 아쉬웠어요 저는 인형극이 되게 좋았거든요 내용 자체도 좋았지만, 우리 애들하고 비슷한 애들이 하는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좋았어요”

B센터 센터장은 인형극 그 자체보다 아주 짧은 시간이기기는 했지만, 공연 후 밖에 나와 전시되어 있는 책과 인형, 그림전을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다며, 그 시간을 뜻 깊게 여겼다. 아이들이 전시되어 있는 책을 사달라고 해 그날 책을 7권이나 샀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이 자극이 되어 2016년, E센터와 A센터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아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을 찍어 공개하는 영상제를 열었다.

7.2.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지원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실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아이들과의 만남이 잦아졌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위한‘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필요하고 해야 할 것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어 자원이 연계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현재 운영되는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식은 지속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어보였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자가 분절적으로 투입되는 방식은 지속적이지도 않고, 누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끌어갈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었다. 어떤 자원이 있고 어디에 연결해야하는가에 대한 코디네이터도 없는 상태다.

현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함을 호소한다. 뭔가 통합이 안 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여기를 때골 뭔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방식이 한 아동의 삶의 변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은 커져갔다.

마침, (재)풀뿌리희망재단에서 <2015 신규공익인프라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가 났고, 아동건강네트워크(10)에서는 기획안을 작성해 지원했다. 결과는 탈락이었으나,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향후,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해보고자 한다. 현재는 아동건강네트워크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표 45. 인큐베이팅지원사업공모 지원 기획안 개괄

인큐베이팅지원사업공모 지원 기획안 개괄

- 단 체 명: (가)동네어린이건강센터 “함께 맞는 비(함비)”
- 설립목적: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가정방문 활동을 하면서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복지와 보건의료가 동네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실험적인 모델로, 아동 건강권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실천 활동 사례가 될 것이다.
- 주요사업: ①간호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아동건강사례관리 실시
 - ②조사연구: 지역의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연구 진행
 - ③교육: 지역의 아동청소년 및 가정, 주민 등에 대한 건강 교육
 - ④정책활동: 정기적 정책 토론회 및 정책제도개선 제안
- 단체설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 동네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복합적인 요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좋은 역할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장기적으

10)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지원 준비팀: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전O자, 김O숙, 박O연, 염O숙), 시민건강연구소(서O희)

로 기대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아동가족 차원에서는 조기개입을 통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며, 방임이나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차원에서는 센터교사나 돌봄 인력의 아동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지역,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아동청소년 대상의 술담배 판매 업소등 유해위험환경이 줄어든다. 한편, 지역 내 단체, 주민 간 결속력이 높아진다.

8. 아동건강네트워크의 ‘네트워크’

8.1.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8.1.1. 참여 :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 - ‘모른 채’ 시작하다!

아동건강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 실무자/활동가들은 대부분 아동건강네트워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했다. ‘어린이 건강권’이라는 개념은 생소했고, ‘어린이 건강’이라는 주제로 해당 단체 또는 참여자 본인인, 혹은 아동건강네트워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 역시 모호한 채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는 당장 발생한 어떠한 사건이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쟁을 통한 쟁취’를 위해 참여한 것 역시 아니었다.

[글상자01] 참여: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

a: “거기 회의를 시작 하는데 한번 가서 참여해봐 이리저리가지고 동행을 해서 그때는 참관,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매 회 올 줄 모르고 참석을 했어요.”

h: “처음에는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f: “그냥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자원봉사 하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자원 봉사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왔다가”

초기 참여 동기는 명확하지 않았고, 대부분 소개나 권유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비자발적인 참여는 아니었다.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센터장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기관/단체의 운영 특성상 네트워크 활동 참여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 참여했다는 것은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시민건강연구소에서 2012년 1년간 사전작업으로 어린이 건강권 관련한 대중강좌를 개최하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는 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였다. 그럼에도, 그간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서 신뢰관계를 맺어왔던 (재)풀뿌리 희망재단과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제안’으로 아동건강네트워크는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에서 참여자들은 잘 ‘모른 채’ 아동건강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이태수 외(2008)¹¹⁾는 이미 10년 전에 기관과 관련 인력들이 모이면 모두 네트워크라는 명

칭으로 불리는 현상, 즉 ‘네트워크의 홍수’라고 볼 수 있는 기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다. 분명한 정의나 원리 없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쓰임으로써 모든 것이 네트워크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네트워크가 아닐 수 있는 현상은 10년 전에도 문제였으나, 현재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태수 외(2008)가 지향해야 하는 네트워크 형태와 그 당시 지적한 아동청소년복지네트워크 구축의 한계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태수 외(2008)가 지적한 바대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태수 외(2008)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의 부족, 기관들 간의 이해 및 신뢰 부족, 네트워크의 개별화/파편화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1)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의 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관의 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인력도 부족하다.

2) 기관들 간의 이해와 신뢰 부족

기관들 간의 신뢰와 존중,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자기완결적 조직으로 기능하던 경험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위한 활동을 부가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완성된 상태나 결과로 이해하기 보다 단계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네트워크의 개별화, 파편화

실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개별 기관이나 개인의 역량 정도에 따라 지역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열정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 차원에서 그 범위나 수준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사라지면 네트워크도 함께 사라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의 개별화, 파편화로 인해,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이탈하는 단체 역시 담당자가 퇴사해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풀뿌리 희망재단과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은 그간 지역사회에서 각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실로 두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지역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 결과, 두 단체가 결합해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들은 우리가 모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지 잘 ‘모른 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에서 아동건강네트워크는 시작할 수

11) 이태수·정익중·김신열·박경수·이효균·이경림·박주현, 2008, 학지사.

있었다.

8.1.2.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 단체들 간에는 아동건강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서로 매우 달랐다.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개별 센터마다 질적 수준 편차가 심하다. 그러다 보니, 개별기관의 역량 정도와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역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이렇다 보니, 아동건강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아동건강네트워크에 대한 기대나 상상이 기초적인 연계 형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의 경우, 기초적인 연계 형태의 네트워크 경험은 적지 않고 오히려 많았다. Q만 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만 3개(아동건강네트워크, 학교교육복지사와 함께 하는 모임(사례관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였고, D구 거점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사지원프로그램과 아동건강네트워크 소모임(책임기모임)까지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하는 네트워크 모임만 5개였다. 이처럼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 중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은 기초적 연계 형태의 네트워크에 익숙했다. 그러다보니 지역아동센터처럼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는 대부분 정보습득이나 서비스수혜 등의 직간접적인 상호 이익과 이해가 맞는 네트워크로 아동건강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있었다.

[글상자02]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1)

o: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에(참여하게 되었어요)(중략)캠프(가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아직도 캠프에서 한 딱지치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희 혼자만 있었던 말 수 없었던 좋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저도 더 알려주면서, 더 공부해서 좋은 쪽으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i: 저는 이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 정말 고립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h샘 있을 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너나 나나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미래(아이)를 통해 처음에 정보를 받게 되었고, 미래(아이)를 통해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어서, 정말 미래(아이)와 Y이사님한테 감사드려요(웃음). Y이사님이 미래에 우리 좀 잘 다독여줘라... 우리가 모르는 것 가르켜 주시고,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웃음)

j: 지금 또 회의를 저도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깐 아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보호자분들한테도 다만 약소하지만 정기 기부를 약정을 받을 수도 있게끔 홍보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i: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사후조사하고 평가결과를 잘만 추려 내면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 아이들은 아마 후원금 이런 거, 결과만 잘 만들어 내면 지금 뭐 캠프같은 경우에도 가면은 한 3일 지원을 다 받으니까, 급식비로 지역 아동 센터는 좀 긍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와 서비스 수혜, 상호이익과 이해에 기반 한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목적의 네트워크도 분명히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마다 편차가 커서 기초적 연결형태의 네트워크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글상자03]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2)

a: 천안에도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스템의 구조로 인해서 많은 네트워크나 외적 활동들을 많이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그런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도 어쨌든 몇 군데는 안 가봤지만 지역 아동 센터 역시 그 환경이 열악한 것도 너무 많은 거 예요. 그리고 역량이 부족해서 외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다만, 아동건강네트워크 출범당시, 우리 네트워크는 소극적 참여만 하면 되는 기초적 연결 형태의 방향은 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반대로 기초적 연결 형태의 방향으로 가겠다고 합의한 바가 없다. 각자 다른 ‘네트워크’를 상상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형태의 ‘네트워크’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다보니 발생한, 서로에 대한 이해에 간극이 있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 나도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상호 호혜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참여가 부족함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글상자04]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3)

j, h: 아동건강네트워크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받아가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받아가도 되나. (채무감에 자꾸 나오고 있음)

더욱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자로서, 기존의 네트워크방식에 익숙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기초적 연결 형태를 넘어선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 참여자도 존재했다.

[글상자05]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4)

u: 사실 네트워크... (웃음)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회이나 장소나 모임에 그냥 ‘참석’만 한 느낌이라서요. (중략)함께 하는 일들이어야 하나까, 좀 더 같이 해서, 정말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연대로서 아동건강네트워크를 이해했다.

[글상자06]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5)

c: 이를테면 그거죠 지역아동센터 뭐 지원을 해준다 어쩐다 그렇게 해도 아간돌봄 같은 경우, 센터들이 그런 실행적인 부분이 어려우면 또 못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수행하는 실무자의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침 식사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p: 네트워크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 간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g: (모금캠페인을 했는데) (인식)확산이 안 되고 너무 좀더라고요. 또 모금을 원래는 이렇게 연속해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나가서 두 시간 떠나니까 밖에서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건강 불평등이 특히 이제 그런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복지기고라던가 아니면 지역신문 같은 데 라든지 매일신문 같은 데는 교육적인 것도 꽤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중략)저희가 이걸 진행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계속 여론이 되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막 애써서 저희가 하는데 학교는 이렇게 냉랭하게 우리 뭐가 규정에 안 맞고 해서 이렇게 하는 자세로 나오는 거는 정말

g는 특히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평가 워크숍 당시, 평가서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상자07]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6)

g: “지역아동센터 아침밥 제공: 먹거리로 아동건강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초기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점검해서 조식 제공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청들과 협의체가 꾸려져야만 절차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몇몇 청소년들에게만 조식을 제공하는 것은 작년 모금활동과 토론회를 거쳐 시의 지원을 얻어낸 수고를 되보시게 되므로, 제도상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매점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 등 모색이 필요합니다. 충남도 정책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찾아서 아동건강에 특색을 둔 사업제안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기존 네트워크 활동의 경험 그대로, 아동건강네트워크에서 역시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 또는 주최측과 참여자의 이분법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했는데, 대체로 간사단체를 서비스제공자 또는 주최측으로 생각했고, 참여자 본인 또는 참여기관을 수혜자 또는 (주최측과 대비되는 의미의)소극적 참여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글상자08] 동상이몽: 네트워크 Vs. 연대 (7)

2015.11.20. 현장일지:

d간사는 아직도 인형극을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너무 욕을 많이 들어먹어서, 다시 생각해도 울컥울컥 한단다. 크라우드 펀딩 한달 내내 너무 고생했고, 마지막 날까지도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오늘 R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냈다. S센터는 당일날 다른 일정을 잡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솔직히 좀 실망하고 화가 났었다고... d가 속상했을 것 같은데, 괜찮냐고 말을 건넸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T센터도 그랬다고 했다. 센터에서 다 오겠다고 해서 외부 홍보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를 전, 하루 전에 연락해서 다른 일정 있어서 못 간다고 통보하더라며 정말 속상해했다.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나도 같이 속이 상했다.

2015년 당시 연구자의 현장일지를 보면, 연구자는 모든 참여자들이 아동건강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이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기대와 다른 행동이 나왔을 때 속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실은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각자 아동건강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달랐다. 그러다 보니, 각자 이해한 바대로 활동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8.1.3. ‘함께’ 이지만 함께 ‘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서로 매우 달랐고, 각자 이해한 바대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참여도에 대한 기대 역시 서로 달랐다. 대체로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업무량이 많아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웠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받는 형태의 ‘네트워크’에 익숙해져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간사단체에서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직접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참여자 때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글상자09] ‘함께’이지만 함께 ‘하지’않는다! (1)

a: 배분 사업이 어쨌든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계속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했었잖아요. 공감은 하지만 선뜻 나서는 네트워크 구성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죠. (중략)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업에서 모금을 너무 제 선에 의지하는 건 아닐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건 상처는 아니지만 속상한 거죠. (중략) 부담스럽긴 했죠. (중략) 지금 나 밖에 없는데 만약에 두 세 명의 사업팀이 이걸 맡았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같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2015.08.25. 현장일지:

d는 이번 캠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피부가 다 뒤집어졌는데도, 메르스 때문에 피부과도 못가고... 자기는 힘들어죽겠는데 누구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d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얼굴 빛이 안 좋고, 책임기모임에도 잘 집중하지 못했다. 나와 힘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울컥울컥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략) 올해 일이 너무 많은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외로웠다고 했다.

2015.08.13. 현장일지:

d가 너무 힘들어해서(울먹거림) 마음이 안 좋다. 좀 더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다 사실. d는 논의 상대, 동료·동지가 필요한 듯 보였고 과도한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듯 보였다.

u: d간사님, 한 번씩 종종 많이 봐주세요. 고생하시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네트워크... (웃음)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회의나 장소나 모임에 그냥 ‘참석’만 한 느낌이어서요. 사람의 힘이라고도 하였고, 함께 하는 일들이어야 하니까, 좀 더 같이 해서, 정말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a: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에서 바라는 바)전 참여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구성원들이, 그니까 지금 네트워크가 처음엔 20곳으로 시작했지만 그 중간 중간에 좀 신규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들어온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규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처음 초기 멤버들이 또 흐지부지 되고 탈락 되잖아요.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회의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고 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실질적인 활동의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간사단체 간사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 그들이 함께 ‘한다’고 느끼기 어려웠고, 활동 평가 회의 때 자주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글상자10] ‘함께’이지만 함께 ‘하지’않는다! (2)

d(간사단체 간사): 지금 사실 저번 달 계속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줘야 되고 하는데 다 사업처가 마련되지도 않고 자꾸 뭔가 난항의 요인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나 이 안에서 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회운동차원에서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수혜자와 제공자로 역할을 나눌 수 없다. 따라서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로 구분할 수 없다. 참여한 이들은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돕는다’는 개념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활동을 통해 활동과정에서든 결과적으로든 ‘서로 돕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뜻에 동참하는 참여자들 간의 책임과 의무이자 권한이다. 네트워크 활동의 많은 실무를 맡았던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자주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함께 하겠다고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모인 취지에 맞춰 ‘함께 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1.4.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정체성

참여자들은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에서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를 시작했었고,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공유한 상태에서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은 이어져왔다. 회의에서 또는 일상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하고 활동을 진행해왔지만, 각자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다른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채, 네트워크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c처럼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사회운동차원의 연대로 이해한 경우는, 단지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 형태의 사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논의의 범주를 확장하고 참여자들의 참여도나 공감

대를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글상자1]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정체성 (1)

c: 저는 이...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어쨌든 우리한테 목표가 소식에 대한 큰 안이 있고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좀 더 동력이 생기고 잘 가는 거 같긴 해요. 근데 어느 한 편에서는 1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너무 우리가 아침밥, 아이들 건강 문제에서 아침밥에만 초점이 맞춰있지 않나 다른 아동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는데, 회의는 한 달에 한번이고, 할 거리는 많고, 회의 자리에 모이면 소식 얘기만 하다 끝나는 분위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회의를 끌고 가면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요즘인 거 같아요.

j처럼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서비스 제공과 정보공유 차원으로 이해한 경우는 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활동을 파악했고,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 역시 프로그램 중심이었다.

[글상자2]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정체성 (2)

j: 저는 네트워크 생각하면, '아침밥'이 떠올라요. 아침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도 했었고, 센터 아이들에 대해서 아침밥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고민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서 학교 가서 즐지도 않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네트워크 생각하면 '아침밥'이 떠올라요.

이처럼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정체성은 네트워크 구성원이자 참여자들 간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확립되지 못한 채, 활동은 지속되었다.

8.2. 네트워크 활동 경험

8.2.1.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아동건강네트워크를 하면서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즉,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어디쯤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글상자3]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1)

d: 참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던... 다양한 경험. 좋은 경험도 많았고. 나쁜 경험도 많았어요. 스몰다섯 해를 살면서 이렇게 다양하고 격한 경험을 해본 해는 2015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웃음)

d는 '개인적으로' 다양하고 격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경험은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차원의 경험이기도 해서 단지 '개인적이지만'한 경험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d는 네트워크 활동 과정 속에서 참여자 스스로 생각했던 역할과, 소속 단체와 네트워크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실무만 하면 되는 실무자보다는 더 많은 책임감과 헌신성을 요하는 활동가로서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활동가'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참여하는 이들 간에 일의 분배를 명확히 하여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 되는 '실무자'로서의 역할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막연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d는 스스로 활동가임을 생각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 역시 활동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은 해보지도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았다. 개인적 차원인 '실무자'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러한 심적 부담을 가져오는 갈등을 d는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편, 활동가로서의 역할보다는 실무자로서의 역할 인식이 명확한 경우도 많았다. 아동건강네트워크를 서비스 제공 중심의 네트워크로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 역시 서비스 제공 중심의 '실무자'로 이해했다. '뜻'을 함께 하고, 궁극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 사회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회운동형태의 연대보다 서비스 제공 중심의 네트워크 활동이 익숙한 상태에서 '실무자'는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과 의무감은 활동가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글상자4]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 (2)

2015.07.09. 현장일지:
T센터의 S 퇴사. 마지막까지 S가 말 안하려던 것을 R이 이야기함. 3년 이상 근무해서 너무 소진된 것이 이유라고 함. B센터 L 그만둘 때는 밥이라도 같이 한끼 먹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만두기 직전에 알게 되어 아쉬웠음. 네트워크 분위기가 그만두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 다 챙겨서 밥먹고 할 여유(심적, 물리적)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그런 것 같음. 그런 심적·물리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간 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해왔

는데, 헤어지는 이들과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잘’ 헤어질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쉬움. 네트워크 활동을 그만 둔 그간의 다른 이들도... 또 언제 함께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 같이 함께 했냐는 듯이 똑 끊어지는 것이... 좀 뭔가 아쉬움. C 센터의 a도 그랬고, D센터의 h도 그랬음. 물론 a와 h는 책읽기모임에서 식사라도 했지만... 그건 네트워크 자체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음. 네트워크 자체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음. 그렇다면 최소한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인사하고 박수쳐주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음.

‘실무자’들 간의 서비스 제공 중심 네트워크 참여 방식은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서 탈락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물론 당장의 현안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익숙한 형태로 진행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시공간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탈락해 나가는 참여단체, 또는 참여자라 할지라도 정기회의에서 마지막 인사와 함께 다음에 다시 참여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8.2.2. 새로운 경험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기존의 네트워크와 다르게 아동건강네트워크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가장 큰 것은 ‘어린이 건강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기반으로 한 소모임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 운영이었다.

8.2.2.1. 새로운 관점 : 어린이 건강권

처음에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어린이 건강권’이라는 어린이의 인권으로서의 건강,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생소해 했다. 더군다나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어린이의 당연한 권리로서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모호하며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기회의를 지속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어린이 건강’을 바라보게 되었다.

[글상자15] 새로운 관점: 어린이 건강권

2015.12.11 사업평가 워크샵 E센터 작성:

“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서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또는 아동관리 부문에만 집중하기 마련인데, 오로지 아동의 ‘건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심을 갖게 한 계기를 마련한 유일무이한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든다. 협력·조력의 의미로 함께 무언가 토대를 마련하고 네트워크 참여 단체 및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각자 분야의 정보를 가져와 주셔서 삶을 붙이고 함께 공유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한 만남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실무자 개인 측면에서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d: 소재(주제) 자체가 처음에 저도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재 자체가 좀 지역 아동 센터 교사들이나 그 쪽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 들어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어찌 되었건 마인드나, 이런 게 있다는 거 자체를 알게 되는 거니까.

m: 연구소 자체가 좀 생소해서 저희는 천안에서 일하면서 되게 많은 네트워크(단체)를 만나봤는데 연구소는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생소했고 처음에는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야 할까. 어쨌든 연구소가 네트워크에 들어옴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그게 실제 생활에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소가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회의 때 가지고 와 주셔서 좋았어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연구소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a: 처음에 하면서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가 궁금하고 자세한건 몰랐는데 한두 번 참여하다보니까 아이들의 건강함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모금)캠페인을 나가서 이렇게 좀 나눠주다 보니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오히려 와가지고, 다가와서 달라고 이렇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하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도 이게 가능할까, 모금이 쉽지 않은데 그랬는데 그렇게 조금씩 모아진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거 같아요.

n: 저는 성장과 생각의 전환. 둘 다 같은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한 달에 한번 네트워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아이들과도 하루하루 지내면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힘들었던 것에 대해 지금은 기지(지혜)와 여유가 생겼어요. 일하면서 나만의 역량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하반기 들어서 인권 강좌가 되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들’ 강사진들의 강의가 확연히 달랐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o: 기존에는 제 위주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고 되게 많이, 배우는 게 많아요.

8.2.2.2. 공감과지지, 새로운 관점의 소모임(책읽기)

아동건강네트워크 소모임인 ‘책읽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모임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과 다른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며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을 꼽았다.

[글상자6] 공감과 지지, 새로운 관점의 소모임

a: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도 많았던 거 같아요. 제가 매일 북 스터디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매번 책 한 권씩 읽을 때마다, 물론 의무감으로 읽기는 하죠. 그런데 재밌어서 읽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는 거죠. 솔직히 아동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아는 실무자도 몇 없을 것이고 선생님으로 교육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의 바램은 그런 거에 공감을 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예요.

n: 저희 센터장님은 책모임 쪽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책모임을 통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자리가 심적으로 되게 소진된 것을 힐링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되게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는 '따뜻함'이라고...

a: 일단 자기의 업무에 대한 공감을 받잖아요. 같이 북 스터디 하는 멤버들이 공감도 해주잖아요.

u: 저는 책읽기 모임 매달 참여하는데, 살면서 무엇인가 읽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소통하는 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일은 일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데 책읽기 모임은 생각을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좋았습니다.

m: 시간을 내서 서로 책을 권유·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에서 여타 책모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책모임에 나오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소진되는 마음을 다독일 수 있었던 기회였으며 고정된 멤버로 월 1회 지속해 만남을 가지며 힐링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8.2.2.3. 네트워크 운영방식

참여자들은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운영방식이 기존의 네트워크와 달랐다고 이야기했다. 뒤로 갈수록 호지부되되기는 했지만, 초기 아동건강네트워크는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활동을 지속해 가기 위해 노력했다. 아동건강네트워크 출범 초기, 아동건강네트워크는 활동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참여자들 역시 높은 적극성과 참여율을 보이기도 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고 조율하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경험은, 비록 그 과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한 두 해의 경험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는 긍정적 경험이었다.

[글상자7] 네트워크 운영방식

c: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트워크를 많이 해봤지만 오히려 이렇게 지루하고 긴 회의에서 이렇게 참여율이 높고 뭔가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하려는 그런 네트워크는 참 처음인 거 같아요. 굉장히 감동받고 갑니다.

a: 저는 b 교수님도 되게 보고 많이 배워요. 되게 조율을 잘 하시잖아요. 조율도 잘 하시고 웃음을 항상 잃지 않으시면서 회의에서. 의견을 다 들으시고 종합해주시고.

f: 점점 가면서 조직이 갖춰지고 조직적으로 뭔가 이제 크게 진짜 이게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야 하는 어떤 일들일 것 같은 일을 이렇게 모여 가지고 차근차근, 진짜 지루하게 회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는 거의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건지 정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막판에 오면서 실제적으로 일이 진행 되는 거 보면서 뭔가 굉장히 뿌듯한 그런 마음도 들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움직이지 않는 저 위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하고 있는 일을 이런 식으로 자극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d: 저희 네트워크 구성원분들이 센터나 일반 실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소의 역할은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꼼꼼히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안에서 나오지 못한 좀 이론적인 부분이나 연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수요 조사 그런 거 할 때는 막연히 저희가 찾는 데 한계가 있는데 연구소가 같이 있으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많이 도움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2.3. 활동의 부작용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의 성과로, 지역사회에 어린이 아침밥지원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고, 천안시의 제도적 뒷받침도 일부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동건강네트워크의 아침밥지원사업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급식교사 인건비 보조, 공간 접근성 문제, 돌봄 철학 공유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의 지역아동센터 식비 보조는 몇몇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에 대한 철학 없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시에서 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조식지원을 신청한 것이다. 이를 본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황당해했다. 게다가 돌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센터는 조식 제공이 단지 식비 지원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서인지, 거의 조식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또한 어렵게 시예산을 확보한 아동건강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글상자18] 활동의 부작용 (1)

2015.01.16 사업평가 회의
 j: Q센터, 조식사진 올린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부실하더라고요. 시커멓게 다 탄 함박스테이크, 밥, 국, 김치, 저게 4500원짜리 식단인가 싶었다는...
 d: Q센터, 조식지원 신청했다는 소식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네트워크 나갈 때, 왜 아이들한테 밥을 먹어야 하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나갔던 분이었는데... 시설장 마인드가 정말 아닌데...
 c: U센터 역시 조식지원 신청은 정말 의아했어요. 학원장 하던 분이 세운 센터인데...

또 다른 아동건강네트워크 활동의 부작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경쟁구도가 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으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센터의 교사들이 은근히 느끼는 감정이었다. 가시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우리와 연대해야 할 단체이지, 경쟁해야 할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상자19] 활동의 부작용 (2)

2015.11.20. 책읽기모임 현장일지:
 H와 네트워크가 경쟁구도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걸 '서비스 중심'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트워크가 '서비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실행사업이 없다면, (센터 입장에서) 함께 할 이유가 없을테고....

8.2.4. 활동의 지속성

아동건강네트워크 뿐 아니라 어떠한 조직도 활동의 지속성은 그냥 담보되지 않는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네트워크 참여자든 활동과정에서의 노력과 고민은 필수다.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 역시 활동의 지속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그 첫 번째가 참여단체의 탈락 문제였다. 두 번째는 참여단체와 직접적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참여와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였고, 세 번째는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모였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그러다보니 문제가 있어도 갈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어떤 연대활동도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 갈등이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다보니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당연히 개선해 나가기도 쉽지 않았다.

[글상자20] 활동의 지속성

m: 네트워크, 최근에 제가 참여를 못해서, 담당, 제가 또 다른 회의를 참석하면서 나뉘진 거거든요. 네트워크 기관들이 중간에 많이 탈락되었어요.

d: 기관F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 이야기인데 좀 아닌 거 같다고 나가버리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방임 쪽을 더 하는 게 낫겠다. 아침밥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 예요. 여기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방임에 좀 더 힘쓰면 좋겠다 싶어서 나가셨는데 담당자분들 다 바뀌었어요.

e: (기관G는)처음부터 급식 자체가 확대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래 그게 충분히 동의를 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는 거는 좋지않지만 급식이 너무 확대되면 어찌 되었든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OO 선생님이 농사짓는 분이기 때문에 농산품이 어쨌든 줄어드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식이 확대될수록 쌀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어떻게든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 해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의 활동이 너무 협소하고 동의되지 않고 그랬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h: 조식이 중요한 건 알지만 형편상 안 되고 지금 선생님도 그랬지만 저도 아침을 잘 안 먹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 있기는 한데 아이들이 조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건 알지만 그 외의 건강 쪽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해보아야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아침만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지는 부분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음에는 한 번 좀 건드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a: 이제 그렇게 상처는 아니지만, 속상함은 있지만, 어쨌든 이 네트워크의 주목적이 제가 상쳐받을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이런 건강한, 조직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시행착오는 다 있잖아요. 거의 없는 거죠. 저희 네트워크는. 선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뭐 그 정도는(개인적으로 참고 넘길 수 있죠).

2015.02.27. 마음건강캠프 현장일지:
 강사가 요청하여 교사와 진행보조자(자원봉사자)들 회의를 함. f선생님은 집에 감. 강사 앞이라 그런지, 다들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그런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함. 다만,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함.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되었고, 잘 어울리고, 재미있어한다고 평가함. 그리고 본인도(z쌤, j쌤 등)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조금 더 설명을 충분히 해줬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함. 누구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없음.

2016.06.21. 현장일지:
 네트워크 29차 회의에서 이번에 여름 캠프 진행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서로 간에 처음으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갈등이 표출되었다'는 것 자체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3. 어린이 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방향 모색

우리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위원회가 어린이의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 제시한 ‘조기 아동발달 통합환경사정모델(Total Environment Assessment Model of Early Child Development:TEAM-ECD)을 주목했고, 이에 근거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 사회자본, 즉 어린이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고자 참여적 실험연구를 진행했다. 참여적 실험연구의 특성상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실천의 자기 순환과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완성형이 아니다. 또한 과정을 함께 한 현장은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단체와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단일하지 않았고, 모호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을 확대하는 형태의 시도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Granovetter(1977)¹²⁾는 ‘약한 유대’가 사회자본의 확대에 오히려 유용하다고 했다. 약한 유대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충성도나 강도는 낮을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강한 유대’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그 신뢰도나 확실성은 높을지언정 주로 유사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간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약한 유대의 네트워크든, 강한 유대의 네트워크든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아동건강네트워크가 현재 어떤 식의 네트워크일지라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건강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의 역할, 참여 등에 대해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고민과 논의를 함께 하는 구조가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아동건강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아동건강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연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 제공과 정보공유 차원의 네트워크였다. 어떤 형태라 해도 장단점이 있다. 전자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차원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개인적 차원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다. 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은 둘 다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이면, 아무리 우리가 집단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악

12) Man, X. O., Barth, R. P., Li, Y. E., & Wang, Z. B. (2017). Exploring the new child protection system in Mainland China: How does it work?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6, 196-202. doi:10.1016/j.childyouth.2017.03.012

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큰 틀에서 그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인 차원만 강조하면, 당장의 개인의 삶의 고통을 외면하게 된다. 제도나 정책, 정치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 개인의 현재 당면한 고통을 외면한 채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모두 끌어안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아동건강네트워크는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역할과 서비스 제공과 정보공유 역할이 모두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성적 실천의 자기순환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아동건강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참여단체와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합의하고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순환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 02-535-1848 / Fax : 02-581-0339

홈페이지 : <http://health.re.kr> / 전자우편 : phikorea@gmail.com

후원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연구소